

고신교회(총회) 설립 70주년 기념
70일 새벽기도회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

인사말 · 6

성경구절(이사야) · 8

첫째주(2.7-2.13) · 52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나라 | 예루살렘의 심판 | 그 날에 | 포도원의 노래 | 하늘의 법정에서

칼럼_ Have가 아닌 Being · 66

둘째주(2.14-2.20) · 68

임마누엘의 징조 | 마헬살랄하스바스 | 빛 되신 메시아 | 앗수르의 심판을 예언함 | 새로운 다윗이신 메시아의 통치 | 감사하고 찬양하는 교회 | 바벨론에 대한 경고

칼럼_ 세렌디피티(serendipity)를 아십니까? · 82

셋째주(2.21-27) · 84

모든 권세보다 뛰어난 권세 | 모압에 관한 경고 | 시온, 세상의 피난처! | 아람, 에브라임, 유다, 열방들에 대한 경고 |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 애굽에 관한 경고 |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지 말라

칼럼_ 꿈을 품은 세대를 양육하자 · 98

넷째주(2.28-3.6) · 100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를 향한 경고 |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 | 두로에 관한 경고 | 심판을 넘어 회복으로 | 여호와를 찬양하라 | 유다 땅에서 부를 노래 | 포도원의 노래

칼럼_ 엄마 아빠와 나누는 설교 · 114

다섯째주(3.7-3.13) · 116

비틀거리는 나라와 백성들이여 | 슬픈 아리엘과 기이한 일을 베푸신 하나님 | 애굽과 맺은 헛된 계약 | 하나님만 의지하라 | 심판을 지나 의로운 나라로 |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 열국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

칼럼_ '이런 것'도 기도해 보세요 · 130

여섯째주(3.14-3.20) · 132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보다 | 교회 개혁이 위기를 만날 때 | 하나님의 열심 | 히스기야의 기도 | 복음, 교회의 유일한 자랑 | 내 백성을 위로하라 | 하나님의 법정에서

칼럼_ 흠이 금이 되다(삿 11:1-7) · 146

일곱째주(3.21-3.27) · 148

종의 노래 | 너는 내 것이라 | 목 놓아 백성을 부르시는 여호와 |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 처녀 딸 바벨론에 대한 경고 |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지어다

칼럼_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 · 162

여덟째주(3.28-4.3) · 164

참 구원자이신 여호와의 종 |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 예루살렘을 향한 위로 | 시온의 회복 |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 |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 은혜로운 하나님의 초청

칼럼_ 청소년, 다음 세대, 우리의 미스바 · 178

아홉째주(4.4-4.10) · 180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 | 내가 그를 고치리라 |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 종보자 안에서 일어서는 교회 |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 쉬지 않으시는 여호와

칼럼_ 나 혼자 산다? · 194

열째주(4.11-4.17) · 196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새 예배 |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 평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 메시아 왕국의 비전

칼럼_ 기독교교육의 기본원리 · 210

고신교회(총회) 설립 70주년 기념
70일 새벽기도회 출석표

1주	1	2	3	4	5	6	7
2주	8	9	10	11	12	13	14
3주	15	16	17	18	19	20	21
4주	22	23	24	25	26	27	28
5주	29	30	31	32	33	34	35
6주	36	37	38	39	40	41	42
7주	43	44	45	46	47	48	49
8주	50	51	52	53	54	55	56
9주	57	58	59	60	61	62	63
10주	64	65	66	67	68	69	70

70일 새벽기도회 운영 안내서

이번 70일 새벽기도회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내야 할 것은 더욱 아닙니다. 70일 새벽기도회는 한국교회에 주신 귀한 유산인 새벽기도회를 회복하는 작은 몸부림입니다. 우리 선배들에게 주셨던 뜨거운 기도의 열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고신교회(총회)가 다시 세상의 빛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참여합니다.

- 1) 당회의 안내를 따라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 2) 온 교회 성도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서로 격려하며 동참을 호소합니다.
- 3) 어린이들과 중, 고등부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고합니다.
- 4) 이사가 교재에 소개된 기도제목과 교회와 개인 기도제목을 공유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 5) 토요일마다 전 가족이 함께 기도회에 참여하고, 기도회 후 간단한 식사를 추천합니다.
- 6) 새벽기도회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도 좋습니다.
- 7) 기도 중에 특별한 은혜나 간증이 있으면 간단히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 8) 70일 새벽기도 기간에 가급적 저녁 모임은 자제하도록 합니다.
- 9) 교재의 출석 점검란에 도장이나 스티커로 출석 확인을 받으십시오.
- 10) 부득이 결석할 시에는 저녁 시간에 반드시 그날의 본문과 해설을 읽고 기도합니다.

고신교회(총회) 설립 70주년 기념 70일 새벽기도회에 초청합니다.



올해는 우리 고신교회(총회)가 세워진지 70년입니다. 제27회 장로회 총회(1938년 9월 10일)는 신사참배를 가결하여 배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많은 주의 종들이 옥고를 치르고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 중에 신사참배에 찬성한 이들이 교권을 잡고 교회를 더욱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방이 되어(1945년 8월) 출옥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 개혁과 재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권을 잡은 이들은 형식적인 자숙에 머물렀고 오히려 출옥 성도들의 교회 개혁을 저지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신교회의 선배들은 고려신학교를 개교하여 교회 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경남노회의 교권주의자들은 고려신학교에 학생을 천거하는 일과 학교 인허를 취소하였습니다. 고려신학교 인허 취소와 회개를 통한 교회 개혁에 반대하는 이들은 노회를 분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총회에서 전권위원들이 파송되었고, 경남노회를 세 노회(경남, 경중, 경서)로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경남노회에 소속된 100여 교회가 경남(법통)노회를 지지했고, 고려신학교에서는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제37회 총회(1952년 4월)는 경남(법통)노회와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그해 9월 11일, 제57회 경남(법통)노회가 진주 성남교회에서 총노회를 조직하여 고신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모일 때마다 회개의 뜨거운 기도와 교회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우는 집'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선배들의 귀한 헌신이 오늘의 고신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70년이 되었습니다. 선배들이 기도하며 부르짖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70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은 우리의 새벽을 깨우는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미래 세대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가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회개와 회복과 전진을 위해 귀한 새벽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고신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교재를 감수해 주신 고려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이신 기동연 교수님과 총회성경연구소 연구위원이신 최만수 목사님 그리고 출간에 수고하신 고신언론사 최정기 사장님과 모든 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고신교회와 한국 교회의 회복을 꿈꾸며
2022년 1월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장 목사 강학근

1일-2월 7일(월)

이사야 60장 1절

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일-2월 8일(화)

이사야 1장 1-31절

1 유다 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has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2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 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5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7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8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 같이, 참외밭의 원두막 같이, 에워 싸인 성읍 같이 겨우 남았도다 9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도다 10 너희 소돔의 관원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노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19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와 입의 말씀이니라 21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로다 22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23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24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25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네 찌꺼기를 갚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26 내가 네 재판관들을 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느니라 27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28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29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30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31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끝 사람이 없으리라

3일-2월 9일(수)

이사야 2장 1-22절

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2 말일에 여호와와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4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5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빛에 행하자 6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7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8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9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10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와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11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2 대저 만군의 여호와와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13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14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 오른 작은 언덕과 15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16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17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18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19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20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 날에 두터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21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22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4일-2월 10일(목)

이사야 3장 1-26절

1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2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3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4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5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6 혹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는 곁동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네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7 그 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8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었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9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 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10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11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12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심판하시라 13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14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15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맺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

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16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늘인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17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18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19 귀 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20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21 반지와 코 고리와 22 예복과 겹옷과 목도리와 손 주머니와 23 손 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24 그 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술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25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26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5일·2월 11일(금)

이사야 4장 1-6절

1 그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하실 때 2 그 날에 여호와와 짝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3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4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5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6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6일·2월 12일(토)

이사야 5장 1-30절

1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쁜 산이로다 2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3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4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5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6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쟈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7 무릇 만군의 여호와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박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8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 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9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녕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10 열흘 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졌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예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11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2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13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14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운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15 어느 사람은 구푸리고 준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16 오직 만군의 여호와와는 정의로우시므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므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

리니 17 그 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밤에서 먹으리라 18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 줄로 함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19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20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1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2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빛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3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24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김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25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 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26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27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28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29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처럼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니 30 그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7일·2월 13일(주일)

이사야 6장 1-13절

1 옷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4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리라 5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 하였던가 6 그 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을 바 핀 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11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 그 중에 심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8일·2월 14일(월)

이사야 7장 1-25절

1 옷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2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3 그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숨은 옷뚝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4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 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깥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5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6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7 주 여호와와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8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육십오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9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나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0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12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13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5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영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16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17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앗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18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앗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19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20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앗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 털과 발 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21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22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영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는 영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23 그 날에는 천 그루에 온 천 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쥘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24 온 땅에 쥘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25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쥘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9일 2월 15일(화)

이사야 8장 1-22절

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하스바스라 쓰라 2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라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3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 하라 4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앗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5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7 그러므로 주 내가 흥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앗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8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퍼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9 너희 민족들이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이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10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11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 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12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13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14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울무가 되시리니 15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탓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16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17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18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9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20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21 이 땅으로 해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22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10일 2월 16일(수)

이사야 9장 1-21절

1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니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3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멘 멩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5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겂옷이 불에 썩 같이 살라지리니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8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9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어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10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돌로 쌓고 뿔나무들이 썩었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11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12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와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3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14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15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16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17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와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8 대저 악행은 불 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쥘레와 가시를 삼키며 뻘뻘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19 만군의 여호와와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에 썩고 같은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20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주리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21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와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2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3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4 포로 된 자 아래에 구푸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5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6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 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7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8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9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니 10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11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12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13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14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15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러 함과 같음이다 16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17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18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19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20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21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23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주께서 앗수르를 멸하시리라 24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이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25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26 만군의 여호와께서 책책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27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28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29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30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돗이여 31 맛메나는 피난하며 게뭇 주민은 도망하도다 32 아직 이 날에 그가 늙어서 쉬고 딸 시온 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리다 33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꺾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34 쇠로 그 뾰뾰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베임을 당하리라

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 그의 위에 여호와와의 영 곧 지혜

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3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6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떼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10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11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12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13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14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15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테 하수 위에 흔들여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16 그의 남은 백성 곧 앗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1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2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3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리다 4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5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6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2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여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3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4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남이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다 5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여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6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께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7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8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 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리다 9 보라 여호와와 그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10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돌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11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12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리다 13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

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14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 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15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리지겠고 16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락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17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18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19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 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20 그 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주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이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 곳에 그들의 양 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21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뿔 것이요 22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개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15일·2월 21일(월)

이사야 14장 1-32절

1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2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와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3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4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5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6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7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8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배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9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10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 같이 연합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되 11 네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음이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합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지리라 하는도다 15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되 16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 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17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되 18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전하는 19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밝힌 시체와 같도다 20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되 21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록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22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23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빛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24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5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 때에 그의 멩에가 2)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26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27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꺾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28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29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30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기뻐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륙을 당하리라 31 성문이며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며 부르짖을 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되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32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16일·2월 22일(화)

이사야 15장 1-9절

1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2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3 거리에서는 굶은 베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4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갸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5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야까지 이르고 울며 루히트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폐망을 울부짖으니 6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7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8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돌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9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17일·2월 23일(수)

이사야 16장 1-14절

1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2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나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3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 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4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므로 5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6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7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8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9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10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11 이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 같이 소리를 발하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12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되 13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 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14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삼 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1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2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늪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3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4 그 날에 아굽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5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6 그러나 그 안에 주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7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뵈겠고 8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9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린 바 된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10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11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12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물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13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물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나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14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1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2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이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3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4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꺾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5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멎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낮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6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7 그 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1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니 2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3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니 4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학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5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잿아서 마르겠고 6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므로 갈대와 부들이 사들겠으며 7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8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

곤할 것이며 9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베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10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11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12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13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농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잇들이 거늘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14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15 애굽에서 머리카락이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16 그 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혼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17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18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19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20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21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22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23 그 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24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앗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25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1 앗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헨이라 2 그 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삼 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4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앗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불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5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6 그 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앗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1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뿜 회오리바람 같이 물러왔도다 2 혹독한 목사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에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3 이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4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5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이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6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7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8 파수꾼이 사자 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9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할락되었도다 할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10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11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12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13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라 14 데마 땅의 주민들이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15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뺨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나라 16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 같이 일 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17 계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23일-3월 1일(화)

이사야 22장 1-25절

1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이고 2 소란하며 떠돌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3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4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5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밧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도다 6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7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8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기매 그 날에야 네가 수풀 곳간의 병기를 바라 보았고 9 너희가 닦아 성의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10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11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2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 털을 뜯으며 굵은 베를 띠라 하셨거늘 13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14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5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말고 왕궁 맡은 자 썩나를 보고 이르기를 16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쏘아내었도다 17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 같이 세계 던지되 18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 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었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19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20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21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띠워 힘 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22 내가 또 닦아 성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달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23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24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25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으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24일-3월 2일(수)

이사야 23장 1-18절

1 두루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이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루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깃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2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이 잠잠하라 3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곧 물로 수송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4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5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니 6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이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7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나 8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9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0 딸 다시스여 나일 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11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12 이르시되 너 학대 받은 처녀 딸 시돈아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13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앗수르 사람이 그 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도다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14 다시스의 배들이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15 그 날부터 두루가 한 왕의 연한 같이 칠십 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칠십 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 같이 될 것이라 16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17 칠십 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18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 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25일-3월 3일(목)

이사야 24장 1-23절

1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엎으시고 그 주민을 흠으시리니 2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 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3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4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5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6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7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8 소고 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9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10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11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12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13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들 갈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14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와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15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16 땅 위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

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17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울무가 네게 이르렀나니 18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울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19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20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하므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21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22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23 그 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26일·3월 4일(금)

이사야 25장 1-12절

1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2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시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3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4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의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5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 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6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쁨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쁨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7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8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9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이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10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개가 밟힐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11 그가 해엄치는 자가 해엄치려고 손을 펴 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12 네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27일·3월 5일(토)

이사야 26장 1-21절

1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이다 2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이다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4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와 영원한 반석이시이다 5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앉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6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라 7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며 정직한 신 주께서 의인의 침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8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9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오며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10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와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11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12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니이다 13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4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시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하셨음이니이다 15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였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16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17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을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18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19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이다 20 내 백성이 같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이다 21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28일·3월 6일(주일)

이사야 27장 1-13절

1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위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위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2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이다 3 나 여호와와 포도원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이다 4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썰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5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6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이다 7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실 것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니라 8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시 좇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9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10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 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들 먹어 없이하리라 11 가지가 마르면 꺾이어나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12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따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13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앗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29일·3월 7일(월)

이사야 28장 1-29절

1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쁨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며 쇠잔해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2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 같이, 파괴하는 광풍 같이, 큰 물이 넘침 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3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밟에 밟힐 것이라 4 그 기쁨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열려 따서 먹으리이다 5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6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이다 7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8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9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

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첫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10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11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12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13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14 이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15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16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둥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17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18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밭힘을 당할 것이라 19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20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21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시라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22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23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24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25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26 이는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27 소회향은 도리개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28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니 29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30일-3월 8일(화)

이사야 29장 1-24절

1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 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2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3 내가 너를 사면으로 돌려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4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성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껄이리라 5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 가는 겨 같으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6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7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 같이, 밤의 환상 같이 되리니 8 주린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9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리음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10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11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

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12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13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일으키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4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15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16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 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17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림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림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18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19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와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20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21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울무로 잡들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22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23 그의 사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24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31일-3월 9일(수)

이사야 30장 1-33절

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2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도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3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4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5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6 네겟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7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8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9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 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와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10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11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12 이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13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14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언지 못하리라 15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16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17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의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18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라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와는 정의의 하나님임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9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20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라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21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22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23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쁨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네 가족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24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25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준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26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27 보라 여호와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 불듯 하며 뻘뻘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28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라 29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와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30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라 31 여호와와 목소리에 앓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32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동음을 앓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33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는즉 여호와와 호흡이 유향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32일·3월 10일(목)

이사야 31장 1-9절

1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2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라 3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4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돌음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5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6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7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피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8 앓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9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라 여호와와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와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33일·3월 11일(금)

이사야 32장 1-20절

1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2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내뿜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3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4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5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6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주린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애지게 함이며 7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지니와 8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9 너희 안일한 여인들이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0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일 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11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이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베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12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13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쪼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14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 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15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라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16 그 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17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18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19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20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34일·3월 12일(토)

이사야 33장 1-24절

1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2 여호와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3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4 황충의 떼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략물을 모을 것이며 때뚜기가 뛰어들어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5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니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6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7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8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9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1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11 너희가 겨울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12 민족들은 불에 굶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니 13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14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15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중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피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16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7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18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19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20 우리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21 여호와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 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22 대저 여호와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23 네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밧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24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35일·3월 13일(주일)

이사야 34장 1-17절

1 열국이여 너희는 나야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2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륙 당하게 하셨은즉 3 그 살륙 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4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5 여호와와의 같이 하늘에서 죽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6 여호와와의 같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숫양의 콩팥 기름으로 율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7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흠이 기름으로 율택하리라 8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9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되며 10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히 없겠고 11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드리우실 것임즉 12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13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뽕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14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울썩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15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16 너희는 여호와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17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띠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36일·3월 14일(월)

이사야 35장 1-10절

1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니 3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4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 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5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뿔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7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늪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8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9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

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 여호와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37일·3월 15일(화)

이사야 36장 1-22절

1 히스기야 왕 십사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2 앗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뒷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발 큰 길에 서매 3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말은 자 엘리아김과 서기관 섹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4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앗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나 5 내가 말하노니 네가 죽히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나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6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쪼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7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8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앗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이 천 필을 주어도 너는 그 탈 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9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10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11 이에 엘리아김과 섹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12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네 주와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13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14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15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앗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16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앗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 물을 마실 것이요 17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18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19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20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21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22 그 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말은 자 엘리아김과 서기관 섹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38일·3월 16일(수)

이사야 37장 1-38절

1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여호와와의 전으로 갔고 2 왕궁 말은 자 엘리아김과 서기관 섹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3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4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앗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훼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

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5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6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앗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7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8 앗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립나를 치고 있더라 9 그 때에 앗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10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며 예루살렘이 앗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11 앗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12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13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14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와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퍼 놓고 15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6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7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훼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18 여호와여 앗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19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20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2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앗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22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2)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23 네가 훼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나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24 네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훼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25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26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27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 같이, 푸른 나물 같이, 지붕의 풀 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이 되었느니라 28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29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30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31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32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33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흥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34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와 말이니라 35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36 여호와와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십팔만 오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37 이에 앗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스웨에 거주하더니 38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1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2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3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4 이에 여호와와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십오 년을 더하고 6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7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8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 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 도를 물러가니라 9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10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11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뵈옵지 못하리니 산 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뵈옵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12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걷을 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베를 견어 말을 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맡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각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13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 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각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14 나는 제비 같이, 학 같이 지저귀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잡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15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16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17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18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 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19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20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와 전에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21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멍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오리라 하였고 22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와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1 그 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므로다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2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3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4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5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소서 6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7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8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와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당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3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6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와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9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10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음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12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뿔으로 하늘을 잣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13 누가 여호와와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14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15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1) 짐승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16 레바논은 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17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18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19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 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20 구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21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22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이 퍼셨으며 거주할 천막 같이 치셨고 23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24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아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바람에 불려 가는 초개 같도다 25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26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27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28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1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2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 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개

갈게 하며 3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 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4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5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와서 6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7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메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뿔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8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1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13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4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15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 같이 만들 것이라 16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라 17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18 내가 험한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19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식당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20 무리가 보고 여호와와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21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22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23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이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24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25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 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을 같이 하리니 26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 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27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28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29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리라

1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2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라 5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6 나 여호와와 의로 너를 붙렸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

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8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9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10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11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12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이다 13 여호와께서 용사 같이 나가시며 전사 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14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 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험덱일 것이라 15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썩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16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굵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17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18 너희 못 듣는 자들이 들으라 너희 맹인들이 밝히 보라 19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 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와 중 같이 맹인이겠느냐 20 내가 많은 것을 불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21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22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락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23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들겠느냐 24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25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44일 3월 22일(화)

이사야 43장 1-28절

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5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7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8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 내라 9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 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 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1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증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3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14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15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16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올,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17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18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22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23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 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24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25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26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27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28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 당하도록 내어 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45일 3월 23일(수)

이사야 44장 1-28절

1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2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 낸 너를 도와 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라 3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4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 5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6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7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이다 8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9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10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11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12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13 목공은 줄을 늘어 채고 붓으로 굵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14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15 이 나무는 사람이 땀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16 그 중의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17 그 나머지로는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18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19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것의 절반을 불 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20 그는 재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니 하지도 못하느니라 21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22 내가 네 허물을 뺨뺨한 구름 같이, 네 죄를 안개 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23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이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이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이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로다 24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25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짐 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26 그의 종의 말을 세워 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27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28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46일·3월 24일(목)

이사야 45장 1-25절

1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2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늦문을 쳐서 부수며 쇠뿔장을 꺾고 3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4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5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때를 동일 것이요 6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8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9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닮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10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11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12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13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라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값없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14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독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술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과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15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16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17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18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

른 이가 없느니라 19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와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20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이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21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니 다른 이가 없느니라 23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24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25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47일·3월 25일(금)

이사야 46장 1-13절

1 벨은 엷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2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엷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3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4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5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갈다 하겠느냐 6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 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엷드려 경배하며 7 그것을 들어 어깨에 매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8 너희 패역한 자들이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9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니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0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11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를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12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13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48일·3월 26일(토)

이사야 47장 1-15절

1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2 땃들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3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4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5 딸 갈대아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6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목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명예를 심히 무겁게 매우며 7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8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9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10**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 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11**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현연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12**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13**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다 하를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14** 보라 그들은 초개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15**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49일 3월 27일(주일)

이사야 48장 1-22절

1 야곱의 집이어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2**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3**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현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4**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놋이라 **5**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6**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7**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8**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9**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10**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였노라 **11** 나는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를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12**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13**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뿔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14**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15**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험통하리라 **16**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아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17**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18**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19**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20**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 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21**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22**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50일 3월 28일(월)

이사야 49장 1-26절

1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2**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3**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4**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5**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데도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6**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7**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8**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9**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었고 모든 햇빛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10**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구할지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11**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돌우리니 **12**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냇 땅에서 오리라 **13**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구할지 여기실 것임이라 **14**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구할지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17**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18**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19**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20**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21** 그 때에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22**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못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23**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24**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25**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26**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할 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51일 3월 29일(화)

이사야 50장 1-11절

1 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머니를 내보낸 이혼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머니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2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견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3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베로 덮느니라 4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5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6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뱀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실됨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8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름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9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10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11 보라 불을 피우고 햇불을 둘러 띤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햇불 가운데로 걸어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52일·3월 30일(수)

이사야 51장 1-23절

1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2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3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와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4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5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6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 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 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7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8 옷 같이 종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 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9 여호와와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저미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10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받은 자들을 건네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11 여호와께 구속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12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 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13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14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15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16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들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17 여호와와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림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18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19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다했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라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같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라 20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 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와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21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22 네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23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53일·3월 31일(목)

이사야 52장 1-15절

1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않을 것임이라 2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4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앗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5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6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7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8 네 파수꾼들의 소리보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보다 9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10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11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와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12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13 보라 내 종이 행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14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15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54일·4월 1일(금)

이사야 53장 1-12절

1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갈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 그가 곤욕을 당하

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9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10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라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전제물로 드리기에는 이르러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묶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55일·4월 2일(토)

이사야 54장 1-17절

1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퍼뜨리니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3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4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었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5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6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7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8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9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10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1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둘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12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13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14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 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15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16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 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17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56일·4월 3일(주일)

이사야 55장 1-13절

1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쁨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4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5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6 너희는 여호와와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9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10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썩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12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13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쥘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와의 기쁨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57일·4월 4일(월)

이사야 56장 1-12절

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2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3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4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5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는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6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8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9 들의 모든 짐승들이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이 와서 먹으라 10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고 다 무지하며 병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11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죽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12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58일·4월 5일(화)

이사야 57장 1-21절

1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2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3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 너희는 가까이 오라 4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5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6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똯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

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7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8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별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9 네가 기쁨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소들에게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10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11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12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13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 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14 그가 말하기를 돌우고 돌우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15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16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광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17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18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19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이다 평강이 있을지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20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21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59일·4월 6일(수)

이사야 58장 1-14일

1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 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2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3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5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베와 재를 퍼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풀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9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2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13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

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60일·4월 7일(목)

이사야 59장 1-21절

1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3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냄이라 4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5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밝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6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7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8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9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하므로 10 우리가 맹인 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 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11 우리가 곱 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12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13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14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없드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15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6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시라 17 공의를 값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겹옷으로 삼으시고 18 그들의 행위대로 값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복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19 서쪽에서 여호와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 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20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2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광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61일·4월 8일(금)

이사야 60장 1-22절

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3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4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5 그 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오리라 6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 계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웃의 숫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8 저 구름

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9 곧 섬들이 나를 양망하고 다시 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신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10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11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이라 12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13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네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14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와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15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16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못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17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18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19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20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21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22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와 속히 이루리라

62일·4월 9일(토)

이사야 61장 1-11절

1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2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4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5 외인은 서서 너희 양 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6 오직 너희는 여호와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7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8 무릇 나 여호와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9 그들의 자손을 못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10 내가 여호와와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겹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11 땅이 짝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63일·4월 10일(주일)

이사야 62장 1-12절

1 나는 시온의 의가 빛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빛 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2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3 너는 또 여호와와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4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헝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5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6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너희는 쉬지 말며 7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8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9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10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11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음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12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 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64일·4월 11일(월)

이사야 63장 1-19절

1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2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으냐 3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4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5 내가 본즉 도와 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6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7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8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9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10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11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나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나 12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13 그들을 깊은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나 14 여호와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 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15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가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16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17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

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18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19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65일·4월 12일(화)

이사야 64장 1-12절

1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2 불이 섰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3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4 주 외에는 자기를 양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5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하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6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7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8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9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10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11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12 여호와여 일이 이리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66일·4월 13일(수)

이사야 65장 1-25절

1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2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3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4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5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6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7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8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9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10 사론은 양 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 떼가 늙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11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갖에게 상을 베풀며 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12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13 이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주릴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14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우므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프므로 울며 심

령이 상하므로 통곡할 것이며 15 또 너희가 남겨 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16 이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있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라 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9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0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 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 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이리라 21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22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23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와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24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25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상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67일·4월 14일(목)

이사야 66장 1-24절

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3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4 나 또한 유흥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5 여호와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6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7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8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나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 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 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단겠느냐 하시니라 10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11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넘겨 뺀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1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 같이, 그에게 못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13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14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와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15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니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16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17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2) 자를 따라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8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못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19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룯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못 나라에 전파하리라 2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와 집에 드림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못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यो 21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 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22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23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아와 예배하리라 24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68일·4월 15일(금)

이사야 52장 13절-53장 12절

52장 13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14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15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यो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53장 1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9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10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전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यो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니 11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니 12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69일·4월 16일(토)

이사야 7장 10-14절, 9장 1-7절

7장 10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12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13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며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यो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9장 1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니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3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멘 멩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5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겹옷이 불에 쒀 같이 사라지리니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70일·4월 17일(주일)

이사야 61장 1-3절, 65장 17-25절

61장 1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2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65장 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9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0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 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 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이리라 21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22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23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와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24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25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 (1)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취라
- (2)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취라
- (3)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취라
- (4)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취라
- (후렴)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취라 / 죄로 어둔 밤 밝게 비취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사야서와 함께 하는 70일 새벽기도 첫날이다. 우리 고신교회가 70년이 되었다. 70주년을 기념하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선배들의 뜨거웠던 신앙을 기억하며, 그 선배들의 신앙 유산을 이어 받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벤트나 행사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란다. 선배들의 귀한 신앙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함께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이사야서론

1. 이름과 일생

이사야는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 왕 웃시야 제위 때(B.C. 740년경) 부름 받았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다(사 1:1, 6:1). 전승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죽은 후 그 아들 므낫세의 정책을 반대하다가 톱으로 잘려 순교했다(B.C. 680년).

2. 책의 구분

이사야서를 그 내용에 따라 간단히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1-39장 : 유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 *40-55장 :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과 위로를 예언
- *56-66장 :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의 선포.

어떤 신학자는 이 구분을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하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 이사야서 자체가 항상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거나 “이사야가 이르되”라고 말씀한다(사 1:1, 2:1, 6:1, 7:13, 13:1, 20:2-3, 38:4). 뿐만 아니라 흔히 제2이사야로 분류되는 40장은 신약성경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한” 것이라 표현된다(마 3:3, 막 1:2, 눅 3:4, 요 1:23). 특히 마태복음 4장 14-16절은 이사야 9장 1절과 60장 1-3절을 인용하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각기 다른 저자가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 한 사람에 의해 쓰였으며 일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

3. 기록목적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고소하는 언약 고소문이다. 범죄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선언된다. 동시에 그 고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중보자(메시아)가 오며, 그 중보자의 대속으로 유다민족 가운데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예언한다. 또한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구원이 메시아를 통해서 유다와 온 민족에게 선물로 주어지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 것을 말씀한다.

4. 시대적 배경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선지자로 사역했다. 이 시기에 북 이스라엘에서는 7명의 왕이 교체되고,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마침내 앗수르에게 멸망당한다(B.C. 722년경).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이방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선포하였다.

5. 내용

- 1-12장 : 유다의 심판 13-23 : 이방의 심판 예언 24-27 : 여호와와의 날
- 28-35 : 심판과 은총 36-39 : 히스기야의 통치 40-48 : 이스라엘의 구원
- 49-57 : 구원자 58-66 : 회복과 소망

*첫째 날 서로 인사와 결심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며 교제

{ 기도제목 }

- 1. 총회 임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미래를 준비하는 고신교회가 되도록
- 2. 70일이 행사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고신교회가 한국교회 회복의 씨앗이 되도록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 1장 1-31절

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 (1)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네 죄 주홍빛 같은 네 죄 /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 (2)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 (3) 너희 죄 사해주소서 기억 아니하시네 / 너희 죄 사해주소서 기억 아니하시네 /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소서 너희 죄 사해주소서 /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범죄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고 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만 남았다. 마당만 밟는다고 책망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역겨워하셨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고소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자.

1. 선지자의 외침(2)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은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을 때는 늘 증거품이나 증인이 등장한다(창 21:30, 31:44-49, 삼상 18:1-4).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물 중 가장 강력한 것은 ‘하늘과 땅’이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증거의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호출한다(신 31:19, 32:1).

선지자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함으로 언약의 증인을 부른다.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운다. 법정은 심판의 장소이다. 이제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를 고발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 곧 법정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한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자.

2. 백성들의 범죄를 고발하는 선지자(3-17)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배신하였다. 사랑이 클수록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더 깊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기만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은 짐승만도 못한 행위라고 질책하신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그래서 선지자는 지도자들을 “소돔의 관원들”이라 했고, 백성들을 “고모라의 백성아”라고 불렀다(10절).

짐승만도 못한 이스라엘의 배신의 행위는 무엇이었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실패였다. 형식은 갖춘 것 같으나 마음이 떠나버린 예배였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했다. 많은 제물을 드렸으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물이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11-12절)고 하셨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도 하셨다(13절).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를 거부하셨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형식만 있고 내용 없는 예배는 아닌가?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교회를 위한 기도보다 나의 성공과 유익을 위한 기도는 아닌가? 우리의 예배생활과 기도생활을 점검해 보자.

3.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선지자(18-31)

선지자는 하나님의 법정에 선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데 머물지 않았다. 이제 선지자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된다. 죄에서 돌이키면 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18절)고 약속하신다.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땅의 소산을 먹는 것은 언약의 복을 누림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배부름이다.

공홀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하리라 약속한다(26절). 직분자들의 회복을 약속하셨다.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을 받는다(27절).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들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약속하셨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 우리도 주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언약하여 실패하며 넘어질 때가 많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자.

【 기도제목 】

- 고려신학대학원이 복음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목사 후보생들을 양성하고 배출하도록
-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고,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나라

이사야 2장 1-22절

찬송가 501장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 (1)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 만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 (2) 죄 사슬에 얽매어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 이 형제들 다 건져 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 (3)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 (4) 네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네가 받으리 (후렴)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드러내신다. 이어 범죄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다. 그러나 새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심판은 오히려 돌이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1. 말일에 주어질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1-4)

말일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때이다. 여호와의 성전이 새롭게 건설되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온다. 이는 새 성전이 건설되는 때요, 이방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때이다. 예수님은 참 성전이시다(요 2:19-21). 바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행 2장). 이방인이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든다(행 10-11장). 전쟁이 아니라 추수하는 시대가 시작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 달라고 청하라 하셨다(마 9:38). 제자들은 추수할 일꾼들이다(마 10:2-15).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이제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추수하는 사명을 이어 받았다. 전쟁 대신 평화가, 죄악 대신 안식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교회다. 대단한 비전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아로새겨 지는 것이다. 세상 속에 있는 택한 백성을 불러 구원을 선물로 주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우리 고신교회가 이 회복에 앞장 서자.

2. 죄악을 지적하시는 하나님(5-9)

유다의 범죄는 명료하다. 동방의 풍속이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짐을 치고, 이방인과 언약을 맺었다.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런데 그 나라에 은금, 곧 보화가 가득하고 말이 많으며, 병거가 많다. 얼핏 보면, 유다 왕국이 대단히 부유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6절과 7절은 반대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모습이다. 곧 6절은 유다 왕국이 이방처럼 된 것을 말씀하며, 7절은 유다 왕국이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은금과 말과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신 17:14-17). 유다 왕국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다. 그래서 8-9절에서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하다고 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 세상 것이 교회를 강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부패하게 된다. 나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없는가? 세상의 것을 탐내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자.

3. 여호와의 날과 권면하시는 하나님(10-22)

유다의 죄를 낱알이 드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12절)이 임한다.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높은 산, 작은 언덕, 높은 땅대, 견고한 성벽, 다시스의 배와 아름다운 조각물. 이것들은 인간의 교만을 의미한다. 이 인간의 교만은 심판 될 것이다.

그 날에 금 우상과 은 우상은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진다.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셨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 버리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는 것이다(6절).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22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자.

예배에 실패한 유다. 이방인처럼 타락한 백성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소망을 말씀하신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복음의 빛으로 돌아서라 하신다. 말일에 이루어질 새 나라를 약속하신다. 교회는 바로 이 새 나라를 건설할 책무를 받았다. 이 일에 충성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고신교회가 되자.

{ 기도제목 }

1. 고려신학대학을 졸업한 주의 종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가도록
2. 우리 교회가 말일에 약속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더욱 풍성히 드러내도록

예루살렘의 심판

이사야 3장 1-26절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 (1)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 이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 (2)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 길과 진리요 생명 네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 왕
- (3)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 내주 예수를 보내신 참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따를 길
- (4)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후렴) 어둔 밤 지나고 동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지도자들의 타락과 민중들의 사치와 사회의 도덕적 질서가 무너진 결과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셨다. 우리가 손에 붙잡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1. 예루살렘이 의지하는 것(1-12)

예루살렘과 유다는 먹고 마시는 것, 용사와 전사, 재판관과 선지자, 복술자와 장로, 오십 부장과 귀인들, 모사와 장인과 요술자를 의지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도 있고,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것도 있다. 먹고, 마시는 것이나 나라의 직분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었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심지어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인 유다가 복술자와 요술자를 따랐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선물로 많이 받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우리의 즐거움이나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 심지어 교회 안에 복술이나 요술을 받아들이는 일은 우상숭배의 가증스러운 행위이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손을 벌려 하나님만 꼭 붙잡아야 한다.

유다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는 무자격자들을 세워 유다를 다

스리게 하신다. 소년들을 고관으로 삼고, 아이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한다. 올바른 직분자가 사라지니 나라 안에 학대와 잔해가 넘쳐나고, 교만과 질투가 독버섯처럼 피어난다.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이고, 여자들이 나라를 다스린다(12절). 교회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함을 기억하자.

2. 지도자들의 범죄(13-15)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악용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니 유다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13절). 특히 지도자들을 먼저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신다. 지도자들의 죄가 무엇인가? 약자를 보호하거나 도우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배를 채운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땀을 흘리느냐”(15절).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들의 범죄가 교회의 타락의 큰 원인이다. 우리 교회와 고신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떤가? 성도들은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오늘 새벽, 우리 교회와 고신교회의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기도하자.

3. 음행한 백성들(16-26)

지도자들이 타락하니 백성들은 얼마나 더 심각한 부패의 모습을 갖겠는가? 시온의 딸들은 음행하려고 자기 몸을 치장한다. 온갖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을 보라(18-23).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고, 하체가 드러나는 수치를 당하게 만드신다. 음행을 위해 치장한 모든 장신구들을 제거해 버린다. 그리하여 여자들은 썩은 냄새가 나고 대머리가 되며,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름다움을 대신한다. 결국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인가? 예루살렘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억하자. 특히 직분자들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도록 기도하자.

{ 기도제목 }

1. 기독 청년들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교회 건설의 사명을 품고 고려신학대학원에 지원하는 종들이 끊이지 않도록
2.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며, 직분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도록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1)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뵈오리 (2)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뵈을 때 /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3)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 저희들과 한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뵈오리 (4)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 금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후렴)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뵈오며 /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약성경에서 “그 날”은 주로 종말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 날에 기뻐하는 자들이 있겠고 그 날에 슬퍼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유다는 결국 멸망했고 심판 받았다. 그때 거룩한 남은 자는 회복되었지만 악한 자들은 모두 제거되었다. 이 심판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 날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의 잔치에 들어가고 준비치 못한 자들은 쫓겨났다.

1. 그 날에 : 심판의 날

여호와와 심판의 날이다. 3장과 연결하여 보면, 사치와 방탕으로 보낸 자들이 겪을 환난이다. 이들에게 그 날은 전쟁과 재앙의 날이며, 부패와 타락에 대한 보응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그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1절). 전쟁으로 남자들이 다 죽고 겨우 살아남은 자에게 여자들이 몰려와 자기와 결혼하자고 졸라댄다. 이유는 남편 없는 여인 혹은 자식 없는 여인이란 수치스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파멸을 당하여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불쌍한 모습이다. 진정한 회개는 없고 수치만 면하려는 가증스런 모습이다.

2. 그 날에 : 회복의 날

동일한 그 날이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파멸과 심판의 날이었지만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과 보상의 날이 된다. 환난과 시련 중에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남은 자들에게, 여호와와의 짝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여호와와의 짝”은 메시아의 도래를 말한다(사 11:1-5).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 땅의 소산”도 약속된다. 남은 자들에게는 하늘의 선물이 주어지며, 그로 인해 회복의 즐거움을 누린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 곧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남은 자들인 교회가 하늘의 신령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이들은 시련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말씀을 사모하며 지켜온 자들이다. 그 날에 하나님은 이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영광스런 승리를 주신다. 시련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시련 중에도 인내하며 남은 자로 세워져야 한다.

우리 고신교회의 뿌리가 무엇인가? 신사참배의 우상숭배를 끝까지 거부하며 기꺼이 감옥행을 택한 선조들이 세운 교회이다. 장로교 제27회 총회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의례라고 결정할 때, 우리 선조들은 그 일에 분명하게 반대를 선언했다. 해방 후, 일본의 앞잡이가 된 이들이 우리 선배들을 축출했다. 우리 고신교회에는 남은 자의 피가 흐른다. 이 전통을 이어 받아야 한다. 우리 교회가 남은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자.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 이루어질 영광과 회복의 날은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 “시온 산과 모든 집회”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교회를 의미한다. 광야 교회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신 것처럼, 메시아를 통해 새롭게 창조될 교회도 더위와 풍우를 피하게 된다. 이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간다. 교회는 인내함으로 이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것이다. 이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 어떠한 시련도 인내하며 참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웃시야, 요담, 아하스를 지나면서 깊은 타락의 늪에 빠진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은 회복의 영광을 맛보게 되었다. 곧 히스기야 시대에 일시적으로 영적 회복을 누렸다. 그러나 그 회복은 마중물이다. 진정한 회복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제 교회는 메시아를 모시고, 삼위 하나님과 함께 더위와 풍우를 피하며 나아간다. 이 은혜를 끝까지 누리는 교회가 되자.

{ 기도제목 }

1. 고신대학교가 새해에도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이 되어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겸비한 실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길러내는 복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도록
2.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이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 가운데 거하도록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 5장 1-30절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 (1)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 (2) 생명 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 (3)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서는 유다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 그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며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들 포도 열매를 맺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정을 슬픈 노래로 부르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였다. 5장은 시 형식이다.

1. 하나님의 포도원인 유다(1-7)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열매를 위해,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담을 두르고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 농부로서 최선을 다했고 모든 정성을 다 했다. 이제 좋은 열매만 기대했다. 그런데 들 포도의 열매를 맺었다. 들 포도의 뜻은 ‘악취를 풍김’이다. 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우리의 섬김과 비교할 수 없다.

포도원은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보답해야 한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곧 불신자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오히려 교회가 정의 대신 포학이, 공의 대신 부르짖음이 넘치는 공동체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2. 유다의 여섯 가지 화(8-25)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여섯 가지 징죄는 구약 교회의 타락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8,11,18,20,21,22절). 재산의 증식을 위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토지에 토지를 더하여 홀로 살아가는 자. 음주하며 연락을 좋아하는 자. 거만한 자와 권력을 남용하는 자.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교만한 자. 뇌물을 받아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부패한 관리들에 대하여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다의 여섯 가지 죄악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유다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곧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이다. 유다 왕국에서 땅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인 땅이 아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천국이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칼과 창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여리고 정복을 생각해보라. 유다의 여섯 가지 범죄는 마치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을 장사의 도구로 삼는 것과 같다. 모두 교회의 범죄이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세밀히 살펴보자. 범죄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는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자.

3. 하나님의 진노(26-30)

유다 왕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곧 이방국가의 공격이다. 이방의 공격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때 주어지는 언약의 저주 중 하나다(신 28:25,47-57). 이방 군대의 화살은 날카롭고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바람 같다(28절). 또한 적들이 사자처럼 표호하며 달려들어 움켜 가지만 구하여 낼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땅에는 흑암과 고난이 있고 어둠이 덮을 것이다. 실제로 유다는 앗수르의 공격을 받는다(B.C.701년).

교회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언약의 저주를 받는다. 언약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는데, 복과 저주이다. 우리 자신이나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자. 그리하여 언약의 저주가 아니라 복을 누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자.

하나님께서서는 크신 사랑으로 다가오셨지만 그 사랑을 잊어버린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살아야 한다.

{ 기도제목 }

1. 고신대학교의 코람데오 경건회와 경건모임(비기독교인 전도소그룹), 학생개별신앙상담 등 학내 신앙 활동을 통하여 복음이 힘 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영적 성장과 새 생명의 역사가 캠퍼스에 끊이지 않도록
2. 우리 교회와 고신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늘의 법정에서
이사야 6장 1-13절

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둔 자가

- (1) 익은 곡식 거둔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 밭으로
- (2)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 (3)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도다
- (후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 받았다(1절). 이 부름은 특별하다. 이사야의 부름은 유다 왕국이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일에 점점 실패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돌이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이다. 신실한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역사는 지속된다.

1. 하늘 법정의 모습(1-4)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왕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장엄한 광경이다. 온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덮였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성전에 가득했다는 뜻이다. 여섯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어, 날개 돌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돌로는 발을 가리며 찬양했다. 천사들의 창화하는 노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었다. 이 광경은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다. 문지방의 터가 움직이며 연기가 충만했다.

유다 왕국은 이 영광과 거룩을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을 받았다. 오늘날 교회도 그러하다. 물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는 이 복됨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이 영광과 거룩을 지금, 여기에서, 이방인들에게 보여줄 사명을 받았다. 이 사명에 충실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2. 하늘 법정에 선 선지자(5-8)

하늘의 모습을 땅 위에 아로새겨야 할 유다 왕국에 온갖 더럽고 추한 죄들이 가득했다. 거짓 예배와 우상숭배, 음행과 가증스러운 행위들, 탐욕과 질투, 직분자들과 지도자

들의 타락. 만약 이방이 이 유다 왕국을 보았다면, 그곳에서 결코 하나님도, 복음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하늘 법정에 선 선지자의 모습에서 반복된다. 이사야는 놀라운 광경 앞에 초라하고 죄 많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사야 5장에서 여섯 번이나 반복되던 “화”가 이사야 스스로도 고백했다(5절).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선지자를 정결케 하셨다. 천사가 핀 숯으로 그의 입술에 대며 정결케 되었다고 선언했다. 구약에서 부정한 자가 여호와를 보면 죽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정결케 하시고 살리셨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신실한 자들을 남겨 정결케 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과 용서하심의 은혜로 유지된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받는다. 마치 이사야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소명을 받듯이 말이다.

3. 사명자의 길(9-13)

하나님의 부름에 이사야는 응답했다. 그러나 그의 사역지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현장이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을 전파하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는 곳이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곧 지금의 교회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눈과 귀가 막혀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에게 보냄 받았다. 오감에 장애가 있다는 말씀은 전형적인 우상숭배자들의 모습에 대한 해설이다(시 115:4-8). 대부분의 백성들은 완악하여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은 심판 받는다. 곧 포로가 된다. 그러나 신실한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 두시는 심분의 일이 있다. 거룩한 씨요 거룩한 그루터기이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에도 그러했다(마 13:13-16, 롬 11:8, 행 28:25-28).

교회는 천상의 하늘을 땅 위에 아로새기는 사명을 받았다. 하늘 법정에서 죄 용서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처럼 교회도 죄 용서의 복음을 선언해야 한다. 또한 언약 백성인 교회가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히려 남은 그루터기의 자리에 서도록 기도하자.

{ 기도제목 }

- 1. 고신세계선교회 선교사들이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현지 지역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현지에서 500개 교회를 개척하여 더욱 영혼구원에 힘쓰도록
- 2. 우리 교회와 고신교회가 신실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속역사를 이어 가도록

Have가 아닌 Being

강동명 목사(김해중앙교회)

이 땅의 희망인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지난 2021년도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학업을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낸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한 명 한 명 찾아가 안아주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픈 마음이 정말로 크지만 짧은 글로 대신 청소년 여러분을 향한 목사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을 만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힘들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듣는 가장 아픈 말은 “힘들어 죽겠어요.”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친구들에게 왜 그런 말을 하니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는 돈이 없어 살기 힘들어요.” “성적이 안 나와서, 공부를 못해서 살기 힘들어요.”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없어서 살기 힘들어요.”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용돈만 많이 받으면, 성적만 잘 나오면, 얼짱만 되면 더 잘될 수 있다는 말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들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오징어 게임과 같은 드라마가 인기를 얻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물질만능주의가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들의 삶에 괴리감만 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헨타(?)를 가져오게 합니다. 영원히 만족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고 싶은 옷을 샀지만 또 다른 멋지고 예쁜 옷들이 나옵니다. 게임을 끝판까지 갔지만 또 더 어려운 난이도나 아이템이 등장합니다. 성적은 어떤가요? 1등을 하는 친구들은 1등 자리를 빼앗길까 봐 걱정을 하고, 또 2등, 3등, 10등을 하는 친구들은 한 등수라도 올리기 위해 애를 씹니다. 나하고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친구를 만났다

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와 더 잘 지내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좌절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조건이라는 굴레 속에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습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것만 쫓다가 평생 기쁨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의 청소년 시절을 우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 여러분의 절망과 우울함이 희망과 기쁨으로 바뀔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Have’가 아닙니다.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존재냐, ‘Being’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비록 공부는 조금 못할지라도, 비록 가진 것은 적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가지느냐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거기서 기쁨을 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자체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을 가집니다.

2022년 한해 ‘Have’보다는 ‘Being’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징조

이사야 7장 1-25절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 (1)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았네
- (2)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웃시야는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의 통치 시기는 솔로몬 사후 최고로 강성한 시기였다. 그러나 말년에 그는 교만하여 나병이 들어 별궁에 거했다. 아들 요담이 아버지를 대신했다. 그리고 아하스의 시대가 되었다. 웃시야 사후에 왕국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유다 왕국은 점점 내리막길을 걷는다. 아하스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우상 숭배자였다(왕하 16:3). 그는 친 앗수르 정책을 폈고, 다메섹에서 우상의 단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에 설치한 악한 왕이었다(왕하 16:10-20). 본문은 바로 그 시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1. 사랑의 회초리(1-9)

아하스는 바알을 섬기고 이방을 본받아 자녀를 불사르는 악행을 행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아람과 북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유다를 치셨다. 유다 군사 12만 명이 죽었고, 백성 20만 명이 포로가 되었다(대하 28:6-15). 유다 왕국은 겨우 예루살렘만 남겨진 상태였다. 다시 아람과 북 이스라엘은 유다를 침공하려 한다. 그 소식이 아하스 왕에게 전달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 아하스를 위로한다.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깥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심지어 육십 오년 내에 북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다(8절).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자녀가 잘못할 때 회초리를 드신다. 교회는 사랑의 회초리를 기꺼이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2. 피할 길(10-17)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믿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권한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이 보여 주실 징조조차도 거부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하스는 징조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셨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은 이사야 당대에 이루어지며,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 성취된다(마 1:21-25).

하나님의 왕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 받으면 그것은 회개해야 될 표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아람과 북 이스라엘을 막으실 것을 약속하셨다. 덧붙여 더 확실한 피할 길인 처녀의 잉태와 임마누엘을 말씀하셨다. 실로 여자의 후손은 죄의 구덩이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할 유일한 길이다. 교회도 동일하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희망이다.

3. 고집스런 백성(18-25)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 징조를 구하지도 않았다. 자신의 방법대로 강대국 앗수르의 도움을 받고 연합군을 물리쳤다. 그의 계획이 맞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앗수르는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을 멸한 후에 계속 유다를 침공했다. 아하스의 계획은 더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다.

앗수르의 침공을 본문은 “그날에”라고 말씀한다(18,20,21,23절). 애굽과 앗수르의 침공을 두고 파리와 벌이 온 땅에 앉는다고 했다. 유다 백성은 치욕을 당할 것인데, 머리가 깎이고 수염도 깎일 것이다. 땅이 황폐하게 되며 소와 양이 밟는다. 약속을 버린 이들은 반드시 심판 받는다. 교회가 징계를 받을 때에 인간적인 방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약속의 말씀만이 유일한 회복의 길이다.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 아하스 왕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강대국을 의지했다. 그러나 아하스가 의지한 앗수르가 유다를 더욱 타락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만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기도제목 }

- 1. 2030년까지 10년 내에 고신교회의 70%가 KPM과 함께 하는 선교에 동참하고 1만 명의 KPM 패밀리 멤버가 확보되도록
- 2. 교회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말씀이 알려주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마헬살랄하스바스

이사야 8장 1-22절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 (1)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 (2)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다운 동산에 /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 (3)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 (4)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 (5)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께서서는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전하기도 하지만 선지자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도 전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 주셨다.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에는 갑작스런 아내의 죽음이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해 주는 메시지가 되었다. 선지자의 삶은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1. 두 이름 : 마헬살랄하스바스와 임마누엘(1-8)

하나님은 이사야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첫째 아들 이름은 ‘스알야숲’이다. 곧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다. 심판 중에도 소망을 주셨다. 그런데 둘째의 이름은 ‘마헬살랄하스바스’이다. ‘신속히 탈취하고 서둘러 노략한다’는 뜻이다. 아이가 어른이 되기 전에 다메섹(아람)과 사마리아(북 이스라엘)가 앗수르에 의해 노략을 당할 것이다(4절).

아람과 북 이스라엘만 멸망할 것은 아니다. 이제 앗수르가 유다까지 공격한다. 7절에서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앗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라고 했다. 성경은 자주 이방세력을 “큰 하수”로 표현한다. 큰물이 유다 왕국까지 들어와 목까지 잠긴다(8절). 엄청난 위기이다. 유다 왕국 전체가 황폐하게 되며, 겨우 소수만 남는다. 그토록 앗수르를 의지했는데, 오히려 그 앗수르가 유다까지 공격한다. 교회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2. 두 왕국의 어리석음(9-15)

이제 선지자는 북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어리석음을 예언한다. 모든 민족들이 연합하여 함성을 지르고, 승리를 위해 허리를 동여매어도 끝내 패망 한다(9절). 함께 계획하고 의논해도 시행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의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군의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며 그분만 두려워해야 된다. 왜 그런가? 그분이 성소가 되시기 때문이다(14절). 여기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는 걸려 넘어진다. 군대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함정과 올무가 된다. 무엇 때문인가? 만군의 여호와를 성소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다른 신앙을 가졌다. 이는 이사야 6장에서부터 매우 직접적으로 예고되었다(사 6:9-12). 이제 언약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징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모습은 재현되었고, 결국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출현했다(롬 9:30-33). 하지만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교회가 아니다. 참 신앙을 가져야 진정한 교회다. 우리 교회는 참 신앙을 가진,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우리 고신교회가 이 시대에 남겨진 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3. 말씀으로 돌아가라(16-22)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이 여호와와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교훈하십니다(16절). 그러나 백성들은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의지한다. 스알야숲(남은 자가 돌아온다), 마헬살랄하스바스(급히 노략하고 서둘러 강탈하라)가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징조와 예표를 보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가면 안 된다. 백성들을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19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러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마저 저주한다(21절). 그들의 결국은 심한 흑암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갑자기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고 회개를 촉구하셨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힘을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려야 한다.

{ 기도제목 }

1. 예수 그리스도로 치료, 전도, 교육하는 복음병원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 뿐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가 되도록
2.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인 말씀만을 붙들고 그 길을 따르도록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 (1)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 (2)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 (3)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 맘 이루어 /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 (후렴) 기뻐하라 이스라엘 /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비록 배반하여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때가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복음의 빛을 거절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완악함이 대조를 이룬다.

1. 이방에 빛이 비치다(1-7)

스블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지방의 땅이다. 이들은 이방과 맞닿아 있어 이방 문물을 받아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이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의 메시지를 보내셨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들은 환경적으로 풍요로웠기에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었다. 갈릴리는 강우량이 많아 농사에 적합하였고, 갈릴리 호수로 인한 풍족한 어종으로 삶이 넉넉하였다. 하나님은 앗수르를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셨다.

스블론과 납달리는 북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한 이들을 “이방의 갈릴리”라 부른다. 교회가 이방 세상처럼 변질되었다는 뜻이다. 바로 그곳에 빛이 비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빛은 다름 아닌 메시아이시다.

신비로운 한 아기가 이방처럼 변한 갈릴리를 회복시키신다. 그 한 아기는 예언된 임마누엘이셨다.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불린다. 사도 바울이 그를 일컬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표현한 바로 그 분이시다. 그분은 기묘한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시다. 그 분은 창조주이시며 영존하시

는 아버지였다. 메시아의 선재성을 보여 준다.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 태초에 계신 말씀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요 1:1-4).

그분이 이방처럼 타락한 갈릴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실 것이다. 이는 누구의 요구나 강요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셨다.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신다. 교회의 대적은 이방 국가가 아니다. 죄 곧 사단이다.

2. 그 빛을 거절하는 자들(8-21)

한 아기로 오시는 메시아, 곧 구원의 빛이 약속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완악하고 교만하다.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뽕나무가 썩히면 백향목으로 대신한다고 말한다. 그 교만을 별하기 위해 아람과 블레셋을 막대기로 사용했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12-13절). 더 심한 징계가 주어진다. 머리와 꼬리를 끊는다. 곧 장로와 존귀한 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제거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타락은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한다(16절). 그리하여 백성들은 악을 행하고 망령된 말을 한다.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된다. 장정들은 기뻐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신다. 네 번이나 “그렇지라도 여호와와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반복된다(9:12,17,21, 10:4). 결국 여호와와 진노로 땅이 불타며, 서로 전쟁한다. 북 이스라엘에 임한 여호와와 진노가 종국에는 유다에까지 미친다.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21절). 구원의 빛을 거절하는 완악한 교회의 모습을 본다.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우며 괴로운 장면이다. 징계를 징계로 깨닫지 못하는 교회의 완악함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방처럼 타락한 교회를 향하여 빛을 비추시고,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룬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기억하자. 그러나 완악한 교회의 모습도 기억하자. 나와 우리 교회는 이런 완악함에 이르지 않도록 기도하자.

{ 기도제목 }

- 1. 복음병원 전 교직원들이 직장인 선교사로 헌신을 다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한 시대의 소명자가 되도록
- 2. 교만과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는 나와 우리 교회, 고신교회가 되도록

앗수르의 심판을 예언함

이사야 10장 1-34절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1)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됩니다 (2)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3)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 주 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4)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 사나운 풍랑 일 때 날 지켜주시니 /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유다 왕국은 아람과 북 이스라엘 그리고 블레셋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앗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다. 도움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 앗수르가 북 이스라엘을 정복했다. 앗수르의 북 이스라엘 정복은 유다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앗수르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여호와와 막대기였다. 하지만 그 막대기도 교만하자 즉시 제거하신다. 심판 중에도 신실한 백성은 남는다.

1. 북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1-4)

9장 8절 이하에서 완악하고 교만한 이스라엘이 징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여호와와 빛을 거절한 대가이다. 북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본문 4절까지 이어진다. 북 이스라엘은 판결을 굽게 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잊어버린 나라가 되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약육강식의 현상이 되었다. “그렇지라도 여호와와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버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2. 앗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5-19)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해 강대국 앗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5절). 그런데 앗수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줄 알지 못했다. 앗수르는 자신의 힘을 이스라엘에 과도하게 사용했다. 자신의 강함으로 많은 나라들을 파괴하고 멸절하였으며, 자신의 신들을 이긴 나

라가 없었다고 교만하였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고 하며 스스로 높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커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고 하셨다. 도끼나 톱은 도구이지 부리는 주인이 아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꽃이 하루 사이에 삼림을 사를 것이다. 그리하여 아이라도 나무 숫자를 셀 수 있을 만큼 황량하게 될 것이다.

앗수르의 멸망은 유다가 의지한 것을 제거하겠다는 뜻이다. 곧 교회가 하나님 대신 앗수르를 의지하자 그 나라를 제거해 버리신다는 말씀이다. 세상의 군왕들이 아무리 강해보여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서 힘 있고, 좋아 보이며, 의지할 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교회는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아야 한다.

3. 신실한 백성을 남겨두시는 하나님(20-34)

28-32절은 앗수르의 공격 방향을 알려준다. 북쪽 ‘아얏’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 가까운 ‘놉’까지 이른다. 곧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 유다도 집어삼키려고 다가오는 모습이다. 이러한 때에 신실한 백성들은 남겨진다. 하나님께서 남겨 두신다.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한 자”(20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21절), “남은 자”(22절)라고 반복해서 말씀한다.

그러면서 신실한 백성들에게 앗수르가 폭풍처럼 달려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24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분을 그치고 앗수르를 멸하기 때문이다(25절). 앗수르는 오렐 바위에서 죽은 미디안 장수들처럼,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서 진멸된 것처럼 멸망한다(26절).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고, 뺨뺨한 숲 레바논이 베임을 당한다(겔 31:3).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인가!

범죄한 교회를 정결케 하려고 하나님은 자주 이방의 강대국을 막대기로 사용하신다. 교회는 한낱 도구에 불과한 이방 국가를 의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신실한 남은 백성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 기도제목 }

- 총회교육원이 2024년까지 개발하고 있는 제6차 교육과정 ‘킹덤 스토리’를 통해 총회 모든 교회, 전 세대,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믿음이 성숙하고 부흥케 되도록
- 나와 우리 교회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새로운 다윗이신 메시아의 통치

이사야 11장 1-16절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 (1)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 (2)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 (3)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 주 하나님 은혜로써 이 평화 누리도다
 - (4)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 (후렴)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한 짝은 예수님이시다. 한 짝이신 예수님께서로부터 메시아 왕국이 자라난다. 이 왕국에서는 정직과 공의가 실현된다. 죄인들이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며 참된 평화와 하나 됨이 이루어진다. 이 왕국은 바로 교회이다.

1. 새 다윗이 세우시는 왕국(1-5)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짝”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을 가리킨다. 예수님께서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위에 성육하셨다(마 1:1).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다(마 3:16-17). 이 나라는 정직과 공의의 나라이다. 예수님께서서 사단을 무찌르시고 죄악을 제거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도 교회를 동일하게 통치하신다. 그런데 정녕 교회 안에 정직과 공의가 실현되는가? 혹 교회 안에서 수치스러운 죄악이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새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을 기억하자. 예수님께서서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의 뜻대로 통치되어야 옳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충성하자.

2. 차별 없이 하나 되는 왕국(6-10)

이새의 뿌리에서 짝이 나는 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10절).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늙는다(6절). 독사에게는 더 이상 권능이 없다(8절). 죄는 더 이상 하나님과 백성들을 가로막지 못한다(엡 2:1-10). 유대인과 이방인 사

이의 막힌 담도 허물어진다(엡 2:11-19). 메시아 왕국에는 참 평화와 연합이 자리 잡는다. 예수님께서서는 언약 백성과 이방인 모두를 한 몸으로 부르신다.

그러니 교회에는 더 이상 어떤 차별도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이다. 인종도, 성별도, 직업도, 학벌도, 고향도 무관하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새 왕국의 백성들이다. 교회는 차별 없는 참 평화의 공동체이다. 하나님과의 연합과 성도들 사이의 화평과 연합을 이루자. 못된 차별이 메시와 왕국의 화평과 연합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경계하자. 그 분 자신과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기꺼이 함께 동참하자.

3. 남은 자들이 회복되는 왕국(11-16)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메시아 왕국으로 불러 모으신다(11-12절). 흩어진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징계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자리에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마 1:21).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낸 것처럼,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기꺼이 그들을 구출해 내신다(16절).

그러니 이 왕국은 은혜와 죄 용서의 왕국이다. 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 왕국 백성으로 새롭게 다시 선다. 오늘날 교회인 우리도 동일한 은혜와 죄 용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한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다. 메시아 왕국인 교회 안에는 죄 용서의 은혜가 언제나 가득하다. 우리가 범죄 할 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징계 받을 때, 돌이켜 예수님께 용서를 부르짖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신다. 나의 죄를 용서 받고, 죄 지은 형제들을 용서하자.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통치에 함께 동참하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지금도 통치하신다. 이 왕국은 교회이다. 교회의 통치 원리는 분명하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차별 없는 교회. 신실한 남은 자들이 세우는 교회이다.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 이 원리는 완성된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자.

{ 기도제목 }

- 1. 총회교육원이 말씀 묵상, 총회 대학, 교재 개발, 교육 정책 수립, 출판, 세미나 사역을 잘 감당하며, 이사진, 원장, 연구원, 직원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넉넉히 잘 감당하도록.
- 2. 우리 교회와 교신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가 되도록

감사하고 찬양하는 교회

이사야 12장 1-6절

찬송가 411장 아 내 맘속에

- (1) 아 내 맘 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2)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3)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뵈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후렴) 주가 항상 계셔 내 맘 속에 /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메시아 왕국이 실현되는 그 날에 교회는 큰 구원을 즐기며 누린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회복되는 은혜에 감사한다. 교회는 구원의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만방에 구원을 선포해야 한다.

1. 구원에 감사하라(1)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되 회복의 길도 여신다. 이스라엘은 배교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거부했다. 결국 이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배교한 백성들과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셨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심판하실 때 그루터기를 항상 남기신다.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참 백성들은 진노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그치시고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며 일으켜 세우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다. 이 사랑에서 구원이 샘솟는다. 회복된 교회는 이 사랑에 겨워 구원에 감사한다. 친 자녀를 꾸짖으시되 일으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 이 사랑을 깨달아 풍성히 누리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2. 구원을 찬양하라(2-3)

“그 날”은 이세의 줄기에서 한 짝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날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풀려나고,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모여 회복을 경험하는 날이다. 이 날은 이미 왔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다. 이 구원에 사로잡히는 교회에는 기쁨이 넘쳐흐른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다.

찬양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다. 죄로부터 구원 받은 교회는 ‘죄와의 싸움’을 통해 구원을 찬양한다. 십계명은 감사의 법이요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다. 우리의 힘이신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만 하고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힘도 함께 주신다. 크고 작은 회복의 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기뻐하며 노래하자. 나아가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즐기며 말씀에 순종하자. 이것이 우리가 높여 드릴 구원의 찬양이다.

3. 구원을 선포하라(4-6)

“그 날”에는 열방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이 메시아 왕국 시대의 표이다. 만민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도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 그 방법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 교회가 받은 구원을 만민 중에 선포하는 것이다. 교회가 누리는 기쁨을 온 땅으로 알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라 말씀하신다. 우리는 불품없고 하찮은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고 알게 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감사하다면, 그 구원에 대한 찬양이 넘친다면, 우리는 가서 전할 수밖에 없다. 언제 어디서든지 소리 높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함께 구원을 즐기며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진노 중이라도 공화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진노 후에는 우리를 안위하여 주신다. 그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구원의 은혜를 온 열방에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열방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신다. 오늘 새벽 전도할 이의 이름을 정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만나 복음을 전하자.

{ 기도제목 }

1. 학교법인 이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산하 기관들의 장 선출 시 충성된 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맡은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시도록
2. 우리의 감사가 입술과 삶에서 나타나며 이웃과 사회에 구원을 선포하는데 이르도록

바벨론에 대한 경고

이사야 13장 1-22절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 (1)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 (2) 주님의 권능은 한 없이 크오니 /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 (3)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 주 예수 힘 주사 굳세게 하소서
- (4)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 (후렴)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아멘

13-23장은 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다음 세 가지를 배워야 한다. 먼저, 언약 백성들은 이방 국가들을 의지 하지 말라는 뜻이다. 둘째, 이방 국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려준다. 셋째, 언약 백성들은 이방 국가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 복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1.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1)

이사야 시대에 바벨론은 신흥 국가였다. 북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멸망당했고, 유다 또한 큰 환난을 겪고 간신히 구원을 얻었다. 앗수르라는 큰 위협 앞에서 그 신실한 히스기야 왕도 바벨론과의 협력을 꿈꾸었다(왕하 20:12-1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의 협력을 소망하는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이 유다를 포로로 삼을 것을 말씀하신다(왕하 20:16-18). 심지어 바벨론의 멸망도 예고하신다. 세상은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오늘날의 교회도 종종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의 방법으로 회복되고 부흥하지 않는다. 세상의 방식은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세상과의 연합은 도리어 더 큰 위기만을 불러온다. 혹 잘못된 방법 때문에 교회가 더욱 깊은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기도하자.

2. 죄인들이 죄인들을 심판한다(2-5, 17-22)

하나님께서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용사들을 일으키신다(3절). 곧 이방 왕국인 메대 사람들이다. 메대는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로 사용된다(5, 17-18절). 메대 사람들은 의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통해 바벨론이라는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여기서 유다는 깨달아야 한다. 이방 죄인 앗수르가 어찌 그토록 유다를 곤경에 몰아넣는가? 유다가 범죄 했기 때문이다. 메대 사람을 용사로 사용하실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용사로 사용하여 유다를 징계하고 계신다. 유다가 죄인들에 의하여 징계 받는 처지에 이르렀다.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옳되 회개하는 것이다. 죄악이 언약의 저주를 불러온다. 물론 핍박과 환난이 우리의 죄악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나 자주 우리 죄악 때문에 위기에 처한다. 그때, 교회는 자신을 먼저 살피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청원해야 한다. 사람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해답이 아니다. 도리어 더 깊은 죄악과 더 큰 심판을 마주하게 될 뿐이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힘을 잃어간다.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며, 분명한 신앙고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혹 우리의 죄악 때문은 아닌지 돌이켜 살피고 회개하자. 회개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공활이 여기시고 용서하신다.

3.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하나님(6-16)

선지자는 해와 별이 빛을 잃는 모습을 통해 바벨론 멸망을 묘사한다(10-11, 13절). 앗수르가 건재하고, 바벨론은 아직 미미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멸망을 예고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확신한다.

성경은 매우 독특하게 바벨론 멸망을 말씀한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돌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10절). 해, 달, 별의 징조는 한 국가의 멸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용어로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셨다(마 24:29). 바벨론 멸망은 유다 왕국에 강력한 메시지이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무너뜨리겠다는 암시이다. 교회는 이 경고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자.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대상이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분과 맺은 언약에 충실한 나와 우리 교회가 되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다.

{ 기도제목 }

1. 학교법인과 산하 고신대학교와 신학대학원과 복음병원을 붙잡아 주심으로 맡은 소명 잘 감당하여 주님 뜻 이루도록
2.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살피는 지혜로운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세렌디피티(serendipity)를 아십니까?

강영구 목사(마산동광교회)

영어단어인 세렌디피티(serendipity)는 사전에 보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콜럼부스가 대규모 항해단을 이끌고 대서양을 건넌 것은 인도로 가는 신행로를 개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보니 뭔가 큰 대륙이 나타났는데 그게 아메리카 신대륙이었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 신대륙의 발견은 세계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위대하고도 역사적인 발견이었고 콜럼부스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세렌디피티입니다.

또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는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수십억의 생명을 살린 위대한 치료제입니다. 지금도 페니실린이 없으면 조그만 병에도 죽어나는 사람들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박사는 원래 실험을 하다가 실수로 세균접시 뚜껑을 열어놓은 채로 휴가를 가 버렸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세균접시에 푸른곰팡이가 잔뜩 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푸른곰팡이가 핀 자리에는 세균이 깨끗하게 죽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아, 푸른곰팡이에서 나오는 물질이 세균을 죽이는구나!’해서 개발한 것이 페니실린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세렌디피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보면 이런 세렌디피티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둘, 셋, 열개를 주십니다.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을 했어도 그것이 생각지도 못했던 선이 되고 유익이 되게 만드십니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당한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광야 마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생각이상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여인이라고 알고 있는 한나는 사실 아들 없는 서러움 때문에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무엘을 통해서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국시대를 여시는 새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드린 기도가 시대를 바꾸는 일에 쓰임 받을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드린 작고 사소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21절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총회설립 70주년을 맞이해서 70일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다보면 기도의 응답뿐 아니라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세렌디피티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보다 뛰어난 권세

이사야 14장 1-32절

찬송가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 (1)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 (2)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 (3)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 저 천성 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 (4)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 (5)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 내 맘과 뜻 다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가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온 열방을 통치하신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그러나 그 바벨론도 교만함으로 인해 멸망당한다. 앗수르와 블레셋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러니 교회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는가?

1.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1-2)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함께 노래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다(1절). 회복은 포로생활을 전제한다. 그렇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다(2절). 그러나 심판의 때가 끝나면 바벨론은 도리어 이스라엘의 권위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며 교회를 징계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각별하게 바라보신다. 그리고 그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와 함께 하신다. 어떤 큰 권세도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못한다.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세상을 의지할 이유도 없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2.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3-23)

하나님의 도구였던 바벨론은 스스로를 높이며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린다(12-14절). 바벨론은 누구보다 큰 권세를 누릴 것이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이다(4,6,17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벨론의 권세를 모두 빼앗고 그를 무너뜨리신다(5,8-11,15절). 열방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크게 놀라게 하실 것이다(16절).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의 도구다워야 한다.

이후에, 참된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를 꺾으신다(계 22:16, 참고. 12절). 나아가 오늘도 교만한 자들을 무너뜨리신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면, 교회의 대적들이 모두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섬기기를 포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정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만 거하자. 우리 스스로를 높이며 그분의 권세를 대적하지 말자. 참된 권세를 지닌 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3.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24-32)

하나님께서 참된 열방의 통치자이시다(26절). 그분의 계획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27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경영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24절). 앗수르와 블레셋도 예외일 수 없다. 앗수르와 블레셋도 심판하신다. 앗수르는 이사야 당대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앗수르는 정녕 짓밟힐 것이다(25절). 블레셋은 이를 보며 잠시 기뻐한다. 그러나 조만간 블레셋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29-31절).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나라들을 주관하며 역사를 경영하시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증하신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통치자이시다. 그 분께서는 이 권세를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신다.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분의 경영을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성도들은 세상을 개혁할 힘을 얻는다. 하나님 편에 서자.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에 함께 동참하자.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또한 교회를 징계하거나 교회를 회복하신다. 열방은 교회에 때문에 존재한다. 핵심은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그 분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겠는가? 아니면 그분의 권세를 대적하여 세상과 함께 심판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 기도제목 }

1. 총회유지재단 이사들(이사장 강학근 목사)과 직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재단과 재단에 편입된 교회의 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2. 교회를 위하여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를 깨닫고 의지하도록

모압에 관한 경고

이사야 15장 1-9절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 (1)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 주 말씀 의지 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2) 참 구원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 눈 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3)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4) 온 성도 하나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 한 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후렴)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모압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 받는다. 그러나 모압에 대한 경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이자 오늘날 교회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 우리가 모압과 똑같은 죄인이라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모압을 향한 심판의 경고에서 이 소망을 발견하자.

1. 경고 받는 죄인들(1)

하나님께서서는 모압의 멸망을 예고하시고,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언약 백성들에게 선포한다. “알”과 “기르”는 모압의 대도시이면서 동시에 모압의 모든 성읍들과 성벽들을 의미한다. 심판은 모압 전체를 뒤흔든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룻밤 만에 황폐하게 될 것이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 유다 백성들은 모압에게 주신 경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죄악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반드시 파멸시킨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자.

2. 우상을 의지하는 죄인들(2-4)

심판의 날에 모압인들은 “바잇”(집, 신전)과 “디본” 산당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우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압인들의 통곡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2-3절). 우상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힘이 없다. 오히려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유다 왕국은 어떠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상보다 크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그 우상을 의지하는 죄인들을 정녕 심판하신다(출 12:12). 심판의 날에 죄인들이 우상을 의지해도 통곡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오늘 나는 어떤가? 세상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섬기는 그것을 나도 의지하지는 않는가?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지는 않는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것에서 성도는 떠나야 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에게로 돌아가자. 누구에게도 늦은 때는 없다. 지금이 회개의 때요, 돌아갈 때이다.

3.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5-9)

심판의 날에 모압인들은 피난길에 오를 것이다(5절). 울면서 도망치는 것 외에 모압인들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도망마저도 결국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온 모압 땅은 정녕 황폐해 질 것이다(6절). 남은 재물을 들고 가서 숨기려하나 마땅한 도시를 찾지 못하고 숲속의 시내를 건너며 방향할 뿐이다(7절). 왜냐하면 모압 땅 전역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과 심판이 가득하기 때문이다(8-9절).

죄인들은 심판을 당하는 와중에도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기에 바쁘다. 우리 각자에게 아무리 집중해도 그곳에는 소망이 없다. 죄인인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소망과 해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소용없는 발버둥을 멈추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망이 아닌 생명이 있다.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심판의 경고 앞에서 자신을 의지하는 죄악을 멈추자. 심판의 경고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도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복음으로 심판이 아닌 생명의 자리에서 죄악마저도 이겨내는 성도와 교회가 되자.

죄인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 비록 똑같은 죄인일지라도 교회는 세상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교회와 성도는 자신과 우상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이다.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함없는 소망이시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죄악에서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 기도제목 }

1. 총회 산하의 더 많은 교회가 재단에 편입되어, 교회의 재산이 안정적으로 잘 보존되도록
2. 나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좇고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시온, 세상의 피난처!

이사야 16장 1-14절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 (1)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네 맘 속에 주 영접하며 /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네 구주를 영접하라
 - (2)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네 맘 속에 주 영접하며 /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네 구주를 영접하라
 - (3)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네 맘 속에 주 영접하며 / 네 맘에 평안을 원하거든 네 구주를 영접하라
 - (4)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네 맘 속에 주 영접하며 /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네 구주를 영접하라
- (후렴)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 맘 문다 열어 놓고 네 구주를 영접하라

하나님께서서는 모압 족속이 망하지 않고 살 길을 제시해 주셨다. 다윗의 왕권을 상징하는 시온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했다. 결국 교만한 모압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유다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이다. 모압의 피난처가 되어야 할 유다 왕국이 오히려 세상을 피난처로 삼으려는 어리석음을 폭로하기 때문이다.

1. 모압 족속을 향한 권고(1-5)

1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모압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유다를 피난처로 삼아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그 내용이다. 시온 곧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자기 백성을 만나는 구원의 방주이다. 모압도 구원에 참여할 길이 있다. 이것은 느긋한 초대장이 아니라 분초를 다투는 권고이다. 모압이 압박한 위협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2절). 3절의 “너”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모압의 피난처가 되라는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다. 4절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간다. 그 의미를 살려 4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다. ‘나의 쫓겨난 자들, 모압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는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다윗의 장막은 여호와와 뜻을 따라 정의와 공의로 판결하며 시행하는 곳이다. 시온은 참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방이 보고 나아올 빛이어야 한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모압을 향한 권고이다. 세상의 피난처는 교회와 하나님뿐이다. 동시에 시온을 향한 권고이기도 하다. 교회는 세상의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말이다. 교회는 느긋한 자세로 임할 수 없다. 이것은 분

초를 다투는 사명이다.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오히려 세상을 피난처로 여기지 않는가? 그곳에서 위로를 얻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는가? 우리는 세상의 참된 피난처가 되도록 부름 받았다. 복음이 참된 위로요 유일한 의미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한 분만을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 그러할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을 향해 공과 의를 행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2. 권고를 거절한 모압 족속(6-14)

모압은 하나님의 권고를 거절했다. 이들은 교만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이 아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했다. 그 결과는 처참했다. 모압의 온 땅은 황무지가 되었다. 희락과 기쁨은 사라졌다. 자기 신들을 좇아 기도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소용이 없었다. 여호와께서는 오래 인내하셨다(13절). 이제 이 심판이 집행되기까지 3년 밖에 남지 않았다. 이 말씀을 거절한 모압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모압이 이럴진대 하물며 유다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 더욱 오래 인내하지 않으셨던가? 모압은 생명의 말씀을 거절한 죄인의 비참함을 보여준다. 유다도 예외는 아니다. 더욱 오래 인내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더욱 매섭게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을 거절하며 쇠락의 길로 접어든 모압을 보면서 유다는 깨달아야 했다. 모압을 향한 경고가 사실은 자신들을 향한 경고라는 사실을 말이다.

불신자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악을 더욱 엄히 책망하신다. 더욱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매주의 공예배와 직분의 섬김을 통하여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지 않는가? 이것을 멸시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더욱 매섭게 심판하시는 것이 지당하지 않은가?

복음에만 붙들릴 때 우리는 세상에 참된 피난처를 제시할 수 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교회의 사명은 그곳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 세상을 피난처로 여기고 살아가는 안 된다. 은혜의 부름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나와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자. 우리 교회로 세상의 피난처가 되게 하자.

{ 기도제목 }

- 1.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으로 은급자산이 손조롭게 증식되도록
- 2. 복음에 온전히 매인 삶을 통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가도록

아람, 에브라임, 유다, 열방들에 대한 경고

이사야 17장 1-14절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걸음씩

- (1) 주께로 한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2) 주께로 한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 주께서 너를 맞아네 죄를 사하리
 (3) 주께로 한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 기회를 잃지 말고 네 마음 정하라
 (4) 주께로 한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후렴) 한걸음씩 한걸음씩 주께 나오라 /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말아라

이사야는 아람과 열방,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이들과 하나 된 북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심판 속에서도 약속만을 붙드는 남은 자들은 보존된다.

1. 아람과 북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1-3)

다메섹은 아람을 대표하는 성읍이다. 아람과 북 이스라엘은 연합하여 유다를 괴롭혔다(왕하 16:5-6, 대하 28:5-7, 사 7:1-2).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하신다. 그런데 아람은 언약의 외인이었지만 북 이스라엘은 언약백성이었다. 세상과 하나 된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에 적극적으로 대항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삼하 7:1-17). 다윗의 후손과 그의 나라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북 이스라엘은 아람과 손을 잡고 유다를 공격함으로 이 언약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하나 되어 약속을 떠난 자들을 심판하신다.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종종 세상과 연합하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언약함에서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로막는 것이다. 우리 개인의 범죄가 구속사의 진전을 막는 장애물이 됨을 기억하자.

2. 유다에 대한 경고와 남은 자들을 향한 위로(4-11)

북 이스라엘만이 세상과 연합한 것이 아니었다. 북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다는 앗수르와 손을 잡았다(왕하 16:7-9). 이들을 몰아내는 것까지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앗수르는 영원한 우방이 아니었다. 오히려 유다를 공격했다(대하 28:16-21). 유다는 다시 살 길을 찾아보겠다고 다메섹의 신들을 숭배하였다(대하 28:22-25).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도 돌이킬 줄 몰랐다. 죄악에 죄악을 더했다.

참으로 언약 백성들의 영광이 쇠하여 파리해진 소와 같게 되었다(4절). 구원의 하나님을 잊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심판이 선언되었다(9-11절). 교회가 살 길을 찾겠다고 세상과 타협할 때 맞이할 비참함을 보여준다.

한편 매서운 징계 아래서도 남은 자들은 보존된다(6절). 이들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그 믿음을 지킨 신실한 자들이다(7-8절). 교회가 받는 징계는 신실한 자들에게 고난임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구원이기도 하다.

우리는 교회가 세상과 닮아갈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약속만을 의지하여 교회의 범죄를 우리의 것으로 여기고 회개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이것을 방종의 기회로 삼아 세속적 욕망과 더욱 하나 되는 죄를 범하고 있는가?

3. 열방에 대한 경고와 남은 자들의 구원(12-14)

이사야는 교회를 정리한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아람과 앗수르가 소동하였다. 큰 홍수처럼 열방이 열방을, 열방이 이스라엘을 휩쓸었다. 밀려드는 큰물에도 남은 자를 향한 구원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다.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남은 자들은 부지불식간에 약속의 실현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참고. 왕하 18:13-19:37, 사 36:1-37:38).

약속을 붙드는 교회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선포를 새겨들자. 우리의 시대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밝게 빛나고 굳게 서 있음을 바라보고 확신하자.

우리 각자가 세상에 휩쓸릴 때 교회도 세속화된다. 교회의 세속화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하다.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자기의 참 교회를 보존하심을 기억하자.

{ 기도제목 }

1. 은급재단이 시대적인 변화와 요구에 잘 대응하여 장기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2. 말씀(약속)에서 떠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이사야 18장 1-7절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 (1)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 (2)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 주 형상대로 빙긋사 날 받아주소서
- (3)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 (4)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 (후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유다는 구스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앗수르에 대항하려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 심판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 일로 인해 구스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신 시온으로 예물을 들고 찾아올 것이다.

1. 구스와 소통하는 유다(1-2)

구스는 애굽과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다.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구스가 애굽을 지배하던 때도 있었다. 따라서 애굽에 대한 경고를 다루기 직전에 구스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다.

구스는 여러 나라들과 더불어 앗수르의 침략에 대응하고자 했다(왕하 19:9). 동맹을 형성하고자 했던 나라 중에 유다도 포함된다(참고. 왕하 18:21). 갈대 배를 타고 수로를 오가는 사자들은 구스와 유다의 이러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 팽창하는 앗수르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구스와 유다가 긴밀히 소통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형국이다. 그러나 오히려 유다가 정말 긴밀히 소통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여호와께서 유다의 회복을 위해 보내신 사자인 선지자들이지 않은가?

우리도 마찬가지다. 난국을 타개하겠다고 세상의 지혜와 소통하려 해서 안 된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충분히 계시하신 성경이 있지 않은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하며, 말씀으로 위로할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는가?

2. 심판을 집행하시는 여호와(3-6)

유다가 구스와 더불어 소통하느라 분주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가 볼 수 있도록 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세상의 모든 거민이 산들 위에 세워진 깃발을 보게 될 것이다. 앗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의 성읍들을 정복할 것에 대한 예언이다. 앗수르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유다의 발버둥은 허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이런 모습을 하늘의 처소에서 감찰하고 계셨다(시 11:4). 너무나 조용하여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실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 그분의 판단은 모든 것을 낱알이 비추며, 모든 것을 사르는 뜨거운 햇빛과도 같다(말 4:1). 심판의 구름과도 같다(겔 30:3).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이다(사 5:1-7). 하나님께서 끝내 유다를 향한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다.

심판의 결과, 유다는 독수리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된다. 독수리는 종종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인 이방 민족을 가리킨다(신 28:49). 들짐승도 마찬가지다(레 26:22). 언약의 저주 아래 놓인 유다의 모습을 한 장의 사진처럼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와 허물 아래 있는 우리와 교회를 감찰하신다. 잠잠한 듯 보여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판단하고 계신다. 그분의 심판은 결코 무위로 돌아가지 않는다. 불꽃같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3. 구속사를 진전시키시는 여호와(7)

유다의 멸망이라니. 이제 구속사는 정녕 여기서 끝인가? 아니다. 구스 민족이 시온으로 몰려든다. 도무지 쉽게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겠노라 선언하신다. 우리가 낙망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자. 그러면 우리 시대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구속사를 반드시 진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고신교회가 이 구속역사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되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며,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내 구속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그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

{ 기도제목 }

- 1. 고신언론사가 '사시'(社是)에 따라 개혁신학의 전통수호, 교단통합의 초석, 순수복음의 확산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 2. 말씀에만 귀 기울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구속사에 동참하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도록

애굽에 관한 경고

이사야 19장 1-25절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1)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 그 풍성한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2)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3)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4)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 그 보배 피로 값 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유다는 애굽의 견고함을 의지한다. 그러나 애굽은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다. 유다가 진정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 애굽의 회복도 예언된다. 유다는 받은 특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구속역사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1. 애굽에 관한 경고(1-15)

하나님께서서는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성경은 자주 심판주로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묘사한다(시 18:9-11, 104:3, 마 24:29-31). 이 심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애굽의 정치·사회적 질서에 대한 심판이다(2-4절). 둘째, 애굽의 경제적 질서에 대한 심판이다(5-10절). 셋째, 애굽의 문화적 질서에 대한 심판이다(11-15절). 애굽이라는 한 나라를 지탱하고 운영하는 모든 질서가 붕괴된다.

이 경고가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유다는 자주 애굽의 힘을 의지해 다른 강대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였다(왕하 18:21, 사 36:6). 예레미야 시대에는 애굽을 피난처로 여기기도 하였다(렘 43:1-7). 결국 유다를 향한 경고이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의지하는 지팡이를 걷어 차버리신다. 애굽은 정치·사회·경제·문화적으로 안정을 누리던 나라였다. 유다는 이러한 안정을 자기의 보호구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참된 안정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교회는 이런 것들로 보호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안정감을 누리는가? 오늘날 교회를 보존하고 개혁하기 위

해 교회가 진정 힘입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위인가? 국가의 정치적 질서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죄와 사망의 창수에서 우리가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시 18:1-6).

2. 뺨어갈 구속사에 대한 소망(16-25)

본문은 애굽은 심판 받은 후에 애굽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한다. 그 변화는 아주 극적이고 놀랍다.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진다(19절). 심지어 애굽은 압제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어 그들을 건지신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지만 곧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고쳐주신다.

이것은 유다를 시기 나게 하는 예언이다. 애굽이 회복된다는 이 묘사에 주목하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나게 한다. 이스라엘만이 누렸던 특권이 아니던가? 유다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예언이다. 아직 유다는 이 특권을 박탈당하지 않았다. 애굽마저 이 특권을 누리다면 하물며 유다는 얼마나 더하겠는가? 받은 특권을 소중하게 여겨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보여주는 예언이다. 애굽만이 아니라 앗수르도 여호와께로 돌아온다. 이것은 당대에 모든 이방을 포괄하는 표현이다. 복음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사 11:9, 합 2:14).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출 19:5-6).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이 이스라엘을 통과하여 이방에게로 흘러간다. 이것이 구속사의 출발이고 과정이며 목적이다. 유다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와 교회의 보존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이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교회만이 이 특권을 소유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특권을 얻었다. 이 특권을 저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신다. 나와 우리 교회와 고신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이 되도록 기도하자.

{ 기도제목 }

- 1. 2022년 개국을 추진하고 있는 ‘고신 텔레비전(TV)’을 통해 고신의 신앙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고,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와 세계교회 건설에 크게 이바지 하도록
- 2. 우리 교회가 주신 언약의 특권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통로가 되도록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 20장 1-6절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1)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2)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3)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후렴)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권면한다. 특별히 선지자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시하셨다. 이사야는 3년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야 했다. 이것은 애굽과 구스가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유다가 애굽과 구스를 계속해서 의지한다면 유다도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이다.

1. 서서히 집행되는 여호와와의 심판(1)

앗수르의 왕은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냈다(참고. 왕하 18:17). 아스돗은 블레셋의 다섯 성읍 중 하나다. 블레셋은 앗수르에 대항하고자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앗수르는 강력했다. 애굽과 구스의 힘을 빌었지만 블레셋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앞선 장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의지하는 여러 민족들의 심판을 내내 경고하셨다. 그 심판은 공허한 외침이 아니었다. 정해진 때를 따라 실제로 집행되었다. 블레셋이 앗수르에 무너졌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사람들끼리 동맹을 맺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앗수르는 블레셋을 무너뜨렸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역사의 시간표는 흘러간다. 이 교훈을 기억하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 범죄 해도 돌이키지 않고 가볍게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혹은 모르는 척 하든지 관계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집행된다. 이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유다의 길을 좇을 것인가? 아니면 회개하며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는가? 본문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2. 벌거벗은 애굽과 구스 그리고 유다(2-6)

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신다. 삼년 동안 벌거벗은 채 거리를 다니라 하셨다. 이사야는 말씀대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생활했다. 선지자의 행동 계시이다. 선지자의 모습은 애굽과 구스가 맞이하할 최후의 모습이다. 애굽과 구스는 포로가 되어 앗수르 왕에게 잡혀갈 것이다. 미래의 일이 한 편의 영화처럼 생생하게 묘사된다.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의 행렬이다.

이 예언은 유다에게 주어졌다. 선지자는 유다의 길거리를 벌거벗은 채로 배회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애굽과 구스가 당할 미래를 보여주지만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를 보고 있다. 결국 유다를 향한 메시지이다. 유다가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면 그들도 애굽과 구스처럼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벌거벗은 선지자는 벌거벗게 될 유다를 보여준다. 성경에서 옷은 권위의 상징이다(창 37:3, 삼상 18:4, 참고. 눅 15:22). 이스라엘 백성의 옷은 하나님과 혼인한 신부의 예복이기도 하다(겔 16:6-14, 참고. 민 15:37-41). 유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것은 일종의 음행이다. 신부의 의복을 스스로 벗어던졌다. 자신들의 권위를 땅에 내팽개쳤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진정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 정결과 권위의 옷을 내던진 이들은 이방의 종이 된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늘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 권위를 획득하는 길이다. 세상의 목소리에 화답해야 권위를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와 교회가 세상에 귀 기울일 때, 오히려 그 권위는 상실된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한다. 이 심판은 멀지 않다. 그리고 반드시 집행된다.

{ 기도제목 }

- 1. 총회 행정지원국 직원들(사무총장 이영한 목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총회의 결정사항을 잘 이행하고, 총회의 모든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잘 협력하게 하도록
- 2. 우리 고신교회가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멀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귀 기울여 참된 권위를 회복하도록

꿈을 품은 세대를 양육하자

박정곤 목사(고현교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전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만드는 데 달려 있습니다. 세상도 많이 바뀌고 기술도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엄청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요. 현재 교회의 청소년 사역이 실패하는 이유가 세상과 기술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문화를 선도했지만 지금은 교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글과 페이스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음악, 더 나은 PPT 기술, 더 나은 조명을 찾지만 이젠 문화와 장비, 기술로 세상을 이기기는 힘든 상황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낭만(꿈과 비전)입니다.

과거 앞선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신앙생활에도 낭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고, 복음을 위해 생명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낭만(꿈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들판에서 지내며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요셉은 노예 막사와 감옥에서 지내며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었죠. 하나님의 꿈을 꾸는 믿음의 로맨티스트들은 먼저 자신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나의 비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나를 희생하며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낭만(꿈과 소원)이 있던 분들은 자나 깨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청소년들에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 내 꿈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낭만을 가르쳐야 합니다.

현란한 음악, 조명을 끄고, 화면을 끄고 성경을 손에 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내 손에 성경이 들려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는 세상 문화와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마귀와 싸워 이기는 믿음의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믿음의 낭만(꿈과 헌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와 복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성령의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과 자량이 되는 한국교회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를 향한 경고

이사야 21장 1-17절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 (1)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취라
- (2)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취라
- (3)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취라
- (4)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취라
- (후렴)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취라 / 죄로 어둔 밤 밝게 비취라 빛의 사자들이여

계속해서 이사야는 여러 나라들을 향한 경고를 말씀한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의 손을 빌어 앗수르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려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의 멸망을 보여주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한다.

1. 바벨론에 관한 경고(1-10)

바벨론에 대한 경고이다. 그러나 본문은 13-14장에서 언급된 바벨론이 아닌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의 바벨론에 관해 말씀하고 있다. 유다에게 바벨론은 반(反) 앗수르 연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나라였다. 하나님께서는 엘람과 메대를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고통스러운 계시다.

5절 이하는 바벨론을 의지하여 태평한 나날을 보내는 이스라엘의 행태를 보여준다. 잔치와 연회를 즐기는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 주변의 정국을 살피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진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다. 믿고 의지하던 나라가 갑자기 멸망했다는 충격이 이스라엘을 강타한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린 결과 앗수르의 압제라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이스라엘은 돌이킬 줄 몰랐다. 오히려 바벨론에 의지하여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했다.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된 또 하나의 매질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밟아 타작하듯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타작마당의 매질은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한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징계 아래서도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한다. 징계를 만날 때 다른 길을 찾아 해매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며 오직 하

나눔계로만 달려가자. 징계로부터 회복되는 길은 우리 자신을 살피며 징계를 감사히 받는 것뿐이다.

2. 두마에 관한 경고(11-12)

본문은 두마에 관한 경고를 말씀하며 세일을 언급한다. 세일은 에돔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지역이다(신 2:8). 따라서 에돔에 대한 경고로 이해할 수 있다. 에돔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며 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반복해서 묻는다. 이것은 마치 큰 환란을 당해 앞이 캄캄한 상태와도 같다. 에돔은 그 의미가 모호한 답변만을 듣는다. 에돔은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에돔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발견된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 자신과 교회를 일으켜 세우지 못한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혜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

3.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13-17)

아라비아는 앗수르에 대적할만한 세력은 아니지만 나뭇의 피난처는 될 만한 곳이었다. 이러한 아라비아도 수풀에 유숙할 뿐이며 전쟁을 피해 떠나야 했다. 데마 주민들의 도움을 얻어야만 근근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들의 영광은 쇠멸하고야 말 것이며, 앗수르에 대항할 힘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만을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징계로부터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갖가지 방식으로 징계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비록 그 징계에 맞서지는 않을지라도 자주 회피한다. 그러나 피하며 모른 척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징계를 받고 오히려 감사하자. 징계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자. 징계를 받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징계를 피하면 또 다른 징계가 기다린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약속을 저버리고 범죄할 때 징계하신다. 이때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회복을 향한 지름길이다. 징계를 외면하고 다른 것들로 삶을 채워 넣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지혜로 스스로를 위안하려 해도 안 된다. 징계를 내리신 분만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수 있다.

{ 기도제목 }

- 1. 총회 행정국 직원들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총회 산하 교회와 성도들을 행정적으로 잘 섬기도록
- 2. 심판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속히 회복을 소망하도록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

이사야 22장 1-25절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 (1)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 근심에 싸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말으시네
 (2) 내 모든 괴롬 닳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은 사랑 베푸시네
 (3) 내 짐이 점점 무거워 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저주시네
 (4)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후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고 선지자들을 통해 많은 말씀을 받았다. 그런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것은 한 도시의 멸망이야기가 아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성전의 멸망이며, 이는 유다 왕국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곧 세상에 유일한 구원의 기관인 교회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1. 예루살렘 멸망의 날(1-11)

예루살렘은 기쁨이 충만하며 즐거운 성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요,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의 때는 끝났다. 여호와와 날 곧 심판의 날이 이른다. 지붕에 올라가며 숨을 곳을 찾지만 다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며 징벌이다. 엘람과 기르 사람들은 화살통과 방패를 들고 공격한다(6절). 그러나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다. 실상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소란과 밝힘과 혼란의 날이 오며, 성벽이 무너지고 산악이 부르짖는다(5절).

예루살렘 멸망은 구원의 빛이 사라지는 것이다. 성전은 사죄의 장소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다. 그런 곳이 파괴되고 멸망당한다. 복음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다.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두렵고 떨리는 경고이다.

2. 회개의 요청에 잔치로 답하는 예루살렘(12-14)

예루살렘의 멸망은 갑자기 이른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다. 마지막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굶은 베를 띠라”고 경고하셨다(12절). 그러나 돌아온 답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고 한다(13절). 회개를 요청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잔치로 답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이다.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자. 예루살렘의 이 완악함을 기억하자. 슬퍼할 때에 슬퍼하며,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해야 한다. 회개할 때 회개하고, 엎드려야 할 때에 엎드려야 한다. 지금은 나와 온 교회가 엎드려 기도할 때이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 받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잠 16:18).

3. 부패한 직분자(15-25)

한 국가의 몰락의 배후에는 관리들의 부패함이 따른다. 썩나는 국고를 맡은 중요한 관리였다. 그는 권세를 얻고 재산을 모아, 자기를 위해 바위를 파고 묘실을 팠다. 국민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해야 할 지도자가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치부하였다. 하나님은 그를 관직에서 쫓아내셨다. 그의 지위를 낮추시고 그가 판 무덤에 장사도 못하게 하셨다. 결국 결박을 당하여 이방에서 객사하고 말았다.

썩나는 한 국가의 관리이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였다. 곧 직분자였다. 썩나를 대신하여 엘리야김을 세우셨다. 엘리야김이 다윗 집의 열쇠를 가졌고, 그가 열면 달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22절). 예수님은 교회와 관련하여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마 16:19, 18:18). 부패한 직분자는 교회 타락의 원인이며 멸망의 표이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자. 고신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자.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은 교만이였다. 통곡하고 애통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굶은 베를 입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직분자는 부패하였고, 백성들은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 교회의 멸망은 구원의 방주가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 고신교회가 하나님의 경고 앞에 겸허히 무릎 꿇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기도하자.

{ 기도제목 }

1.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과 코로나19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고신총회 산하 모든 교회의 주일학교가 모이는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전도의 불씨를 살려 아이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는 날이 속히 오기를
2. 하나님의 경고에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며 회개하여 구원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두로에 관한 경고

이사야 23장 1-18절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 (1)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 예수 말씀 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 (2)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 (3)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 (4) 주님 크신 은혜로써 부름 듣게 하시고 / 복종하는 맘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다. 이는 언약 백성들을 위한 중요한 메시지이다. 먼저, 언약 백성들은 이방 국가들을 의지 하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 이방 국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려준다. 셋째, 언약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 국가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두로는 무역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자신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1. 두로를 향한 경고(1-7)

두로는 베니게의 수도로서 독립적인 도시국가였다. 지중해의 해변도시로서 무역으로 많은 부를 쌓았다. 그래서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라고 했다(2절). 그리고 “나일의 추수를 큰물로 수송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라고 했다(3절). 그런 두로와 시돈이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게” 된다(1절). 그 멸망의 소식이 애굽까지 퍼지고, 애굽은 그 소식 때문에 고통한다.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나라가 멸망하면 그 무역 상대국도 큰 타격을 받는다.

두로에 대한 경고는 언약 백성들에게도 큰 충격이다. 유다는 결코 이방 국가의 힘이나 경제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거나 경제력을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하려 해서도 안 된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기억해야 한다.

2.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8-14)

두로는 고대에 건설된 유서 깊은 성이며 ‘희락의 성’이라 불릴 만큼 기쁨과 즐거움의

성이었다. 그 명성이 먼 지방까지 퍼졌던 성이었다. 이 모든 영광은 멸망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사라졌고, 슬피 부르짖게 되었다. 그래서 8절에서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라고 묻는다.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고 답한다.

어디 두로 뿐인가? 시돈도 그러하고, 갈대아 땅도 그러하다(12-13절). 근동 지방 모두가 앗수르에 의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다. 동쪽에서 시작하여 서쪽 끝까지 모든 나라가 멸망한다(사 13-23장). 참으로 하나님은 인류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다(행 17:26). 하나님은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신다(단 2:21, 4:25, 5:21).

3. 두로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뜻(15-18)

심판 받은 두로는 칠십 년이 지나면 회복된다(15절). “칠십 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라고 했다(17절). 두로는 회복된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상하다. 그가 옛날 모습을 버리지 못하며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17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로를 회복시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언약 백성을 위함이다. 곧 교회를 위해 세상을 두신다. 두로는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로를 언약 백성들을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18절).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세상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한다. 그러나 때때로 세상이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이르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교회가 아니다. 세속국가이다. 이 국가가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이르도록 기도하자.

유다는 부가 넘쳐나는 두로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곧 교회는 세상의 부를 탐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오직 여호와만으로 만족해야 한다. 더불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세속 국가를 두신 이유 중 하나는 자기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참고. 롬 13:1-7).

{ 기도제목 }

1. 2022년 전국주일학교연합회가 계획한 전국어린이대회, 전국어린이영성캠프, 전국교사대회, 여성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중단되는 일이 없이 잘 진행되고 이 일에 헌신하는 전국주일학교 연합회 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영 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도록
2. 나와 우리 교회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국가가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이르도록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 (1)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2)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써 갈한 심령에 힘을 얻고 /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3)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후렴)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 받네

13장에서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다. 24장에서 27장은 언약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에서의 회복을 말씀한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예고한다.

1. 땅에 대한 심판(1-13상)

본문은 ‘땅’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한다. 여기 ‘땅’은 언약 백성이 거하는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이다. 북 이스라엘과 유다가 거하는 곳이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북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복을 누렸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기억해 보라.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여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5절). 율법과 율례는 언약 백성에게 주어졌지만 이 땅 모든 국가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땅은 북 이스라엘과 유다를 의미한다.

언약을 파한 왕국은 ‘땅’이 공허하며 황폐하게 된다(1,3,6,10,12절).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이라는 말씀은 평등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신 왕국의 질서가 모두 파괴된다는 뜻이다. 마치 교회가 직분적 봉사를 통해 질서대로 운영되고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 질서가 사라지니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과 같다.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다(7-9,11절).

4절에서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라는 말씀은 번역을 좀 더 선명하게 해야 된다. “세계가 쇠약하고”에서 “세계”는 ‘사람이 거하는’으로 번역되기도 한다(잠 8:31). 그러니 ‘사람이 거할 곳이 쇠약하고’라는 의미이다. “세상 백성 중에”라는 말씀에서 “세상”은 4절 첫 단어인 ‘땅’과 같은 단어이다. 유다 왕국

의 지도자들이 힘을 잃는다. 곧 교회의 직분자들이 능력을 상실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왕국인 북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레 18:25,28).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심판은 조만간 실행된다. 북 이스라엘의 심판(사 28장), 유다에 대한 심판(사 29장)은 더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선언된다. 이는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예비적 성격을 갖는다. 마치 노아 홍수 심판이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예비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2. 남은 자들이 부를 찬송(13하-23)

북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다. “감람나무를 흔들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13절). 15절에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라는 말씀은 좀 더 세밀히 살펴야 한다. 여기 “동방”은 다른 성경에서 ‘불로 번역되었다’(사 31:9, 44:16, 47:14, 겔 5:2). 곧 불 가운데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려지는 찬송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고 긍정하는 소리들이다. 구원 받은 남은 자들의 찬송이다.

뿐만 아니라 “바다 모든 섬에서”(15절), “땅 끝에서부터”(16절) 노래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는 이방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북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17-20절).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하여 회복으로 나아간다.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는 말씀은 왕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한 심판 중에도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회복이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걸음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언약의 양면성을 기억해야 한다. 언약은 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다. 언약 백성인 교회는 복을 받기도, 저주를 받기도 한다. 우리 자신이 저주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언약에 신실하자. 또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고신교회를,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자.

{ 기도제목 }

1. 사명 받은 전국의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이 맡겨진 아이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바르게 양육하여 한국교회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차도록
2. 나와 우리 교회, 그리고 고신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혹 그 저주 가운데 있다면 속히 돌이켜 언약의 복을 받도록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사야 25장 1-12절

찬송가 489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 (1)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보이는 집 /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뵈오리
 (2)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뵈오리
 (3)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4)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뵈오리
 (후렴)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뵈오리 /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뵈오리

범죄한 북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한 남은 자를 두셔서 회복을 약속하셨다. 심지어 이방 중에도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미래에도 그러하실 것이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1.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자(1-5)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라”고 찬양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대로 실행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을 하나님의 맹세라고 말씀한다(신 4:31, 29:10-13, 겔 20:1-5).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맹세하셨으니 약속하신 것은 확실하게 이루신다. 하나님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1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신 하나님이시다. 옛적에 그렇게 행하셨기에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4절). 동시에 대적을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신다(4절).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의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들이 되었다.”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항상 언약적 의무를 져야 한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도움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창 14:13, 수 9:15, 10:6-14, 삼상 11:1-11). 그것이 언약의 책무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2. 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6-8)

하나님께서 “산에서” 잔치를 베푸신다(6절). 이 산은 시온 산, 곧 예루살렘을 의미한

다. 말일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와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사 2:3). 요담과 야하스의 시대가 지나고 히스기야의 때가 되면 유다는 바로 이 즐거움을 맛볼 것이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행했고, 온 백성에게 큰 희락이 넘친다(대하 30:23-27).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8절).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가! 이 잔치는 예수님을 통하여 더욱 더 영광스럽게 주어진다.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재림의 때에 이 기쁨은 완벽하게 재현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이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하신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신다. 할렐루야!!

3. 여호와와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라(9-12)

옛적에 원수 대적들을 제거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여전히 역사하신다. 유다는 앗수르를 비롯하여 늘 주위 열국들을 의지하려다가 실패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뿐이다. 그러나 유다는 이방 국가를 의지한다. 범죄한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방까지 들어오도록 인도하신다. 그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푸신다. 눈물을 씻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찬양한다. 대적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개가 밟힐 같이 밟힐 것이다. 원수들의 성벽의 높은 요새는 허물어져 땅에 꺾히고 진토에 처 박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완벽한 승리를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참고. 시 30:11).

족장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출애굽과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 가운데 역사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눈물을 씻기시며, 원수들을 멸하시고, 이방인들을 불러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오늘 하루, 나와 우리 가정에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자.

{ 기도제목 }

1. SFC가 급변하는 시대에 다음 세대에게 변하지 않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2. 과거에 나와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장래에 나와 우리 교회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도록

유다 땅에서 부를 노래

이사야 26장 1-21절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 (1)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보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2)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3)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같으나 오직 내 꿈을 참되리라
 (후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24장부터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다가 이어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본문에서도 회복을 노래한다. 선지자는 우선 자기 당대에 이루어질 회복을 말씀하고, 이어 장차 메시아를 통해 주어질 회복을 내다본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선지자 당대의 사람들에게 위로요 복음이다.

1. 유다의 회복을 노래하라(1-7)

“그 날에”는 하나님의 판결의 날이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날이다. 유다가 회복되는 날이다. 그 회복의 날은 찬양하는 날이다. 무엇을 찬양하는가? 이렇게 찬양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을 쌓으신다(1절). 유다는 성문을 열어 믿음을 지킨 의로운 백성을 맞이해야 된다고(2절). 심지가 견고한 자, 곧 마음을 주님께 두는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며, 그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심지가 견고한 자는 반석이신 여호와를 영원토록 의지해야 한다고. 또한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고(7절).

이 노래에는 유다가 원래 부름 받은 이유가 담겨있다. 유다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부름 받았다. 곧 하나님 나라를 땅 위에 아로새기고, 그 나라의 복됨을 만방에 알리는 사명이다. 유다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된다. 교회가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변화되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의 회복을 노래하는 ‘그 날’을 소망하자.

2. 주님의 심판을 노래하라(8-11)

유다를 향한 심판이 임한다. 그 심판의 날에 의인들은 노래해야 한다. 노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찾았습니다. 세상 거민들이 의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의를 배우

지도 않고 오히려 불의를 행하며, 여호와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군요. 주님의 구원의 손이 높이 들려도 악인들은 보지 않는군요. 여호와여, 불이 대적들을 사르게 하소서.”

8-11절은 바로 주님의 심판을 노래한다. 하박국도 주님의 심판을 노래했다(합 3:17-19). 유다 땅에서 부르는 노래는 이방인들이 부를 노래가 아니다. 이 노래는 유다 백성이 부르는 노래다. 그러니 언약 백성들 가운데 신실한 남은 자가 부를 노래다. 남은 자들의 눈에는 주님의 심판이 심판으로 보인다. 그러나 악인들의 눈과 귀는 닫혀있어 심판조차도 깨닫지 못한다(사 6:9-11). 교회의 가장 큰 슬픔은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으로 깨닫지 못함이다. 나와 우리 교회가 신실한 남은 자의 자리에 이르도록 기도하자. 그리하여 주님의 심판을 노래하자.

3.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라(12-21)

유다는 예배를 변질시켰다(사 1장). 그들은 들 포도를 맺었다(사 5장).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았다(사 7장).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제국 앗수르를 의지했다. 유다의 처방은 빛나갔다. 그래서 모든 이방 세계를 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사 13-23장). 많은 이들이 심판의 길로 나아갔다. 처절한 심판 중에 소수의 의인들이 남았다. 그 남은 자들은 끝까지 여호와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노래한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셨다고 노래한다(12절). 우리는 주님만 의지한다고 찬양한다(13절).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다고 노래한다(15절). 더군다나 주의 징벌이 임할 때에 간절히 주께 기도했다고 한다(16절).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재촉하는 기회가 된다. 결코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21절). 아멘!

교회가 교회 본연의 모습을 찾도록 기도하자.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주님의 심판은 교회가 회복되는 첫걸음이다. 그러니 주님의 심판조차 찬양하자. 주님은 이 시대에 신실한 남은 자를 찾으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와 우리 고신교회가 신실한 남은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자.

{ 기도제목 }

1.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지도자를 양성하여 고신교회를 통해 국가와 학원과 세계의 복음화를 이뤄가는 SFC가 되도록
2. 유다 땅에서 부를 찬송을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고신교회가 부르도록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 (1)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2)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리다
 (3)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 곤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4)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 내가 그리던 주를 뵈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후렴)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사야 24-27장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을 말씀한다. 그 심판과 회복은 메시아를 통하여 절정에 이르고, 마지막 날의 심판과 구원을 향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이다. 모든 불의의 세력들과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무서운 심판이 임하지만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승리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소망과 기쁨의 날이다. 이 날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

1. 대적을 제거하다(1)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인다. 리워야단은 한글개역에서 악어(욥 3:8)로 번역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바다 괴물이 해된다. 용은 큰 물고기(창 1:21), 뱀(출 7:9,10,12, 신 32:33)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리워야단이나 용은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방 제국들이나 세력을 의미한다(욥 41:34, 겔 29:3, 단 7:1-8,15-22, 참고. 계 12:9). 애굽과 앗수르, 후에 등장할 바벨론도 하나님의 강한 칼에 멸망한다. 그러니 언약 백성인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방 이방국가를 의지하면 안 된다. 우선 보기에 좋아보여도 세상의 권력은 부질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하신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이요, 완결하신다. 이미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부수셨다. 이제 곧 재림하시면 사단을 영원한 불 못에 던질 것이다(계 20:7-10,14).

2. 자기 백성을 보호하다(2-6)

하나님께서서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신다. 유다 왕국은 하나님

의 포도원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좋은 포도 대신 들 포도를 맺었었다(사 5:4).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여섯 번이나 화 있을 것이라는 책망을 들었다(사 5:8-23). 그러나 이제 는 하나님이 친히 포도원지기가 된다고 하신다(3절).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 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 질레와 가시는 밭고 모아 불사른다(4절). 질레와 가시는 포도원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대적들이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이다. 신약성경에서 이들은 종종 거짓 선생으로 묘사된다(행 15:1,24, 고후 11:4,13-14, 갈 1:6-7, 3:1, 딤후 3:6, 딤후 1:10).

1절에서 이방 국가를 제거하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를 보호하신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단의 세력을 불사르신다.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6절). 에덴동산의 재현이다. 보라 얼마나 통쾌한 날인가!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말 4:3). 이 말씀을 붙들자.

3. 징계를 넘어 회복으로(7-13)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징계의 채찍으로 치셨지만 적당하게 견책하셨고 다시 모으실 것이다(7-8절). 하나님의 징계는 자비와 사랑의 징계이다. 우리를 회복하시려는 사랑의 회초리다(히 12:6). 그 징계로 불의가 속함을 얻고 우상들은 온전히 제거된다(9절). 흩어져 있던 자기 백성을 모으신다. 귀환의 나팔소리가 울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처에서 모여 돌아와서, 예루살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13). 그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2). 외부의 이방 국가를 제거하고, 내부적으로 포도원은 더 아름답게 된다. 이방 국가들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정화시키는 막대기로 풀무였다. 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왕국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코로나로 인해 온 교회가 몸살을 앓았고, 지금도 계속된다. 예배가 중단되고 성도의 교제가 사라졌다. 그러나 우리 고신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전진해야 한다.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시간으로 삼자. 나와 우리교회가 깨끗하게 정화되도록 그동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자.

【 기도제목 】

1. 개체교회, 노회에 기독교장년연합회(노회CE)가 조직되어 전국기독교장년연합회(전국CE)가 교단내의 연합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2. 교회의 외부와 내부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제거하시며, 교회를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진하도록.

엄마 아빠와 나누는 설교

강현복 목사(샘터교회)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교회가 증가합니다. 코로나19는 이 모든 어려움에 더하여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지켜낼지 무척 걱정입니다. 확실히 위기입니다.

성경은 자주 부모의 책무를 강조합니다. 출애굽 전날 밤,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와 초태생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녀들이 유월절을 보면서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부모가 답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출 12:26, 13:14).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이 율법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신 6:4-9, 11:19).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는 아이들의 질문에 부모가 답해야 된다는 말씀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은 부모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우리에게 주일학교 제도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 좋은 제도가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현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른 아니라 교회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부모의 책무에 대한 강조는 매우 미흡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언약의 자녀로 길러야 합니다.

둘째로 묻고 답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은 부모들이 행하는 유월절 예식을 매년 봅니다. 아이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바로 그것을 질문합니다. 아이들의 질문 내용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세 번째로 묻고 답한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아이들은 묻고, 부모는 답합니다. 이 형식은 성경에서 자주 소개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언약서를 낭독한 후 백성들은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고 답했습니다(출 24:7).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언약식을 행합니다. 여섯 지파는 그리심 산에, 다른 여섯 지파는 에발 산에 서고, 레위 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두 번 선언합니다. 백성들은 레위 인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답해야 합니다(신 27:11-26). 이러한 언약식의 요소가 우리의 공예배에 그대로 재현됩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설교 후에 화답 찬양으로 성도들은 답합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교회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묻고 답하는 것은 예배의 중요한 형식입니다. 공예배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아이들은 묻고, 부모는 답해야 합니다.

주일 공예배에 자녀들과 함께 참석합니다. 사실 주일 공예배에 어린이를 제외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마 19:13-15, 행 2:39). 아무튼 자녀들과 함께 주일 공예배에 참여하면 필연적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는 자녀와 부모가 묻고 답하는 가장 좋은 재료입니다. 주일 저녁마다 아이들은 묻고, 부모는 대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말씀을 묻고, 대답하는 가정에는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묻고 답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비틀거리는 나라와 백성들이여

이사야 28장 1-29절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 (2)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 (4) 옛 선지자 예복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걸겠네
- (후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사야 28-29장의 역사적 배경은 북 이스라엘이 멸망을 눈앞에 둔 시점이다. 북 이스라엘은 아람과 손을 잡고 유다를 공격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지독한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앗수르의 손에 무참히 멸망한다. 유다는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도 술 취한 자들처럼 비틀거린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 신실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신다.

1. 비틀거리는 나라(1-6)

하나님께서서는 북 이스라엘을 향하여 “술에 빠진 자의 성”,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라 하셨다.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니 물질의 풍요함과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떠 올리게 한다. 그러나 그들은 술에 빠진 성이 되었다. 그리하여 “화 있을진저”라는 책망을 듣는다. 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 금송아지 우상을 벵엘과 단에 세웠고, 제사장들을 모두 해고하고 일반 백성들로 채웠으며, 절기를 없애고 하루 만(8월15일) 절기로 지켰다(왕상 12:25-33). 여로보암의 후대 왕들은 모두 이 악을 이어 받았다.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 후에 북 왕국은 더더욱 타락한 모습으로 변모했다(왕상 16:29-34). 베가 때에는 아람과 연합하여 형제인 유다를 공격하여 군사 12만을 죽이고, 20만 명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풀어주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북 왕국을 “강하고 힘 있는 자” 곧 앗수르에게 멸망할 것을 말씀한다(2절). 강한 자가 북 이스라엘의 면류관을 땅에 던지고 밟는다(3절). 북 왕국은 쇠잔해 가는 꽃이 되어 보는 사람이 얼른 따 먹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신다(5절). 하나님이 친히 재판하는 영이 되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힘이 되신다.

2. 북 왕국의 술 취함을 닮은 유다(7-13)

7절 이하의 말씀은 유다의 모습이다. 북 이스라엘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교훈으로 삼지 않는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타락을 말씀한다(7-8절). 직분자들의 타락은 왕국의 멸망으로 이어진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향하여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라고 비꼰다. 어린 유아들에게 하려는가? 라고 조롱한다(9절). 그런데 더 심각한 모습이 나타난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희화화 하고 농담으로 여기며 폄훼한다. 10절을 히브리 음역 그대로 옮기면, ‘차브 라차브, 차브 라차브, 카오 라카브, 카브 라카브, 제일 삼, 제일 삼’이다. 이것은 선지자가 술 취해서 횡설수설 한다는 비꼬임이다. 선지자의 경고와 질타를 술 취한 자의 술주정으로 취급한다. 얼마나 타락한 모습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심판한다. 심판의 방법은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한다. 곧 유다 백성들에게 외국어로 말씀한다. 그러니 알아듣지 못한다. 선지자의 말씀을 술 취한 자의 술주정으로 비꼬는 이들에게 외국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말씀을 거두어 가신다. 이것이 방언이 갖는 심판적 기능이다(고전 14:21).

3. 유다의 시온에 세운 기초석(14-29)

하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의 오만한 자들을 향하여 “한 돌을 시온에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하셨다(16절). 스스로 사망과 스올에서 자유하다고 큰소리치는 이들에게 “넘치는 재앙이 밀려온다”고 했다(18절). 이 돌이 피난처와 보호자가 되신다. 이 돌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시다(벧전 2:4-6, 참고. 시 118:22, 마 7:24). 하나님의 지혜와 경영은 기묘하고 광대하다(29절).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다.

교회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타락한다. 이방 국가를 사용하여 교회를 치는 막대기로 삼으신다. 멸망은 여러 번의 경고와 징조를 동반한다. 술 취한 사람처럼 말씀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과 교회를 살피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방패이심을 굳게 믿고 전진하는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자.

{ 기도제목 }

1. 전국청장년연합회에 일꾼을 허락해 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물질이 잘 채워지도록
2. 교회를 향한 경의의 메시지를 경각심을 갖고 들으며,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는 우리 교신교회와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자신이 되도록

슬픈 아리엘과 기이한 일을 베푸신 하나님

이사야 29장 1-24절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 (1)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2)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자 위로 하시는 주 /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3)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후렴)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 하신 예수님을 / 내 마음 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제단”이란 뜻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을 말한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실패였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경멸하셨다(사 1장). 아하스의 우상숭배를 보라. 가나안 종교를 따라 자녀를 불사르고 산당과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대하 28:3-4). 그래서 하나님은 제단을 향하여 “슬프다”고 탄식하셨다.

1. 슬픈 아리엘과 하나님의 은혜(1-8)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읍 아리엘이 슬픔의 대상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예배가 형식적이고 가증스럽게 되었기 때문이다(사 1:10-17, 말 1:7).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슬퍼하고 애곡한다(2절). “아리엘”같이 된다고 했다. 이는 제사 드리는 제단이 언제나 죽음과 피가 흐르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대적 앗수르를 사용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다(3-4절). 우리의 예배에서 회복되어야 부분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예배인지 조용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참 예배라고 했다.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힌 예루살렘을 징계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는 완전한 멸망이 아니다. 징계의 막대기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 가는 겨 같으며,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 같이, 밤의 환상 같이 된다(5-7절).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늘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것이 은혜이다.

2. 이중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징계(9-16)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징벌하셨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언약의 복을 누리는 상태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신다(10절). 그래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목시를 보지 못한다. 그것을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고 하셨다(11절). 선지자의 역할은 목시, 곧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 선지자들이 목시를 읽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교회에 말씀이 사라지거나 말씀을 읽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정말 비참하다. 말씀이 사라진 교회는 사단의 회가 된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5절).

원인이 무엇인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떠났기 때문이다(13절). 하나님 몰래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다(15절). 그러나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모든 것을 아신다(16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든지 쓰든지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마 11:25).

3. 기이한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17-24)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한다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의미한다(17절). 동시에 사람들이 귀가 열려 책의 말을 듣고, 맹인의 눈이 보게 된다(18절). 가난한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강포한 자는 소멸되고, 오만한 자는 그쳤고, 더 이상 야곱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얼굴빛이 창백해지지 않는다. 마음이 혼미한 자들이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겸손한 자를 회복하시겠다는 소망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소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유다는 히스기야를 통하여 회복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다. 그러나 그것은 더 온전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바라보게 한다(눅 4:16-21).

하나님께서 아리엘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들을 징벌하신 이유는 정확시켜 회복시키려는 의도이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가 있다.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신다. 그러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와 우리교회와 고신교회가 하나님의 징계처럼 보이는 일을 당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 기도제목 }

1. 전국남전도회연합회가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외지에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취해 가는 전국남전도회연합회가 되도록
2.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애굽과 맺은 헛된 계약

이사야 30장 1-33절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 (1)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 (2)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 (3)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 (4)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유다는 히스기야 시기에 애굽을 의지했다. 국가적으로 합당한 외교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많은 이들이 사람을 찾고,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찾는다.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승리한다.

1.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1-7)

유다는 앗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애굽과 방위 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1절). 유다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2절). 결국 바로의 세력이 수치와 수욕이 된다. 사신들이 보물을 낙타에 싣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 애굽으로 향하여 보았자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하시며,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고 하신다(7절).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이 있고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거나, 물질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한 것들은 무익하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복이 있다.

2.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8-17)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서판에 무언가를 기록하여 후손들에게 남기라 한다(8절). 기록 내용을 보면, 너무나 비참하다. 이 백성은 패역하고, 거짓말 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와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쓴다(9절). 선지자에게는 ‘보지 말라’고 하고, 선지자에게는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한다. 마치 성도들이 목사에게 설교가 듣기 싫으니 좋은 말, 듣기 좋은 설교만 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한다. 터진 담이 순식간에 무너지듯이,

토기장이가 아낌없이 그릇을 깨뜨리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13-14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15절). 여기 “돌이켜”라는 말씀은 ‘돌아서다’, ‘회개하다’는 뜻이다. “조용히”라는 말씀은 ‘안식하다’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회개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다. 하지만 완악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머무는 대신 말을 타고 도망간다(16절).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의지한다. 구원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롬 3:23). 보잘것없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자.

3.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라(18-33)

유다는 앗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애굽에게 사신을 보내고,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애굽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 스스로의 방법을 찾는다. 그것도 여의치 않다.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되다(18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신다(19절).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알려 주신다(20-21절). 비를 주셔서 먹을 것이 풍요롭게 되어 짐승들도 풍족히 먹는다(23-25). 언약의 복이 넘쳐난다.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아진다(26).

그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신다(27-28절). 대적 앗수르를 제거하신다(31절). 눈물겹도록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그 백성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맹렬한 불로 심판하신다. 우리는 오래 참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한다.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자.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면 안 된다. 교회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다리며 의지해야 한다. 심지어 교회가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기억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회복시키신다. 이 약속은 언제나 유효하다. 오늘도 겸손하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자.

{ 기도제목 }

1. 전국장로회연합회 52회기 주제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막 6:14)입니다. 이번 회기 모든 사역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도록
2. 세상의 권세와 능력,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며 의지하도록
3.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고 교회를 존중하는 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사야 31장 1-9절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 (1)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 대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 (2)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 (3)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 (4)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 (후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 대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유다는 앗수르의 공격 앞에서 애굽을 의지한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그가 의지하는 애굽마저 치신다. 유다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돌이켜 그 분께로 돌아가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하신다.

1.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1-3)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방 국가를 의지하는 것이 부질없음을 가르친다. 본문에서 이 가르침이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반복된다. 앗수르의 위협 앞에서 유다는 애굽에게 도움을 구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행동이다(1절).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도 치시고, 유다가 의지하는 애굽도 치신다(2절). 애굽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것도 아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모든 동맹 세력은 다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악을 책망하신다. 교회는 언약의 저주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어떤 종류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의 위로요 피할 바위시며 산성이시다. 교회의 도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만 부르짖자.

2. 하나님께로 돌아가자(6)

하나님께서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6절). 유다는 하나님을

“심히 거역”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 먼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음으로 시작된다. 자신들의 ‘거역’을 깨달아야 한다. 죄의 고백은 언약의 저주를 사라지게 한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도움만 요청하는 것은 외식이다.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백성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언약한 죄인인 우리들은 우리 힘으로 죄를 깨끗하게 지우지 못한다. 우리는 언제나 외식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비추어 우리 죄를 깨닫고 고백하자.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분의 의로움을 날마다 덧입자.

3. 하나님께서 이기고 회복하신다(4-5, 7-9)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 싸우신다(4절). 하나님은 먹이를 움킨 큰 사자와 젊은 사자같이 친히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물러가게 하신다(4, 8-9절). 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며 구원하신다(5절). 교회의 죄악을 친히 제거하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신다(7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징계하시나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분께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자주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지 삼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갈망하자. 바로 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 약속이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다.

유다의 약점을 만천하에 공개한다.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 원수 대적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린다. 죄의 샅인 사망은 늘 우리 앞에 파리를 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사망을 이길 방법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이 있다.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

{ 기도제목 }

1. 고신사역자 훈련원(전국여교역자회)이 코로나 시대에 여교역자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게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2. 나와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삼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도록

심판을 지나 의로운 나라로

이사야 32장 1-20절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 (1)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 (2) 세상 영광 위해 따름 아니요 /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 주가 내려 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 (3)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 하리라 /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의로운 왕과 방백들을 약속하신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다. 이 나라에서 죄인은 정죄 받고, 의인은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 회복을 위하여 심판이 먼저 임한다. 교회의 죄악을 청산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신다.

1. 장차 임할 의로운 통치자(1-8)

이사야 당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거의 잃어버렸다. 북 이스라엘은 앞서 멸망하고, 유다 또한 언약의 저주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가 허물어질 것 같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하신다. 의로운 왕과 방백들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1절). 의로운 통치자는 혼란을 잠재우고 황폐함을 회복할 것이다(2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깨닫고 소성케 될 것이다(3-4절). 질서가 바로 잡히고 악인은 악인으로 정죄 받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는다(5-8절).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우뚝 솟아날 것이다.

이 약속은 이사야 당대에 히스기야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의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약속대로 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포로된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그들을 소성케 하셨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거절했다. 그들은 정죄 받았다. 다른 남은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건설하셨다.

2. 먼저 임하는 심판(9-14)

하나님께서는 회복에 앞서서 범죄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징계하신다. 타락한 백성들이 안일하게 태평을 누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9-11절). 이전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게 된다. 좋은 밭과 포도나무가 사라지고 가시와 찔레가 넘쳐난다(12-13절). 백성들이 멸절되고 언덕과 망대에는 적막만이 감돌 것이다(14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결코 가볍게 지나치지 않으신다. 교회도 범죄하면 죄값을 치러야 한다. 징계 없이는 회복이 없다. 죄악으로부터의 회복에는 언제나 죄를 청산하는 일이 선행한다. 물론 예수님께서 교회가 받을 형벌을 모두 대신 받으셨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자녀를 징계한다(히 12:8). 징계를 통해 더욱 온전한 자녀로 바로 세우신다. 무엇보다도 죄악을 범하지 말자. 다만 이미 범죄하고 있다면 즉시 멈추고 징계를 달게 받자. 바로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

3. 곧이어 따라오는 회복(15-20)

하나님께서는 징계 중에 있는 백성들 위에 주님의 성령을 보내어 주겠다고 약속하신다(15절). 복과 풍요를 잃어버리고 광야처럼 황폐해졌던 하나님 나라가 다시 아름다움을 되찾게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써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선물하실 것이며, 백성들은 안식을 누리게 된다(16-17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백성 가운데 좌정하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실제적으로 실행하신다. 성령님의 의하여 교회에는 공의가 시행되고, 평화와 안식이 찾아온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선물하셔서 백성들 모두가 의로운 통치에 참여하게 하신다(갈 5:22-23).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자. 광야가 아름다운 숲이 되는 풍요를 함께 받아 누리자.

교회는 결코 영원히 무너져 있지 않는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놀랍게도 이 회복은 심판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징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청산하자. 나아가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가 교회와 우리 삶 속에서 더욱 더 실현되게 하자.

{ 기도제목 }

1. 강원노회 30개 교회(조직 6, 미조직 23, 기도소 1)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2.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믿으며 징계를 달게 받고 회복을 소망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사야 33장 1-24절

찬송가 406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쉬 곳과

- (1) 곤한 내 영혼 편히 쉬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 (2)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 (3)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 (4)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 (후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사야는 계속하여 앗수르와 유다 사이의 미래를 예고한다. 앗수르가 유다를 침략하고 유다는 무너진다. 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부르짖는 것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신다.

1. 부르짖는 백성들(1-9).

앗수르는 맹약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유다를 공격했다(1절).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에서 앗수르의 1,2차 침략을 자세히 다룬다. 강성한 앗수르의 공격 앞에서 유다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7-9절). 드디어 유다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는다(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2절).

백성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실로 대적들을 망하고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3-4절). 존귀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고 백성들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신다(5-6절).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세상은 자주 교회를 잡아 삼키려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앞서 싸우신다.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승리를 주신다.

2. 응답하시는 여호와(10-16).

유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일어나신다(10절). 유다의 대적들을 진멸하시고 자신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신다(11-13절). 이 큰 구원 앞에서 주님의 백성들마

저도 반응한다. 시온의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 앞에 두려움에 휩싸인다(14절).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다. 성전 앞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15-16절, 시 15편).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며 돌이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기 백성을 정녕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기도예 응답하사 대적들을 진멸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삼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시다.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신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시다(요일 2:1). 낙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과부의 기도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자(눅 18:1-8).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자(눅 11:5-13).

3. 회복되는 왕국(17-24).

유다는 아름다움 중에 있는 왕, 곧 영광중의 왕을 본다(17절). 땅은 회복된다. 이 왕은 일차적으로 히스기야이다. 히스기야는 앗수르의 공격을 보고 성전에서 기도한다(왕하 19:1,14).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앗수르의 군대를 진멸하셨다(왕하 19:35). 대적들의 공격은 옛 일처럼 여겨진다(18절). 대적 앗수르는 완전히 물러갔다(19절). 동시에 왕과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된다(20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21절). 여호와 그분이 유다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고 든든하게 붙들어 매신다. 백성들은 여호와와 왕 되심을 찬양하며(22절), 죄 용서와 해방의 기쁨을 노래할 것이다(24절).

메시아 이신 예수님은 참 왕이시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 왕이신 예수님은 원수를 제거하신다. 왕이신 우리 주님은 교회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강건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친히 건설하시고 보존시키시며, 완성해 가신다.

우리의 죄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대적의 목표물이 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더 영광스럽게 하신다.

{ 기도제목 }

1. 경기동부노회 74개 교회(조직 29, 미조직 35, 기도소 10)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2.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 앞에서 즉시 부르짖으며 영광스러운 회복을 누리도록

열국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

이사야 34장 1-17절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 (1)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 (2)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 (3)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 차가운 내 맘 녹여주소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이사야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예고한다. 열방에 쏟아지는 심판은 특히 에돔 족속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구체화된다. 이 심판은 일종의 보복이었다. 그러나 이 심판은 하나님 나라와 열방 사이의 관계로부터 출발한다.

1. 열방을 향한 심판의 선포(1-4)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소식을 공포하신다(1절). 세 번 반복하여 부르시고 알리시는 것은 이 선포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여호와께서는 열방을 향해 진노하시고 그들의 군대를 향하여 분을 내사 그들 모두를 진멸하신다(2절). 하늘의 만상, 곧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이는 통치권의 붕괴를 보여주는 상징 언어이다. 선지자는 상징 언어를 통해 열방이 그들의 주권을 빼앗기고 추풍낙엽처럼 사그라지는 그들의 권세를 실감나게 묘사한다(4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열방에 진노하시는가? 선지자는 이 심판 예고를 통해 교회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 이것은 이사야서 전체에 이방 국가들을 향한 심판이 뼈곡히 기록된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열방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심판 받는다. 이스라엘이 제 위치를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이방 또한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났다. 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어야 할 이스라엘이 먼저 타락했으니, 그것은 한편 당연한 결과이다. 열방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심판 받는다. 이스라엘은 열방을 복음의 빛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 죄악된 세상을 살려내라고 부름 받은 새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이다.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 세상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 열방을 향한 심판을 보며 우리에게 주

어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자.

2.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5-17)

선지자는 열방에 임할 진노를 갈무리하며 특히 에돔에 집중한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와 같으면서도 또한 이방 국가이다(신 23:7). 하나님 나라와 이방의 관계는 이스라엘과 에돔처럼 가까우면서도 먼 사이이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나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을 하나님 품으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이다. 열방은 이스라엘에게 복속되며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야 한다.

에돔은 자신의 위치에서 이탈한다. 이스라엘을 섬기기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을 잔해하고 괴롭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에게 보복하시고 유다의 맺힌 원한을 풀어 달라신다(8절). 여호와와 같이 에돔 땅에 임하여 황폐하게 하신다(5-6, 9-10절). 수많은 짐승들이 에돔 땅을 처소로 삼는다. 여호와와 명령에 의하여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 없이, 기록된 모든 짐승들이 확실하게 짝을 이루어 그곳에 모이게 될 것이다(11-17절).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이 무엇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는지 살펴야 한다.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누그러뜨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교회가 제사장 나라로 섬기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선지자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며 그들을 살려내지 못한 제사장 나라를 함께 책망한다. 우리가 신실하다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위로하는 온전한 보복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실하다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질 것이다. 교회가 사명을 잊으면 반드시 이방을 의지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것이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와 열방이 받을 심판을 그토록 함께 묘사하는 이유이다.

많은 이들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진다고 탄식한다. 탄식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음으로 세상을 압도하자.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자. 그것이 교회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마주하지 않는 비결이다. 그러할 때, 교회는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는다.

{ 기도제목 }

1. 경기북부노회 58개 교회(조직 32, 미조직 22, 기도소 4)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2. 나와 우리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이 되는 사명에 충성하도록

‘이런 것’도 기도해 보세요.

허태영 목사(SFC대표간사)

여러분, 기도는 뭔가 특별한 원리가 있는 것 같아서 시작하기 어렵죠? 사실 기도의 원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있습니다(마 6:9-13; 눅 11:1-4).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원리를 잘 몰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는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롬 8:26). 그럼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할까요?

‘내 욕심 같은 것’도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숨김없이 쏟아 내야 합니다. 기도는 인간적인 바람이나 개인적인 욕심을 구하기보다 고상한 내용과 멋진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 구해도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다른 부인 브닌나가 자식 없음을 조롱하고 업신여길 때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삼상 1:6-7).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 이후입니다. 한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억울함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의 핵심은 인간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삼상 2:1-10). 나의 공부를 위해, 이성 친구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응답하시든 침묵하시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감격하는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의 연약함은 더 이상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도 기도로 질문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IQ나 EQ(감성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부족’은 2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살다 보면 ‘나는 왜 이성 친구가 없지?’, ‘나는 왜 다른 친구보다 예쁘지 않지?’, ‘나는 왜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같은 질문이 생기죠. 더 나아가 ‘예수 믿는데도 나는 왜 잘 안 될까?’라는 질문도 생깁니다. 이때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회복 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더 정직하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대답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9~11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부한 자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고, 부한 자의 행하는 일이 해가 뜨고 풀이 마르고 풀의 꽃도 떨어지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지나가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십니다.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안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줄 것입니다(빌 4:7).

기도를 어렵게만 생각지 마십시오. 가장 가깝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만나기 원하며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루심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70일 특별기도회’ 기간 동안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에 있는 생각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사야 35장 1-10절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 (1)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 (2)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 모든 괴롬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 (3)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 (4)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 (5)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 뿐이라 /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 (후렴)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름다운 회복이 묘사된다. 메마른 광야에 꽃이 피어나고,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동산이 되고 죄와 고통이 사라지며 회복과 풍요가 찾아온다. 구속받은 자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분께로 나아간다.

1. 광야에서 피어나는 기쁨(1-4).

앞서 선지자는 열방이 광야처럼 황폐해 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여기서는 반대로 메마른 광야가 회복되는 모습을 노래한다. 회복의 날에 사막에 꽃이 피어나고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1-2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4절). 그렇기에 백성들은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야 한다(3절).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약속을 담대하게 바라보며 회복을 소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주 큰 심판 이후에 회복을 선물하신다. 언제나 우리의 관심은 심판 그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을 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겁내지 말자. 두려워 말자. 악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때때로 광야를 만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기쁨을 샘솟게 하리라고 약속하신다.

2. 회복된 동산에서 누리는 구원(5-10).

선지자는 이 회복의 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듣지 못

하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5절). 저는 자가 사슴 같이 뛰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기 시작한다(6절). 영적이고 육체적인 죽음과 고통은 대체로 죄로부터 찾아온다. 질병도 마찬가지이다. 선지자가 노래하는 회복은 육체적인 회복임과 동시에 영적인 회복이다(참고. 사 6:9-10). 또한 이 날에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6절). 사막이 못이 되며 황폐한 곳에 풀이 자라게 된다(7절). 이것은 마치 광야가 태초의 첫 동산처럼 회복되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첫 동산을 잃어버렸다(창 3:23-24). 그러나 회복의 날에 백성들은 동산을 되찾는다. 구속받은 자들은 대로를 따라 걸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시온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한껏 누리게 될 것이다(8-10절).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이 회복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다. 친히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메시아 왕국 시대를 선포하셨다(마 15:29-31, 눅 7:20-22). 공황을 베푸시며 죄인들을 낮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회복을 이루셨다(마 9:11-13, 막 2:17). 새 성전인 자신에게로 나아오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새 동산이자 그분의 몸 된 교회에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눅 5:17-20, 7:44-48, 행 2:38). 지금 우리 또한 이 회복을 누리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죄를 용서받았고 영적 질병을 치유 받았다. 우리는 구속함을 받으며 예수님을 따라 새 예루살렘인 교회로 들어왔다. 교회가 회복된 동산이다. 약속된 메시아 시대의 회복은 교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실현된다. 이 회복은 과거의 회복만이 아니다. 이 회복은 오늘도 계속 이어진다. 여전히 우리는 자주 범죄하며 광야를 마주한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동산에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산에 붙드신다. 정녕 메시아 왕국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한껏 누리며 즐거워하자.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졌다. 교회는 새로운 동산이다. 교회는 회복된 낙원이다.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성취된다.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누릴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가? 회복된 동산인 교회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한껏 즐기고 있는가? 교회가 구원과 찬송의 현장이다. 나와 우리 가족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지내는가?

{ 기도제목 }

- 1. 경기서부노회 40개 교회(조직 19, 미조직 19, 기도소 2)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 2. 교회를 약속된 동산으로 여기며, 그 안에서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며 삼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찬송하도록

교회 개혁이 위기를 만날 때

이사야 36장 1-22절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 (1)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2)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3)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4)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5)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후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때는 히스기야 왕 십 사년, 한창 교회 개혁이 무르익던 시점이었다. 앗수르 왕 산헤립이 대군을 보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항복할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인도에 따라 유다 백성들은 잠잠했다. 교회는 위기를 만났지만 중보자의 말씀에 귀 기울여 잠잠히 위기를 통과한다.

1. 교회 개혁이 무르익어 가던 때(1)

악한 왕 아하스를 뒤이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그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매우 경건한 왕이었다(왕하 18:3, 대하 29:2). 이는 무너져 내려가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한다(대하 29:31).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바로잡고, 제사와 유월절을 지켰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예배와 직분의 회복이다. 유다 백성 모두가 중보자의 교회 개혁에 기쁘고도 신실하게 동참하였다. 이로써 유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을 다하는 교회로 탈바꿈했다.

바로 이때였다.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은 빛나갔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대군을 보냈다(대하 32:1). 유다의 앞날은 풍전등화와 같았다.

지금도 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개혁해 가신다. 교회 개혁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예배와 직분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개혁의 약속과 사명을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 우리 모두가 이 약속과 사명으로 부름 받았다. 교회 개혁을 위한 우리의 수고에도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

다.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교회 개혁에 동참하라는 명령에 복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2. 위기에 직면한 교회 개혁(2-20)

산헤립의 군대장관 랍사게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마주하고 섰다. 랍사게는 의기양양하게 외친다. 위대한 앗수르의 신들과 군대 앞에 멸망치 않은 나라가 있느냐고 말이다. 히스기야 쪽 신하들의 마음이 무겁게 짓눌린다. 백성들이 혹시나 들을까 무섭다. 랍사게는 이 약점을 무섭게 파고든다. 항복하기만 하면 양식과 포도주가 차고 넘치는 땅으로 옮겨주겠노라 약속한다. 자기 대변과 소변을 먹고 마시는 비참함 속에 있던 유다의 뇌리에 박히는 유혹이다.

교회 개혁은 위기를 만나곤 한다. 양상은 다양해도 대개 그 본질은 유사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를 것인가? 세상이 주는 유혹을 따를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집요하게 뒤흔든다. 세상을 따른 복락이 여기 한 가득 있지 않느냐고 유혹한다.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냐고 으박지른다. 하지만 분명하다. 약속을 따른 비참은 세상을 따른 복락보다 행복한 길이다.

3. 위기를 만난 교회의 대응(21-22)

유다 백성은 놀라우리만큼 침착하다. 요동하지 않는다. 일찍이 있었던 왕의 명령이 이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왕에게 나아간다. 자기 의복을 찢으며 위기를 만나 뒤흔들리는 마음을 왕에게 쏟아 놓는다. 위기를 만난 교회는 담담하다. 고난과 유혹 속에도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요동치는 마음을 중보자에게 쏟아놓으며 교회는 몸부림한다. 고난과 유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가?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앞에 몸부림하자. 이것이 위기를 만난 참 교회의 반응이다.

교회는 중보자의 약속과 사명에 따라 늘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 때로 교회 개혁은 고난과 유혹으로 인해 위기를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 때이다.

{ 기도제목 }

1. 경기중부노회 59개 교회(조직 26, 미조직 30, 기도소 3)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2. 위기 속에도 교회 개혁의 약속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찬송가 406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쉬 곳과

- (1) 곤한 내 영혼 편히 쉬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 (2)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 (3)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 (4)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 (후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랍사게의 말을 전해들은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헤립에게 임할 심판을 전한다. 히스기야는 심판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한다.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심판과 구원에 대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모두 이루신다.

1. 말씀으로 인도하는 직분자(1-7)

랍사게의 말이 히스기야에게 전해졌다. 왕은 이사야에게 왕국이 위기를 만나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음을 전한다. 곧 교회 개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음을 알린다. 이사야는 말씀을 맡은 선지자이지 않은가. 따라서 왕은 위기를 만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적을 향한 심판을 약속한다. 이 약속 안에서 교회는 위로를 얻고 교회 개혁을 계속할 동력을 얻는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인도하신다. 직분자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 받기 위해 부름 받았다. 특별히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 직분자는 교회로 하여금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만들어야 한다. 그 안에서 교회는 나아갈 방향을 깨닫고 힘을 얻는다. 말씀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임을 기억하자.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자.

2. 기도하는 직분자(8-20)

구스 왕 디르하가가 앗수르 왕 산헤립을 대항하여 군대를 일으켰다. 이 소식을 들은 랍사게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왕 산헤립을 도우러 간다. 이때 그는 히스기야에게 서신을

보낸다. 앗수르가 반드시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것이며 하나님을 의뢰함은 헛될 것이라 조롱한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한다. 히스기야는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 따라서 교회는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다른 한편, 유다 백성의 눈에 랍사게의 일시적 후퇴의 배경에 구스 왕 디르하가의 진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십상이었다. 유다 백성들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도움을 기대하게 될 수도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전에 올라가 기도한다. 이로써 그는 유다로 하여금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약속의 성취만을 소망하게 한다.

히스기야는 당대 교회의 중보자이다. 그의 기도는 중보자의 기도를 보여주며 교회의 기도를 교훈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위해 중보하신다(롬 8:34, 히 7:25). 그리스도의 기도는 약속에 근거한 기도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신다. 약속의 성취만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신다. 능력이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도 약속에만 의지하여 기도하신다면 한없이 미천한 우리는 얼마나 더욱 그러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자.

3. 하나님의 열심(21-38)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다. 친히 앗수르에게 보복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확증한다(22-29절). 유다의 남은 자를 구원할 것이라 약속하신다(30-35절). 일찍이 주어졌던 심판과 구원의 약속은 한층 더 구체화된다. 기도하는 교회에게 한층 더 분명한 약속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앗수르를 심판하시고 유다를 구원하셨다(36-38절).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여 역사하신다.

직분자를 따라 기도하는 교회는 약속을 한층 더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한다. 나아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실제로 경험한다. 교회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교회가 온전한 직분자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교회의 양손에 들려진 무기는 말씀과 기도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양손을 붙잡아 일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며 송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

{ 기도제목 }

- 1. 경남노회 89개 교회(조직 60, 미조직 27, 기도소 2)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 2. 말씀과 기도에 힘써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 (1)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2) 맘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3)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맘으로 탄식할 때 /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4)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후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는 유다의 왕 곧 중보자였다. 그의 죽음은 교회 개혁의 불씨가 꺼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 히스기야는 교회 개혁의 지속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다.

1. 위기를 맞은 교회(1)

유다는 앗수르로부터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다. 그때, 갑자기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이는 히스기야의 범죄 때문으로 이해된다(17절). 그러므로 그의 죽음은 일종의 언약 심판인 셈이다. 직분자인 그의 어깨에는 유다의 미래가 지워졌다. 따라서 히스기야의 병듦과 회복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왕국의 문제, 곧 교회의 문제이다. 한 때 그 누구보다 신실했던 히스기야는 죄를 범하였다. 이 때문에 온 유다는 심판의 구렁텅이로 내몰렸다.

직분자의 범죄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교회의 문제이다. 직분자의 범죄는 교회의 사명 감당을 중단시킨다. 그러므로 교회는 직분자를 선출할 때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 직분자들이 세워진 후에도 교회는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목사, 장로, 집사) 범죄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기도하자.

2. 회복되는 교회(2-8)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기도한다.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하던 바를 기억해달라고 호소한다(3절). 이는 단순히 이전에 행한 공로가 있으니 죄를 용서해달라

는 요청이 아니다. 오히려 옛적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고백이요 다짐이다. 잠시 죄에 눈이 멀었지만 그는 돌이켰다. 공홀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시 51:17). 하나님께서는 진정 다윗의 하나님이셨다(삼하 7:14-15).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교회는 회복될 것이다. 앗수르에게서 건져내시며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리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한 가지 징조를 주셨다. 이는 그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증거였다.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무르게 한다는 말씀이다(8절). 참으로 자연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가 있다. 성경에서 해는 자주 권위나 한 나라의 주권을 상징한다(창 37:9-10, 사 13:10. 참고. 마 24:29, 행 2:20). 따라서 이 징조는 그의 다스림과 유다의 보존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해는 ‘증인’이 된다.

유다 왕국은 세속국가가 아니다. 이 왕국은 하나님 나라이다. 이 왕국은 신약성경에서 교회로 대체된다(벧전 2:9-10, 계 1:6). 직분자의 기도는 교회를 회복시키는 원동력이다. 우리의 참 직분자이시오, 온전한 직분자이시며, 유일한 직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가르쳐주셨다(마 6:9-13). 주기도는 교회회복과 교회개혁의 동인이다.

3. 중보자의 노래(9-22)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공홀과 죄 용서와 신실하심을 노래한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보존하심으로써 자기 왕국을 불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히스기야의 노래는 왕국의 노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리하리로다”고 했다(20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시편을 따라 찬송했다(시 22:1, 마 27:46). 죄 용서와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진 히스기야의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 교회에게도 참 중보자의 노래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죄 용서와 영생 주심이 오늘날 교회의 찬송이다(시 32편).

직분자의 범죄는 교회의 사명을 중단하게 만든다. 먼저 직분자들이 모범을 보이자. 성도들은 직분자들을 향한 비난을 멈추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해 행하신 대제사장의 기도를 배우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자.

{ 기도제목 }

1. 경남김해노회 78개 교회(조직 43, 미조직 34, 기도소 1)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2. 우리 교신교회 초창기 선배들의 회개 기도를 기억하며 회개운동이 다시 일어나도록

복음, 교회의 유일한 자랑

이사야 39장 1-8절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해

(1)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보고 /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2) 너 성결키 위해 네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네 주께 빌라 /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3) 너 성결키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4)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네 소원을 주께 다 말기어라 /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히스기야는 병들었지만 나음을 입었다. 바벨론 왕 므로다발라단이 사절을 보내어 히스기야를 축하한다. 이 과정에서 히스기야는 교만하여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과 무기를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실 것을 말씀하신다.

1. 유다, 세상의 빛이 되다(1)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낮게 하셨다. 그리고 이 무렵 앗수르 왕 산헤립으로부터 유다는 큰 승리와 구원을 얻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환하게 비추었다. 최강대국 앗수르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패배했다는 소식은 여러 나라에 빠르게 전파되었다. 이에 여러 나라는 앞 다투어 유다에 사절단과 예물을 보냈고, 히스기야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대하 32:23).

바벨론도 그러한 나라 중 하나였다. 특히 이들은 유다 땅에서 일어난 이적에 관해 물었다(대하 32:31). 이것이 앗수르의 군대로부터 얻은 승리를 가리키는지, 히스기야의 병이 나을 때 있었던 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둘 다를 의미하는지는 불명확하다. 어쨌든 본문 1절에서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바벨론 왕이 듣고 사절단과 예물을 보냈다고 한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은 바벨론 왕이 사절을 보낸 일차적 이유였을 것이다. 이즈음 히스기야가 다스린 유다 왕국은 열국이 화친을 맺을 만큼 부유했다(대하 32:27-31).

이제 유다 왕국은 이방국가가 친해지고 싶은 나라가 되었다. 유다는 세상의 빛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유다 왕국은 오늘날 교회와 같다. 교회에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넘쳐나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된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도록 하늘의

복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자.

2. 히스기야의 실수(2-4)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 므로다발라단이 보낸 사절단을 보고 크게 흡족했다. 그것이 화근이었다. 그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찼다. 바벨론은 이적에 관해 물었지만 히스기야는 궁전의 보물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고백은 없었다. 세상 보기에 그럴듯한 것으로 자랑하고자 했다. 하늘의 복음을 땅의 영광으로 대체했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 반복된다. 중세의 로마 천주교는 교황이 세속 권력의 정점에서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참으로 영광의 신학을 추구했다. 땅이 하늘을 대체했다. 오늘 날은 어떠한가? 무엇이 교회의 자랑인가? 으리으리한 예배당인가? 여느 사회복지 단체 못지않은 사회 공헌도인가? 여느 정치 집단 못지않은 권력의 힘인가? 교회의 자랑은 오직 복음이어야 한다. 우리는 땅의 정점에 서야 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이어야 한다.

3. 하나님의 징계(5-8)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어 유다를 책망하신다.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바벨론은 징계의 막대기다. 하늘을 땅으로 대체하려는 유다, 하늘을 버리고 땅의 정점에 올라서기 원한 유다는 땅의 종이 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교회의 대적이라고 여긴다.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도 아니다. 교회가 교만하여 헛된 자랑을 일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해 교회를 징계하신다. 따라서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 때, 교회는 세상과 맞서 싸우기 전에 자성해야 한다. 우리 자신이 먼저 세상과 같이 변해버린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돌아보아야 한다. 세상이 까닭 없이 교회를 대적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핍박과 공격이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라면, 교회는 그 심판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복음인가, 세상인가? 하늘인가, 땅인가? 우리 자신과 교회를 살피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자. 그러할 때 우리는 참으로 세상을 위한 복이 될 것이다.

{ 기도제목 }

1. 경남남산노회 34개 교회(조직 17, 미조직 17)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2. 복음만을 자랑함으로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31절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 (1)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 (2)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밍니다
- (3)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바라보아라
- (4)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북 이스라엘에 이어 유다도 심판 받았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선지자의 경고를 끝내 무시한 까닭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회복의 말씀을 미리 주셨다. 비록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만, 이 말씀을 붙드는 남은 자들은 회복된다.

1. 회복을 알리는 전령(1-11)

이사야 40장부터 희망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이스라엘을 포로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그러나 회복을 약속하셨다. 왕이신 그분은 먼저 포로 아래 놓인 백성에게 전령을 보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전령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것은 언약 관계를 알리는 핵심 표현 아니던가!(출 6:7) 그렇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의 회복을 알리신다. 전령은 이 기쁜 소식을 목청껏 소리 높여 알린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 받았다. 하나님을 보라. 그분은 강한 왕이시다. 자기 양떼를 구원해내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이 전령의 외침으로 시작된다(막 1:1-3).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회복하시는 왕이시다(마 1:21). 그분은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자기 집을 되찾으시는 진정 강한 왕이시다(막 3:20-30). 자기 양떼를 위하여 죽으신 선한 목자이시다(요 10:11). 왕이신 그분께서 직분자를 통해 자기 양떼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다(마 28:18-20, 행 20:28).

구원받은 우리가 잠시 낙망하고 실족할 때 우리는 마치 죄와 사망의 포로된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여기 포로 회복의 복음이 있다. 지금도 그분께서는 세우신 직분

을 통하여 포로 회복의 복음을 선포하신다. 이 복음을 붙들자.

2. 회복시키시는 왕(12-26)

세상을 창조하고 보존하시는 그분의 지혜와 권능을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우상과 그분을 빗대는 자들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한없는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재창조하시는 그분의 사역은 참으로 신비롭고 실제적이다.

창조와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어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으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누가 고발하며, 의롭다하신 분이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는가. 누구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롬 8:31-39). 시대가 어두운가? 우리와 교회가 미약한가? 이 권능의 사랑에 사로잡히자. 이 권능과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회복된다.

3. 인도하시는 왕(27-31)

이스라엘은 불평한다. 왜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신 채 침묵하시느냐고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피곤치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다. 그분의 능력을 교회에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교회는 포로 회복의 길에서 지지치 않는다. 언제나 새 힘을 얻는다. 달음질하여도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업어 인도하신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 안에서 자기 교회에게 힘주시기 때문이다(출 19:4, 신 32:11).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앙망하는 자는 이 위로를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 효력 있게 일하신다. 교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세상 끝 날까지 보존될 것이다(시 23).

포로 회복의 복음은 저 옛날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지금도 교회를 소생시키시며 그분의 품 안에 보듬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복음이다. 이 복음으로 참된 위로를 얻자. 그리고 주를 따라 힘껏 걸어가자.

{ 기도제목 }

1. 경남남부노회 85개 교회(조직 46, 미조직 37, 기도소 2)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2.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지금도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며 위로를 얻고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사야 41장 1-29절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 (1)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 (2)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 (3)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맘이 두려워서 떨 때도 /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 (4) 이 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 (후렴)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께서서는 이방국가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법정에서 세운다(1,21절). 하나님은 동방에서 한 사람을 불러 이방국가를 심판하신다. 우상들에게 증거를 보이라고 심문한다. 우상들은 증거를 보이지 못한다. 심판 중에 유다의 신실한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1. 고소당하는 이방(1-7)

히스기야 시대 최대의 강대국은 앗수르였다. 그 앗수르의 군사 십팔만 오천이 하루 밤 만에 죽었다(대하 32:1-23, 사 37:36). 산헤립은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고, 그 왕궁에서 아들에게 암살당했다. 히스기야는 교만했다(대하 32:24-26). 앗수르를 물리쳤으니 신생국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 한다. 그래서 왕궁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큰 범죄였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셨다(사 39:6-8).

앗수르는 여전히 건재하고, 바벨론은 아직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내신다고 하셨다(2절). 바로 바사(페르시아) 왕 고레스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에게 열국을 넘겨주고, 다스리게 하겠다고 말씀한다. 섬들은 두려워하며 땅 끝이 무서워 쩀다. 섬들과 땅 끝은 이방 국가들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자기 백성들, 곧 교회를 위해 역사를 움직인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자.

2. 무죄를 선고 받은 남은 자들(8-20)

앗수르가 건재한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오히려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셨

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한다. 고레스를 통한 포로회복이다(스 1장).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며, 택한 야곱이며,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8절). ‘하나님의 종’, ‘택한 야곱’, ‘아브라함 자손’은 모두 언약 용어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고 실행하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라고 했다(9절). 포로회복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했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고 함으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언한다(9절). 유다 백성들에게 노하던 자들, 유다 백성들과 타투는 자들은 모두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의 오른 손을 붙든다(13절). 험뻐한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한다. 광야에는 백향목과 식당 나무를 비롯하여 온갖 나무들이 자란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의 회복이다. 물론 이것은 포로회복을 통하여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이루실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더 풍성하게 성취된다. 신실한 남은 자들이 되자. 우리 고신교회는 신사참배의 우상숭배에서 신실한 남은 자의 후손들이다. 이 유산을 잊지 말자.

3. 고소당하는 우상들(21-29)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증명해 보라고 한다. 무엇을 증명하라는 말인가? 신임을 증명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장래 일과 이전 일을 말하고,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해 보라고 고소한다(22-23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북방에서 일으키셔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 같이 밟을 것이라고 하셨다. 이는 페르시아를 일으켜 바벨론을 정복할 것이라는 예언이다. 동시에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 우상숭배의 자리로 자주 넘어가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동시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다. 나와 교회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지 돌아보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방국가의 흥망 성쇠를 결정하시고 집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교회를 치는 막대기로 삼으시며, 때론 일시적인 보호자의 역할도 맡긴다. 성도와 교회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해야 한다.

{ 기도제목 }

1. 경남마산노회 75개 교회(조직 46, 미조직 22, 기도소 7)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2.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흙이 금이 되다(삿 11:1-7)

소재운·목사(대구샘물교회)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의미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사사기에서는 그 이유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고 대신에 각자의 생각대로 행하였기에 항상 죄에 노출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그 사사들 가운데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다는 기생이 낳은 서자 출신입니다. 당연히 집에서 멸시를 받고 자라다가 결국 가족들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가족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출신조차도 형편없는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더더구나 그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생활하였다고 하니 그의 주변에는 항상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열악한 환경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의 고향 길르앗 땅이 암몬이라는 나라에 의해 위기를 맞이하게 되자 그곳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었고 입다는 장로들의 부탁을 따라 암몬 나라를 크게 이기고 길르앗을 구하여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데 입다의 경우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영웅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생각해보면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환경과 주변 여건에 영향을 받아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여건을 탓하거나 주변의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사 입다를 생각해 보면 최악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최선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드신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자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돌아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 (1)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 금 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2)
- (2)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 네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2)
- (3)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2)
- (4)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2) 아멘

본 장은 이사야의 ‘종의 노래’ 중 첫째 내용이다(49:1-13, 50:4-9, 52:13-53:12). 메시아의 사역을 소개함으로 포로회복과 구원을 선언한다. 메시아의 사역은 복음이다. 그 복음이 이방지역에까지 전파된다. 복음을 들은 이방은 찬양한다. 하지만 나라의 본 백성들은 여전히 완악한 모습을 유지한다.

1. 메시아의 사역(1-9)

이사야서에는 여러 하나님의 종이 있다. 이사야(사 20:3), 엘리야김(사 22:20), 다윗(사 37:35), 이스라엘 백성들(사 41:8, 44:1, 45:4), 메시아(42:1, 49:6)이다. 하나님의 종은 언약 백성들 전체와 그 직분자들 그리고 메시아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종이 언약 백성들이며, 그 언약 백성들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 백성들을 대표하는 분이시다(호 11:1, 마 2:15). 따라서 종에 대한 예언들을 무조건 예수님에게 적용하기보다 언약 백성들을 통해 일차적으로 성취되고, 메시아를 통하여 더 완전하게 성취된다고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종, 그 마음에 기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마 3:16). 그 분은 언약한 우리를 멸시하거나 버리지 않으셨다. 앗수르의 잔인한 왕들처럼 사람들을 짓밟고 무시하지 않으신다. 바벨론의 무자비한 인간 정복자들처럼 군림하지 않으신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온유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며,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억울하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는 분이시다. 사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밟으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골 1:15, 히 1:3). 그

분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생명의 근원이다.

2. 이방이여 찬양하라(10-17)

선지자는 이방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한다.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 계달과 셀라의 주민들에게 노래하라고 한다. 하나님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숨이 찰 정도로 급히 부르짖는다. 산과 언덕, 초목과 강들과 못들이 여호와와 구원의 소식을 막지 못한다(15절). 눈먼 자들을 이끌어 내어 빛을 보게 하신다. 굵은 데를 곧게 하신다. 우상숭배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17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방들은 복음을 듣고 찬양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시험하러 왔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다(왕상 10:1-10). 그러나 북 이스라엘은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참 여호와와 종인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에 빛을 비추신다. 이제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찬양하도록 해야 한다. 이 사명에 충실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나 자신을 돌아보자.

3. 완악한 본 백성들(18-25)

이방이 찬양하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유다의 백성들은 귀머거리 눈먼 자가 된다(18절). 이들보다 더 귀가 막히고 눈이 먼 사람들은 없다(19절). 실로 이사야의 소명이 기억난다(사 6:9-10). 백성들은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한다(22,24절).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약탈자들에게 그들을 넘기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며 마음에 두지 않는다(25절).

이사야의 예언 후에 누가 우상숭배 자이며 완악한 자들인지 밝혀진다. 신실한 백성들은 선지자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나 완악한 자들은 선지자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렘 24:1-10, 29:4-14).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용하여 교회를 징계하실 때, 그것을 징계로 받는 것이 참 성도의 자세이다.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 우리는 완악한 백성들이 되지 말자.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임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 그곳에서 교회의 회복이 시작된다.

{ 기도제목 }

1. 경남서부노회 80개 교회(조직 29, 미조직 47, 기도소 4)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2.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찬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1)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3)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도다 아멘

히스기야 시대는 유다 왕국이 개혁의 깃발 아래 뚝뚝 무친 시대였다. 이후 므낫세의 55년 통치는 히스기야의 개혁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셨다. 본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시적으로 보여준다.

1. 너는 내 것이라(1-7)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을 선포하신다. 창조 때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신다.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빚으셨다(창 1:27, 2:7). 유다 백성들은 새 창조물이 되었다. 또한 출애굽 이미지를 사용하여 언약 백성의 복됨을 선포한다. 물을 지나고 강을 건널 때 함께 하신다.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 않는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고 하셨다(출 19:5). ‘소유’는 보배라는 뜻이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4절) 보배로운 백성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으신다. 곧 포로에서의 회복이다(5-6절).

이 말씀은 보고 또 보아도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 지금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해도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붙들자.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8-21)

눈이 멀고 귀가 막힌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증인으로 세운다. 그들이 증인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자리에 선다.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12절).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왕이시다. 과거 출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오히려 작게 여겨진다(16-17절).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다.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다(18절).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며,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한다.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들이 마시게 한다. 포로회복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인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진 포로회복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이다. 여호와와 고난 받는 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완성하신다. 진정한 포로회복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생명의 나라로 옮김이다. 우리는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역사를 헤아려 보라. 얼마나 감사한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생각하며 그 분을 찬송할 따름이다. 할렐루야!

3. 눈과 귀를 막은 백성들(22-28)

사랑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새 창조물로 만드셨다. 그들을 증인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라 약속하셨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오히려 괴롭게 한다. 얼마나 고집스러운 모습인가. 은혜를 보여주어도 은혜인지 모르고, 징계를 해도 징계인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의 모습. 참으로 이방인보다 못한 교회의 모습이다.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27절).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은 그들의 조상을 닮았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야곱이 진멸 당하도록, 이스라엘이 비방 거리가 되게 하신다(28절).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고 하셨다(마 23:32).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셨다(마 23:37-38).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엄청나다.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열방의 비방거리가 되었다. 지금 우리는 어느 편에 있는가?

{ 기도제목 }

1. 경남중부노회 59개 교회(조직 29, 미조직 26, 기도소 4)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2.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이 시대에 우리 교신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목 놓아 백성을 부르시는 여호와

이사야 44장 1-28절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 (1)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 (2)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 (3)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 (4)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 (후렴) 주 앞에 내가 없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간절히 자기 백성들에게 호소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모태에서부터 짓지 않았느냐고 하신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다. 파괴된 예루살렘이 재건된다고 하신다.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만 예배하자.

1.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수룬아(1-8)

언약 백성들을 반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집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성령을 자손들에게, 복을 후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 자랑이 되도록 만드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을 두려워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비참한가! 바로 그 백성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수룬아’라고 부르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지 않는가?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백성을 위해 모든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세상의 좋아 보이는 것들에게 걸눈질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신다.

2. 허망한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9-20)

우상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상은 대장장이들이 숯불로 일하며 망치로 만든다. 철공들

역시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한 인간이다. 또한 우상은 목공이 나무로 조각을 해서 만드는 허망한 것이다. 그들은 같은 나무를 가지고 어떤 것은 뿔감으로 삼고, 남은 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기도 한다(15절). 어떻게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러지 못한다.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사 6:9-10, 행 28:26-28).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지도 못하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도 못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을 기억해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된다. 투기의 우상이 북문 가까이 세워졌다. 장로 70명이 성전 방 사면에 가증한 짐승과 우상을 그려놓고 향로를 들고 예배한다. 여자들이 담무스를 만들어 섬긴다. 성전 앞 계단에서 25명이 동방 태양에게 경배한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다(겔 8장).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다. 바로 언약 백성들이었다. 교회가 이렇게 우상을 섬겼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무엇인가?

3. 창조자요 구속자이신 여호와(21-28)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향하여 “너는 내 종이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드신 분이다. 허물과 죄를 제거하신다(22절). 언약의 두 증인인 하늘과 땅을 불러 노래하라고 명한다. 우상숭배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그들을 미치게 하고,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신다.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살며, 유다 성읍들은 다시 중건된다. 하나님의 목자 고레스를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28절).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상숭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신실한 남은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 명이 남았다. 평양에 모인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국가의례라 결정하며, 우상을 섬길 때, 우리 고신교회의 선배들은 감옥과 고난의 길을 선택한 신실한 남은 자들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다. 실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재창조하시는 분이요, 구원하시는 구속주이시다.

자기 백성을 목 놓아 부르시는 하나님. 그 백성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친절히 가르치시는 하나님. 돌아오면 교회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자. 그곳이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다.

{ 기도제목 }

1. 경남진주노회 101개 교회(조직 49, 미조직 51, 기도소 1)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2. 목 놓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성도가 되도록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이사야 45장 1-25절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 (1)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 (2) 나의 갈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 (3)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 (4)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 황금길 따라 나아가 찬송하네
 - (5)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 (후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2)

본문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는 선언이 반복된다(5,6,14,18, 21,22). 실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분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회복시키신다. 그분은 창조주이시오 구원주이시기도 하다. 1계명을 기억하자.

1.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1-8)

고레스는 이사야 44장 28절부터 직접적으로 언급된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자였다. 곧 메시아다. 이렇게 이방 국가는 때때로 교회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막대기이기도 하지만 구원자가 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오른 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이 항복하게 하신다(1절).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보다 앞서 가서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늦 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보화와 재물을 얻게 하신다(2-3절).

왜 하나님은 고레스를 이렇게 높이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다. 하나님의 종 야곱, 택한 백성 이스라엘 때문이다(4절). 얼마나 신비로운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의 왕을 사용하셨다. 빛과 어두움, 평안과 환난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이방인도, 약속의 백성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세속 정부와 국가를 사용하신다. 겉으로 보기에 세속 국가의 힘이 강력하고 두렵게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이다.

2. 창조주이시오 구원주이신 하나님(9-19)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강대국 앗수르가 침공(2차 공격)했을 때 군사 십팔만을 죽여 승리했다(왕하 19:35-37). 바벨론은 아직 미미한 존재이다. 더욱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니. 그러한 국제 정세에서 바사의 고레스가 메시아처럼 여겨지니 얼마나 당황스러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일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가르치셨다.

어떻게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고 말할 수 있느냐?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항거할 수 있느냐고 되물으셨다.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12절). 하나님께서 그(고레스)를 일으키셨고(13절) 하나님의 백성을 값없이 놓아 줄 것이라고 하셨다. 한걸음 더 나아가 애굽과 구스와 스바가 복종할 것을 예고하신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3.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20-25)

유대인의 구원은 세계 만민의 구원과도 연결된다. 유다 왕국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출 19:4-6).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가? 이방에 대한 구원의 통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다. 먼저는 가까운 애굽과 구스와 스바가 회개하고(14-17) 그 후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온다(20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는 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마 28:19-20). 공의와 힘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24절).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한다(25절).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여호와 그분만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포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고레스를 사용하셨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방인까지도 불러 구원하신다. 교회는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고백의 실질이 있는지 살피야 한다. 우리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실질이 있는가?

{ 기도제목 }

1. 경북동부교회 72개 교회(조직 32, 미조직 37, 기도소 3)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2.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고백이 나와 우리 교회에 울려 퍼지며, 이 고백의 열매가 삶에서 풍성히 맺히도록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 옛 선지자 예복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걸겠네
 (후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히스기야 이후 점점 우상숭배자들이 되어 간다. 이를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다. 그러나 백성들은 우상에게 결눈질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영원토록 품어주신다. 뿐만 아니라 패역하고 완악한 백성들을 향해 권면을 아끼지 않으신다.

1. 바벨론 우상을 제거하시는 하나님(1-2)

벨은 벨-마르둑으로 불리기도 했다. 느보는 벨의 아들로 학문과 저술의 신이다. 두 신은 바벨론을 지탱하는 최고의 신이었다. “엎드러졌고”, “구부러졌다”는 말씀은 꼬꾸라지고 넘어졌다는 뜻으로 완전한 패배와 굴복을 의미한다. 경배의 대상이던 신들이 가축에 실린 짐처럼 되었다.

이 말씀은 언약 백성들 때문에 주어졌다. 히스기야 왕 때에 북 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멸망했다. 북 이스라엘은 벨엘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다(왕상 12:25-33). 아합 때에는 바알(벨)과 아세라도 섬겼다(왕상 16:31-33). 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물록을 섬겼고, 심지어 다메섹에서 본 제단을 성전에 설치했다(왕하 16:3, 10-16).

오늘날 교회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돈, 명예, 성공, 자녀, 직업과 권력.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지 하나님 위에 두면 안 된다.

2. 맹세를 지키시는 하나님(3-7)

이제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말씀한다. 남은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그루터기이며,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산 이들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자기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심이다. 가나안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율법과 성막을 통하여 하늘 왕국을 땅 위에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늘 배반했고, 파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선언한다. ‘너희는 나와 맺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지만 나는 너희와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너희가 “내게 안겼고”, “내게 얽힌 너희여”라고 했다(3절). 이들을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품고 업을 것이라 하셨다.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맹세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3. 인내하시며 권면하시는 하나님(8-13)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패역한 자들”(8절)과 “마음이 완악하고 공의에서 멀리 떠난”(12절) 자들에게도 권면하신다. “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은 ‘사람’이나 ‘남자’를 뜻하는 단어의 동사형으로 재귀 명령형이다. 곧 ‘스스로 사람이 되라’이다. 무슨 말인가? ‘사람 구실을 하라’는 뜻이다. 첫 사람 아담이 받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라는 바로 그 사명. 곧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을 완수하라는 권면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주었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선언하신다(10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고 하신다(13절). 완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이루겠다고 선언하신다.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고신교회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자.

가장 강력한 강대국의 신을 파괴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한 남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완악한 자들에게도 말씀하신다. 계획한대로 다 이루겠다고 하신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10). 아멘!

{ 기도제목 }

1. 경복서부노회 61개 교회(조직 27, 미조직 34)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2.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이루실 때에 쓰임 받는 성도, 교회, 고신교회가 되도록

처녀 딸 바벨론에 대한 경고

이사야 47장 1-15절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1)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 내 친구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2)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주소서 /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3)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4)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 가리니 /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그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은(45장)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을 제거하신다(46장). 이어 본 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근본 이유를 알려준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백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고대 근동지역을 통치했다(B.C 626-530).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 백성을 치는 막대기의 역할에서 더 지나쳤다. 그것이 그 왕국의 멸망 원인이었다.

1. 바벨론의 범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1-7)

하나님께서서는 바벨론을 향하여 티끌에 앉고,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고 경고하신다. 처녀의 아름다움을 가진 바벨론의 모습은 사라진다. 여러 왕국의 여주인으로 추앙받던 바벨론의 영광도 사라진다.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며 강을 건너야 하는, 도망하는 여자의 모습이다. 처녀 딸의 모습이 아니라 맷돌을 돌리는 추한 종의 모습이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인 언약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 잠시 바벨론에게 넘겨주었다. 바벨론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회초리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겨받은 바벨론은 회초리가 아니라 살인 무기처럼 행세했다(6절).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보다 더 강한 힘을 사용했다.

하나님께서서는 가끔 자기 백성인 교회를 징계하기 위해 이방 국가에게 넘겨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언약의 저주라 한다(레 26:17-18, 33-34). 다니엘은 제국들이 언약 백성을 지속적으로 통치할 것을 계시 받았다(단 2:31-45, 7:1-22, 11장). 회초리 역할을 받은 바벨론은 착각했다. 회초리가 아니라 살인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원리로 세상을 다스린다.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 정부의 핍박을 받게 한다. 그러나 세상 정부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만큼만 힘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부를 무너뜨린다. 교회가 하나님의 징계로 세속 권세에 넘겨지지 않도록 기도하자. 세속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앉지 않도록 기도하자.

2. 교만한 왕국 바벨론을 징계하시는 하나님(8-15)

여러 왕국의 여주인처럼 행세하던 바벨론은 교만했다. 사치하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했다.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고 했다(8절).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으신다. 자녀도 잃고 남편도 잃어 과부가 될 것이라 하셨다(9절).

바벨론 왕국은 자신의 힘을 의지했다.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자신들을 지킬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고 했다(10절). 바벨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힘의 원천으로 생각하던 지혜와 지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술’과 ‘주문’이다. 주술과 주문은 일종의 신탁이면서 그 당대에는 천문학이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이라 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며 연구하는 일은 당대에 가장 발달한 학문이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라 말씀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의 힘이다. 기술의 힘이다. 그 힘을 믿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교만히 말한다(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다.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11절). 바벨론이 의지하던 지혜와 지식을 제공한 자들에게 자기에게 임할 그 심판에서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라 말씀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불로 태우시겠다고 말씀하신다(14절). 결국 아무도 바벨론을 구원할 자가 없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세상은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았는데 교회를 과도하게 억압하거나 핍박하면 그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무너진다. 교회도, 세상도,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 기도제목 }

1. 경북중부교회 68개 교회(조직 29, 미조직 32, 기도소 7)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2. 교회와 세속정부가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사야 48장 1-22절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 (1)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 (2)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 (3)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말기고 / 네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라
- (후렴) 바치어라 네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다. 본문에는 12번이나 들으라고 말씀하셨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행하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을 파기하는 백성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 일을 그들에게 행하신다.

1. 듣기를 거부한 백성들(1-11)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도 없고 의로움도 없는 자들이다. 스스로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하며,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이 가식이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옛적부터 말씀으로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래 전부터 알려주었는가? 자신들이 만들고 섬기는 우상이 그 일을 행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즉 그들의 거짓된 입을 막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전부터 알려주었다고 하셨다. 그러니 그들의 목은 쇠의 힘줄이요 이마는 놋이다. 얼마나 뻔뻔한가.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일 곧 그 백성들이 듣지 못한 은밀한 일을 이제 알려주겠다고 하신다(6절).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짓말을 못하도록 이제야 알려주려 한다. 그 새 일은 무엇인가?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노하기를 더디 하며, 멸절하지 않으며, 연단하여 풀무 불에서 택하시는 것이다(9-10절). 곧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이다.

2. 들려주시는 하나님(12-16).

새 일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부르신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12절).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하나님은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소개한다. 실로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면서 종말의 심판주이시다. 하나님의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하늘과 땅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창 1:1). 피조물은 창조주의 명령에 일제히 복종한다.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새 일의 구체적 내용을 들려주신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를 불러 그로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한다(14절). 곧 고레스가 행할 일을 알려준다(사 44:28-45:1-4).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들인가? 혹 듣기를 거부하는 백성들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와 우리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의 증거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일 듣기를 거부하고, 보기를 즐겨하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은 아닌가? 깊이 성찰해야 한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는 성도들이 되자.

3. 들려 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17-22).

자기 백성들의 구속자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셨다(17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과 복의 근원,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창 12:1-9). 같은 내용으로 시내 산에 이른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으셨다(출 19-24장).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했다면 이 모든 언약이 다 이루어졌을 것이다.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알 같아서”(18-19).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옛적 출애굽처럼 포로에서의 회복을 선언하신다(20-21절). 더 감격스러운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땅 끝까지 반포하라고 하셨다. 교회는 이 사명을 받았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한다.

우리는 듣기를 거부한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를수록 더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 기도제목 }

1. 대구동부노회 62개 교회(조직 32, 미조직 23, 기도소 7)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2.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

박윤배 장로(대구불꽃교회,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큰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것이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신앙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을 제대로 갖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다들 동의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주신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기여하도록 양육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신 것은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요즘 통계를 보면 모태신앙의 자녀들조차 청소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학을 가면서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경우가 많다. 서구의 기독교가 몰락한 추세를 우리가 따라간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자녀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도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에게 평생 고통스러운 일이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예배(경건회)라고 생각한다. 유아시절부터 규칙적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은 가정예배를 통해서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부모는 자녀들이 신앙을 가진 친구들과 사귀도록 도와주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도와주고, 말씀의 바탕 위에 인생의 비전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자녀들의 교육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가 신앙교육에 기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정과 교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의 학교 교육은 기독교 신앙교육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진행

되고 있어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학교에서는 창조를 부정하고 진화론을 가르친다. 동성애 동성혼의 합법화, 다수가 힘을 모아 소수의 가진 것을 빼앗아야 한다는 계급투쟁 논리,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포스트 모던 사상, 무신론에 기반한 물질(황금)만능주의 사상 등 반기독교적 가치들이 당연시되는 교육을 받는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학교교육을 시키지 않을 수도 없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기에 정서와 인격의 교육,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기독교 신앙에 기반하여 교육하는 기독교 학교가 필요한 것이다. 기존의 미션스쿨들은 공립학교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일부 기독교 대학안학교들은 성경 읽기와 성경을 암송하는 정도이며, 외국어를 습득하여 해외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독교 세계관과 그에 바탕을 둔 학문의 습득, 세상에서 성경적 대안 실천을 위한 준비 등의 교육을 하는 기독교 학교가 절실히 필요하다. 여건이 되는 교회에서는 자체로 이런 기독교 학교를 설치 운영하면 좋고, 최소한 노회별로 이런 기독교 학교를 한 개씩은 운영하여 위기에 빠진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신앙교육이 자리를 잡으면 이를 통해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도 회복될 수 있으며 교회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 다음 세대의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참 구원자이신 여호와와 종

이사야 49장 1-26절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 (1)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 아버지께서 날 지켜 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2)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3)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후렴)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뉘노 /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43장부터 48장까지 고레스는 바벨론을 함락시키는 구원자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자는 고레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 구원자는 고난 받는 종이신 메시아이시다(사 42:1-9). 49장부터 고난 받는 종인 메시아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그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려준다. 그러나 언약 백성들은 여전히 의심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의심에 친절히 답변하신다.

1. 이방의 빛이신 고난 받는 종(1-7)

선지자는 “섬들이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라”고 외친다. 섬들은 먼 곳 백성들이다. 곧 이방을 의미한다. 고난 받는 종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출생부터 특별하다(사 7:14, 마 1:18, 눅 1:26-38). 예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이요 화살통의 화살이다(마 4:10, 7:28-29, 23장, 눅 10:18, 13:15-17, 엡 6:17).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참 이스라엘이시다(요 12:23-28). 예수님의 삶은 헛되이 수고하고 공연히 힘을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로부터 끊임없이 핍박과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원하셨고, 보유했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고난 받는 여호와와 종이신 메시아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 야곱의 지파들과 이스라엘 중 남은 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마 10:5-6). 자기 백성들 중에 남은 자를 구원하는데 머물지 않으신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 되셨다(6절). 여호와와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신다. 교회는 이 사명을 이어간다.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

2. 새 나라를 건설하는 고난 받는 종(8-13)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하셨다(8절).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주의 은혜의 해에 대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셨다(눅 4:16-21). 예수님은 실로 백성의 언약이 되셨다(히 9:11-22). 고난 받는 종은 새 나라를 건설한다.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8절).

메시아는 사단에게 잡힌 자들과 흑암에 있는 이들을 불러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새로운 에덴동산을 만드신다. 험벗은 산에 풀밭이 생긴다.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사 55:1, 마 5:6, 요 4:14, 7:37-38). 그 나라로 동서 남북 사방에서 백성들이 몰려온다. 언약의 증인인 하늘과 땅이 기뻐한다. 고난 받는 종이신 메시아,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셨다. 교회는 메시아가 만든 새로운 나라이다.

3. 의심하는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와 답변(14-26)

메시아를 통한 이방인의 구원과 새 나라 건설에 대한 여호와와 말씀에 유다 백성들은 의심한다(14절).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한다. 말씀을 더디 믿는 미련한 백성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절하게 답변한다. 어머니가 어찌 자식을 잊겠느냐고 하신다(15절). 그리고 의심할 수 없도록 확증을 주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16절). 이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다. 여호와와는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사방에서 백성들이 모여든다. 살고 있는 성읍이 너무 좁아 더 넓히자 한다. 대적들은 물러난다. 이방의 왕들은 성도들의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유모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권세자들로부터 절을 받는다. 의심하여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말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새 시대, 새 나라의 주인공이 되자.

여호와와 고난 받는 종이신 예수님은 사방에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셨다. 고레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다. 교회는 메시아가 건설한 새 나라의 백성들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방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자.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

{ 기도제목 }

1. 대구서부노회 68개 교회(조직 37, 미조직 26, 기도소 5)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2.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다시 세상의 빛이 되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사야 50장 1-11절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 옛 선지자 예복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후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배반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며 배반하여 자기의 길로 갔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어떻게 위로할지, 어떻게 도움을 주며 구원할지 염려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우리 교회 곁에서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1. 백성들의 원망과 하나님의 답변(1-3)

북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유다도 언젠가 포로가 된다.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팔지 않으셨다. 그들을 배반하지 않으셨다. 이혼증서를 써 준적도 없고 채주에게 팔지도 않으셨다. 단지 백성들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팔렸고 배역함으로 내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을 내 보낸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마르게도 하시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여 물고기들을 죽게 하시는 분이시다(2절).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2절).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이 되지 말자. 우리가 잘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에 옳되 거기에 징계를 받자.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지혜로운 성도와 교회가 되자.

2. 완악한 백성들을 위해 준비된 여호와와 의 종(4-9)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팔려갈 것을 예언했다. 백성들에게 이

소식은 정말 끔찍한 소식이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고 황폐하게 될 수 있는가. 낙담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준비하셨다. 메시아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신다(4절). 학자의 혀는 ‘잘 교육 받은 혀’로 예수님의 능력 있는 가르침을 의미한다(마 13:54, 눅 4:32,36). 또한 그 종에게 학자 같이 알아듣도록 귀를 여셨다(5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백성들에게 말하신다(요 8:25-30). 그분은 기꺼이 고난도 받는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뱀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6절, 마 26:67-68, 27:29-30). 고난 받는 종,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8절)라고 말씀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9절)라고 말씀하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심판 받는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중보자, 고난 받는 종을 예비하셨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지독한가. 세상에 누가 이 사랑을 가졌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자. 기억하자.

3. 두 부류의 백성들(10-11)

완악한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학자의 혀와 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은 대로 가르칠 분을 예비하셨다. 기꺼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실 중보자를 준비하셨다. 이제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하여 선택하라고 말씀한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주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고 묻는다. 주님의 종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든 자들은 고통이 있는 곳에 눕는다. 참으로 예수님은 횃불을 든 자들에게 잡혔고, 재판 받아 매질을 당했으며, 조롱과 저주 가운데 죽음의 길을 가셨다. 그러나 주님을 죽인 그들이 화를 당한다(마 23:29-39).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한 번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배반자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과 보내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지만 오히려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부끄러움을 당했다. 하지만 참고 견디었다. 나와 우리 교회, 우리 교신교회는 이 사랑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이들이 되자.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자.

{ 기도제목 }

- 부산노회 85개 교회(조직 52, 미조직 14, 기도소 19)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가 되도록

예루살렘을 향한 위로 이사야 51장 1-23절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 (1)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 하시네
- (2) 도우시는 하나님이 네게 그늘 되시니 /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네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선지자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며 회복을 예언한다. 지금 백성들의 처지는 비참하고 절망적이다. 그러나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소망을 약속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기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1. 너희는 들어라(1-8)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신다(1절). 그분은 막힌 태를 여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손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사막과 광야를 에덴과 동산 같이 만드신 하나님이시다(2-3절). 바로 그분께서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가 샘솟게 할 것이다(3절).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공의로 열방을 심판하시며 구원하실 것이다(4-6절). 하나님의 백성들, 곧 의를 아는 자들은 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4, 7절). 이 약속을 듣는 자들을 대적들의 비방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7-8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고 또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비참과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회복은 우리 주님의 전매특허이다. 그분께서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끝내셨고,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이 회복의 약속은 오늘날의 교회에게도 적용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자. 여호와를 찾고 구하며 그분의 율법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위로를 약속하신다. 비록 교회의 앞날이 어두워보일지라도, 위로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정녕 위로를 받을 것이다.

2. 여호와여 깨움소서(9-16)

백성들은 마치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우는 것처럼 간청한다. 출애굽의 하나님께 왜 가만히 계신지를 질문한다(9-10절). 오직 여호와께서 구속하시기를 갈망한다. 구속 받은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와 슬픔 대신 기쁨을 즐기게 될 것을 기대한다(11절).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위로자로 소개하시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12-14절). 부르짖는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다시 불러주신다(16절).

큰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는 위로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부르짖자. 그분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를 내 백성이라 다시 부르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려두고 줄지 아니하신다.

3.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17-23)

하나님께서 도리어 예루살렘을 깨우신다. 백성들은 분노의 잔을 받고 비틀거리고 있다(17절). 그 누구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18절).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만이 가득하고 위로가 없으며 후손들은 그저 길거리에 누워있을 뿐이다(19-20절).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신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분노의 잔을 물러가게 하신다(21-22절). 오히려 분노의 잔을 이방 국가에게 쏟아 부으실 것이다(23절).

우리의 죄악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포로 귀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친히 대적인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다시 깨어난다. 우리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께로 가자. 우리는 무기력하나 예수님께서서는 큰 능력이 있으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적인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고, 사단을 완전히 정복할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만이 위로를 얻는다.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구원을 증거한다. 죄와 사망에 갇힌 교회의 미래가 절망적인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회복을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 위에서 회복을 경험하자. 무능력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늘 구원해 오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 기도제목 }

- 1. 부산남부노회 64개 교회(조직 37, 미조직 27)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 2. 교회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만 회복된다는 약속을 확신하며 위로를 얻도록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 (1)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 (2)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보던 하늘나라 /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 (3)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선지자는 시온의 회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가증한 백성들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되돌아오실 것이다. 진노와 심판 아래서 포로로 사로잡혔던 백성들도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회복은 여호와와의 종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1. 시온에 올려 퍼지는 복된 소식(1-2, 7-10)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시온을 깨우신다.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시며 목줄을 푸시고 정결한 백성으로 일으켜 세우신다(1-2절). 이것은 참된 평화와 구원의 소식이다(7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며 백성들과 교제를 시작하신다(8절). 예루살렘은 여호와와의 위로와 구속을 경험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9절). 이 복된 소식은 열방에 까지 이른다(10절).

죄를 미워하시는 여호와께서는 가증한 백성들을 떠나셨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시는 것은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셨다(마 1:21, 23). 예수님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옷을 입은 정결한 교회가 탄생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교회에 방문하신다. 주일 공예배 중에 설교와 세례와 성찬으로 우리와 만나신다. 장로의 심방을 통하여 가까호호 친히 백성들을 찾아가신다. 이 복된 소식이 우리 안에서 항상 울려 퍼지는가? 이 소식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2. 시온으로 돌아오는 백성들(3-6, 11-12)

시온은 자기 죄 때문에 징계 받았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제 시온이 까닭 없이 잡

혀갔다고 말씀하신다(5절). 징계의 시간은 끝났다.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된 이방 국가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4-5절).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언약 백성들을 포로에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정결하게 하신다(6, 11절). 여호와께서 백성의 앞뒤에서 호위하심으로 포로 귀환을 당당하게 시행하신다(12절).

하나님의 돌아오심과 백성들의 돌아옴은 별개의 일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오시기에, 교회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 방문에 믿음으로 화답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야 마땅하지 않은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다시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주일 공예배에서부터 먼저 주님을 만나자. 바로 그 자리에서 사죄의 선포가 울려 퍼진다. 날마다 예수님 품으로 되돌아가 죄 용서를 누리고 확신하며 정결한 백성으로 다시 서자.

3. 시온을 위한 여호와의 종의 섬김(13-15)

선지자는 시온의 회복을 노래하며 곧이어 다시금 고난 받는 종을 노래한다. 여호와와의 종의 섬김은 53장에서 본격적으로 묘사된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놀라고 깨닫는다는 점이다(15절). 즉, 여호와와의 종이 상하게 됨으로 시온이 회복된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만 비로소 세워진다. 시작부터 끝까지 종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건설하신다. 자기 백성을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섬김은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섬기고 계신다. 왕으로서 교회를 통치하신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지금 곧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분의 섬김을 의지하는 교회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땅 위에 찾아오셨다. 그분 덕분에 교회가 세워졌고, 보존된다. 교회 회복의 복된 소식은 지금도 항상 울려 퍼진다.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분의 섬김을 의지하자. 죄와 사망 중에 징계 받을지라도,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선다.

{ 기도제목 }

- 1. 부산동부교회 54개 교회(조직 38, 미조직 13, 기도소 3)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 2. 나와 교회가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섬김을 의지하며 참된 회복을 경험하도록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1-12절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 (1)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 (2)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열린 믿음이 아옵나니 /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 (3)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뉘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 (4)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시온의 회복은 여호와와 종의 섬김으로 이루어진다. 이 섬김의 핵심은 고난이다. 여호와의 고난 받는 종은 낮은 자리에 오셔서 백성들을 대신해 형벌을 받으신다. 그분의 섬김을 통해 시온을 향한 구속이 성취된다. 여호와와 종의 섬김이 없이는 시온의 회복도 없다.

1. 우리를 위해 비천하게 오신 그리스도(1-3)

여호와와 종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다(2절). 그 분께서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셨고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3절). 여호와와 종은 시온의 회복을 위해 오셨으나 백성들은 그분을 부당히 대우한다. 그러나 고난 받으시는 종은 시온을 위하여 기꺼이 비천한 대우를 감수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와 같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빌 2:6).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를 낮추시며 끝까지 복종하셨다(빌 2:7-8). 정녕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찾아오셨다. 그분의 사랑을 보라. 그분의 섬김을 보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없이는 교회의 회복도, 우리의 구원도 없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꺼이 비천함을 감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섬기고 계신다.

2.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신 그리스도(4-9)

계속하여 선지자는 종이 우리 대신 받으시는 형벌을 노래한다. 그 종은 백성의 질고와 백성의 슬픔을 감당하신다(4절). 백성들은 그분께서 마땅히 징벌 받는다고 생각하

나, 실상 종은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찢리고 상하셨다(5절). 백성들은 모두가 다 죄악을 따라 행할 뿐이었으나,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죄악을 종에게 담당시키셨다(6절). 결국 종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으로서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7-8절). 종은 정녕 무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 대신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과 허물을 짊어지고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8-9절).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를 위한 대속적 고난이다. 예수님은 정녕 무죄하시나 우리 대신 죄인처럼 여김 받으셨다(고후 5:21).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의 삶과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감당하셨다. 이 희생과 섬김을 보라. 우리를 양자 삼으시려고 독생자에게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기독교의 비밀과 우리 신앙의 뿌리가 바로 이곳에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터 위에 세워졌다.

3.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10-12)

종은 제사로 드러지는 제물과도 같다. 종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 여호와와 기쁘신 뜻을 성취하신다(10절). 종은 친히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시며 그들을 의롭게 만드신다(11절). 하나님께서도 종의 섬김에 화답하신다. 결국 종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전리품을 획득하신다. 그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 받으사 사망에 이르시기에 정녕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12절).

교회를 위해 섬기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이 드셨다(빌 2:9-11).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의로움도 교회를 위한 선물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의로움을 얻어 우리에게 나누신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 받고 의로움을 덧입는다. 이것이 바로 종의 섬김의 결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성취하신 구속이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섬김을 기억하자. 이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고난이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섬김이다. 희생과 섬김은 교회의 근본적인 가치이다. 받은 희생과 섬김을 한껏 누리자. 그리고 의로운 공동체로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희생과 섬김을 감당하자.

{ 기도제목 }

1. 부산서부노회 68개 교회(조직 38, 미조직 25, 기도소 5)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2.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면서 의로운 종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사야 54장 1-17절

찬송가 323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 (1)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 (2)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 소름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 없이 드리리다 /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 없이 드리리다
- (3)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회복을 약속하신다. 사랑 받는 백성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그려진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내가 될 것이다. 또한 백성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광스럽고 견고한 성읍이 될 것이다.

1. 구속자의 신부인 교회(1-10)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은 놀랍고도 기이하다(1절). 과부인 시온의 수치를 제거하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녀의 남편이 되어 주신다(4-5절). 앞서서 시온은 그 죄악 때문에 진노를 받고 과부가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긍휼을 베푸시며 징계 받은 아내를 자신의 품으로 되돌려 놓으신다(7-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배교했던 아내 시온을 다시 새 신부로 맞아들이신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리라 하셨던 맹세처럼, 남편이신 여호와께서 아내를 책망치 않으며 영원토록 긍휼이 여기리라 약속하신다(9-10절). 이것이 바로 아내인 시온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구약 교회는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징계를 받았다. 남편이신 우리 주님께서서는 아내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되돌려 자기 품에 품으셨다. 이 징계는 아내를 정결케 하는 과정이었기에 시작도 남편의 사랑이요 마지막도 남편의 사랑이었다.

오늘날의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엡 5:25, 31-32). 우리는 이 사랑을 정녕 아는가?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을 모르는 아내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 외간 남자에게 눈길을 돌리며 예수님의 품을 떠나려고 발버둥 칠 것이다. 사탄의 정죄와 고소에 빠져 우리 자신을 혐오하기에만 바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 나아가 사랑 받는 아내로서 정절을 지키자. 사랑 받을수록 사랑하고, 사랑할수록 더 깊은 사랑을 깨닫는 신비가 지금 우리 앞에 있다.

시 문제를 일으킨다. 외간 남자에게 눈길을 돌리며 예수님의 품을 떠나려고 발버둥 칠 것이다. 사탄의 정죄와 고소에 빠져 우리 자신을 혐오하기에만 바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 나아가 사랑 받는 아내로서 정절을 지키자. 사랑 받을수록 사랑하고, 사랑할수록 더 깊은 사랑을 깨닫는 신비가 지금 우리 앞에 있다.

2. 하나님의 도성인 교회(11-17)

하나님의 사랑은 시온을 영광스럽고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한다.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얻지 못하던 시온은 이제 아름다운 보석들로 치장한 영광스러운 성읍으로 재건축된다(11-12절). 그런데 이 성읍은 결코 아름답기만 한 연약한 성읍이 아니다. 이 성읍에는 여호와와의 교훈이 있고 큰 평안도 있다(13절). 대적들이 이 성읍을 넘볼지라도 도리어 이 성읍으로 인하여 대적들이 패망한다(14-15절).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에 대적들은 결코 이 성읍을 무너뜨리지 못한다(16-17절). 시온을 대적하는 모든 고소자들은 오히려 거꾸로 정죄를 당할 것이다(17절).

새 성전이자 새 예루살렘인 교회는 영광스럽고 견고한 성읍이다(계 3:12, 21:2, 18:21).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읍의 벽돌로서 함께 지어져 간다(엡 2:20-22).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며, 교회를 위하여 친히 대적들을 무찌르신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영광스러운 성읍이 되며 대적들을 무너뜨린다. 하나님의 사랑에만 온전히 머무르면 대적들의 어떤 공격도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찬란한 영광을 누리며 경험한다. 그러니 다시 한 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알자. 그분의 사랑을 한껏 누리자. 이 사랑 위에서 교회는 점점 더 영화롭고 견고한 성읍으로 굳건해 질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영광스럽고 견고한 새 예루살렘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백성들이다. 우리의 신앙고백과 생활은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다. 매순간 이 사랑으로 되돌아가자. 이 사랑을 확신하고 더 깊이 깨달아 누리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 기도제목 }

1. 부산중부노회 81개 교회(조직 45, 미조직 30, 기도소 6)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2. 교회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온전하고 풍성하게 깨달으며 누리도록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 (1)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 (2)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어냐 /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 (3)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 (4)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 (5)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해 아끼세 / 온몸과 맘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해갈을 약속하신다. 누구든지 값없이 먹고 마실 수 있다. 여호와를 찾고 만나기만 하면 된다. 그분께서 값없는 은혜로 구속을 베푸신다. 언약 백성들이 먼저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열방으로 이 은혜를 전파하게 하신다.

1. 목마른 자들아 와서 마시라(1-3)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나아와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 말씀하신다(1절). 언약 백성은 더 이상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값을 치르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할 필요가 없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좋은 것과 기름진 것들이 값없이 약속된다(2절).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께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백성들은 반드시 되살아난다(3절).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는 값비싼 은혜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얻는다. 자신의 무능력을 마주하고, 채울 수 없는 영적 갈증을 깨닫는 백성들은 바로 이 신비 앞에서 있다. 목이 마르면 여호와께로 나아가면 된다(요 7:37-38). 정녕 우리의 구원자께서 값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해갈하시며 구원해 주신다. 처음 믿을 때에도, 믿고 나서 교회로 살아가면서도 이 복음은 동일하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간다.

2.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리라(4-5)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구원의 복음을 자기 백성들을 통해 열방에 알리신다. 언약 백성

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고, 알지 못하던 나라들이 그들에게로 달려올 것이다(6절). 여호와께서는 값없이 해갈한 백성들을 통해 열방의 목마른 자들이 해갈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교회는 이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해갈하고, 우리가 먼저 기쁨과 평안을 누리야 한다. 목마른 얼굴로 생수를 소개해서야 신뢰가 가겠는가? 우리가 먼저 경험하자. 나아가 세상의 목마른 자들에게 해갈의 신비를 전하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넉넉한 은혜로 기다리고 계신다.

3.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6-13)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고 부르라고 말씀하신다(6절).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이다. 오직 그 길 뿐이요, 오직 그 길만으로 충분하다.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은 악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을 정녕 용서하신다(7절).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8-9절).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되이 말씀하지 않으시며 뉘으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신다(10-11절).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정녕 기쁨과 평안이 선물로 주어진다(12-13절).

성도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우리는 용서 받기 위하여 아무 값도 치르지 않았다. 우리의 죄 값은 오직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고,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님께서로부터 덧입은 의로움이다. 우리는 종종 첫 믿음을 고백한 후에 지속되는 범죄에 좌절한다. 그리고 죄를 용서 받기 위하여 점점 우리가 직접 값을 치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기억하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에 따라 죄를 용서 받고 의로움을 덧입었다. 값은 이미 지불되었다. 우리는 그저 죄악을 버리며 여호와를 찾아 부르짖으면 된다.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다(고후 6:2). 기쁨과 평안을 지금 함께 누리자.

값없는 은혜의 복음은 어제와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다. 언제나 여호와를 찾고 부르자. 매번 하나님께로 나아가갈 때마다, 교회는 다시금 해갈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충만한 평안과 기쁨이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는 힘과 무기이다.

{ 기도제목 }

1. 서울남부교회 57개 교회(조직 31, 미조직 22, 기도소 4)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2.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죄악을 내려놓고, 오직 값없이 받은 구원과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누리며 전파하도록

청소년, 다음 세대, 우리의 미스바

안점수 목사(광주은성교회)

코로나로 인해 인류는 깊은 터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희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런 난감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봅니다. 성경에는 우리처럼 참혹한 시절을 살아간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지요.

동족 간에 칼을 겨누고 서로를 적으로 여겨야 했던 사사기의 후반부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삿 19장~21장). 레위 사람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건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악에 받친 레위 사람은 첩의 시신을 신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 그녀의 주검을 열두 토막 내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미스바에 모이게 되고, 베냐민 지파가 가해자를 넘겨주지 않자 내전이 벌어집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궤멸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미스바에 다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참혹한 전쟁을 결정하기 위해 모인 미스바가 이전과는 다른 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정죄와 피의 보복을 다짐하던 미스바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맞보는 땅으로 변화 된 것입니다(삼상 7장). 무엇이 미스바를 새롭게 한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눈물이 있을 때 아픔과 상처와 죽음으로 얼룩진 곳은 새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현재 교회의 미스바는 다음 세대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궤멸하듯 다음 세대가 희귀해진 시대가 되어갑니다. 코로나는 교회 교육의 붕괴를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모두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며 체념하는 분위기입니다. 공과공부, 수련회, 개강집회, 찬양집회, 반별 모임 등등. 모든 것이 중단되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면서도 주일에 학원은 갑니다. 맛집은 찾아가드립니다. 가족 단위로 1박 2일 여행은 잘 다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손을 놓고 할 수 없다고, 안된다고 하며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미스바는 새롭게 될 수 있는 희망의 땅이라는 것을 믿고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미스바를 새롭게 하는 시작은 다시 젖은 눈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올해 교단 70주년 특별새벽기도회를 맞아 한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명단을 교사나 교역자의 도움을 받아 메모지나 폰에 기록해 두십시오.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물어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대학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십시오. 혈육을 위해 기도하듯 다음 세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십시오.

눈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피어날 것입니다. 미스바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옛적에는 미스바가 고통과 절망의 땅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흐를 수만 있다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허락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칼 바르트의 말을 한 구절 인용함으로 글을 마칩니다.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는 행위야말로 무질서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일어서는 출발점이다.”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

이사야 56장 1-12절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 (1)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 (2) 생명 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 (3)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이 가까웠다. 나타날 구원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요구하신다. 나아가 이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활짝 열리게 된다. 이러한 구원의 새로운 진전과 더불어 심판도 선언된다. 그 대상은 이스라엘의 직분자들이다.

1. 구원에 따른 합당한 반응(1-2)

구원이 가까웠고 공의가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신다. 구원의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누구든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맘껏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누릴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공예배), 그리고 손을 금하여 모든 악행을 행하지 않는 것(생활예배)이다. 이 두 가지 요구는 언약백성이 징계를 받고 포로가 되는 이유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제사를 멸시했다.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 요구를 따라 공 예배와 생활예배의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셨다. 그러나 구원은 단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을 포괄한다. 우리의 공예배와 생활예배를 돌아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하나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둘 모두를 요구하신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반응이다.

2. 이방인을 부르시는 하나님(3-8)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또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과 깊이 관련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출 19:5-6).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 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보 해야 한다. 성전은 그야말로 만민이 모여들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얻고 그 교훈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왕상 8:41-43, 사2:1-4). 이처럼 옛 언약 아래서도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방법과 지위는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참고. 레 25:46, 신 15:1-3).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이상의 차별은 없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막힌 담은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졌다(엡 2:14).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롬 3:22, 10:12).

본래 우리도 언약의 외인이었다(엡 2:12). 이제는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을 얻었다. 이 큰 구원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더불어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특권과 사명을 받았다(벧전 2:9).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한다.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

3. 직분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21-22)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파수꾼과 목자들을 향해 심판을 선고하신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 포도주에 취한 채 향락을 좇으며 산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의 짐승에게 넘기신다. 곧 언약의 저주 아래 처하게 하신다(레 26:22, 신28:26).

직분이 바로 설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직분을 향한 매서운 경고는 오늘날도 계속된다. 직분을 맡은 이들이 더욱 신실하게 맡은 직무에 충성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자(약 3:1).

하나님의 의의신 예수님을 붙들자. 우리의 공예배와 생활예배를 회복하자. 제사장 나라로서 건설되며 복음의 빛을 비추자. 이를 위해 수고하는 직분자들이 더욱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도록 위해서 늘 기도하자.

{ 기도제목 }

1. 서울서부노회 45개 교회(조직 29, 미조직 13, 기도소 3)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2. 공예배와 생활예배를 회복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 (1)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운 / 문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 (2)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라 /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들은 체 하려나
 - (3)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 (4)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 (후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말씀한다. 특별히 백성의 범죄를 몇 가지 측면에서 요약하여 제시한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붙드는 자들을 포로에서 돌이킬 것을 약속하신다.

1. 언약 백성의 죄악상(1-13)

유다의 죄악을 종합하여 보여준다. 첫째, 유다 안에는 악인이 난무하였다(1-2절). 의인이 죽어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이것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다.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여 죽게 만드는 경우를 말한다. 이로써 이스라엘 교회 안에는 점차 의인이 사라지고 악인이 득세한다. 선과 악의 기준이 뒤집힌다. 악인들의 생각과 결정이 옳은 것으로 여겨진다. 약속을 따르는 삶은 시대에 뒤쳐진 낡은 전통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모습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성도들이 약속에서 멀어질 때, 의를 따르는 삶은 교회 안에서 희미해진다.

둘째, 유다 안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다(3-9a절). 이를 음행의 모습으로 묘사한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고 한다(8절). 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니 부끄러워 감춘다는 뜻이다. 곧 대속의 복음을 지우고 언약 백성의 표를 감춘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밝히길 꺼려하는 것과 같다. 대신 집 안으로 우상을 들여 행음한다. 복음 대신 온갖 세상 것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는 모습이다.

셋째, 유다는 이방 국가를 의지하였다(9b-13절). 유다는 사신을 멀리 이방 국가로 보내며 그들의 도움을 의지한다. 그 도움이 효력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들은 참 피난

처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세속에 의지하며 그 사상이 위기를 만난 교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행태이다.

2. 포로 회복의 약속(14-21)

징벌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께서 백성이 돌아올 대로를 수축하신다. 이것은 포로 회복의 약속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신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하며 그들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다(15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나 독야청청하시는 분이 아니다. 백성에게 자신을 낮추시며 먼저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들을 소생시킨다.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를 멸시치 않으신다.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을 친히 고치신다(18절).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가는 백성들과 하나님은 다툼을 그치고, 노를 거두신다(16절). 면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신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가장 환하게 비추였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장막을 치셨다(빌 2:6-8, 요 1:1,14). 죄와 사망의 포로된 자기 백성을 살리셨다(엡 2:1). 죄인을 불러 고치시는 의사로 오셨다(눅 5:21).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교회로 삼으셨다(엡 2:11-22).

포로 회복의 약속은 오늘도 지속된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이들을 구출하신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동시에 성도들이 일시적으로 죄의 종이 되어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양약이다. 그분께로 돌이킬 때 우리를 낮게 하신다.

오늘 우리 자신과 교회가 세속에 얼마나 물들어 있는지 돌아보자. 성경의 원리를 내팽개치고 세속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을 회개하자. 세속의 원리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삶에서 돌이키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낮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송영하자.

{ 기도제목 }

- 1. 서울중부노회 41개 교회(조직 26, 미조직 10, 기도소 5)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 2. 성경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거나 외면하면서 세속의 원리에는 밝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고쳐주시도록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이사야 58장 1-14절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 (1)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삼시다
 - (2)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삼시다
 - (3)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삼시다
 - (4)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삼시다
- (후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책망하신다. 크게 두 가지 모습을 지적하신다. 외식적인 금식과 안식일 준수이다.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중심은 아니었다. 유다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적 행위로 가득했다.

1. 외식적인 종교행위에 취한 교회(1-5)

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신다. 그들의 허물과 죄는 가증스런 종교행위이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다. 겉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즐거워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외식은 이 백성의 허물이요 죄였다.

언약 백성들은 외식으로 금식했다. 금식은 죄를 깨닫고 자백하며 자기를 괴롭게 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이들은 오락을 찾았다. 한 몸 된 성도들과 다투며 싸웠다. 악한 마음을 품었다. 도무지 자기 죄악을 깨닫고 고백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교회는 삶의 실질은 잃어버린 채 그럴듯한 껍데기로 치장할 때가 있다. 때로는 삶의 실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할 때도 있고, 때로는 껍데기만이라도 남은 게 어디냐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한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는 행위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의 금식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예배와 교회 생활을 돌아보며 형식만 남은 것은 없는지 살펴보자.

2.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안식일(6-7,13)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 압제 아래 있는 이웃을 자유하게 하는 것,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여기서 이웃은 일차적으로 세상이 아니라 한 교회된 성도이다. 율법은 먼저 동족을 구제 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이다(레 25:35,39,47). 둘째, 구약에서의 양식은 단순히 먹고 마실 음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전 10:3-4). 따라서 양식이 없는 가난한 형제를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에 동참하게 하는 것과 같다. 셋째, 안식일에 단지 오락을 금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날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다. 곧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새기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금식과 안식일의 모습에서 우리는 교회와 함께, 교회를 위해, 교회의 한 지체로서 살아가라는 명령을 발견한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개인이나 가족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가?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가족임을 기억하며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하자(마 12:46-50).

3. 생명의 근원으로 회복되는 교회(8-12,14)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과 안식일을 준수할 때 이 백성에게 치료하는 빛이 임한다. 이로써 물던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나라의 본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순종을 통해 교회를 회복시키신다. 말씀에 대한 우리 각자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수단이다. 참된 금식과 주일성수,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우리 각자가 먼저 회복하도록 애쓰자. 우리가 한 몸 된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어려워하고, 교회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셔서 교회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 드림과 헌신이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실질의 회복은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과 깊이 관련이 있음을 되새기자. 멀찍이 서서 교회를 관망하지 말고 교회의 품 안에서, 교회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자.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도 확신하며 소망하자.

{ 기도제목 }

1. 울산노회 42개 교회(조직 27, 미조직 11, 기도소 4)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2.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며 그러한 실질을 갖는 우리가 되도록

중보자 안에서 일어서는 교회

이사야 59장 1-21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 (1)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 (2)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보던 하늘나라 /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 (3)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서서는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유다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기뻐했다. 이런 유다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유다는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 나올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건지시는 용사로 임하신다.

1. 죄악 가운데 무너져 내린 유다(1-8)

언약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 하고,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였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다. 그들은 금식과 기도 중에 악을 행할 뿐이었다. 하나님과 관계회복 즉 죄에 대한 회개는 없었다. 유다의 죄악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들의 모든 행동이 부패하였고 모든 행위가 죄악의 행위였다. 생각이 악했고 정의는 사라졌으며,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교회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합리화해도 안 된다. 죄는 회개해야 한다. 또한 기억해야 한다. 백성의 범죄가 유다 전체를 죄로 물들이는 첫걸음이었음을 말이다. 우리의 범죄가 교회 전체를 죄악으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기억하자. 지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자.

2. 중보자가 필요한 유다(9-15a)

하나님께서 유다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드디어 백성은 부르짖기 시작한다. 백성

의 슬피 부르짖으며 외치는 소리는 매우 처절하다. 빛을 바라지만 어둠만이 있을 뿐이다. 맹인 같이 더듬을 따름이며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다. 정의와 구원을 바라지만 찾을 수가 없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다. 도무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멸망을 기다려야만 할 것 같다. 비참함을 부르짖는 백성이 이제는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포학과 거짓을 행한 패역한 백성임을 자복한다.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참 가운데 버려두시기도 한다. 죄의 극한으로 우리를 몰고 가기도 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분명하다. 우리로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 자신에게서는 도무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회복의 길이다. 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하고 붙들자.

3. 유다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15b-21)

도무지 유다 스스로 죄악의 구렁텅이를 빠져 나올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신다. 공의를 갑옷으로, 구원을 투구로, 열심을 겹옷으로 삼으신다. 용사의 옷을 입고 오신다. 이것은 출애굽의 재현이다(출 15:3). 바로의 군대를 홍해의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포로된 백성을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던 죄를 제거하시고 대적들을 정복하시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으로 이사야의 예언은 성취되었다. 강한 용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다(갈 3:27).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받은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한다(엡 6:11). 우리 보다 앞서 전쟁터로 가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전쟁에 충성스러운 군인이 되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두실 때에도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일깨운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며, 우리로 그분을 뒤따르게 하신다. 모든 거치는 죄악을 내어던지고 이 길을 함께 걷자.

{ 기도제목 }

- 1. 울산남부노회 58개 교회(조직 27, 미조직 25, 기도소 6)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 2. 그리스도만을 필요로 한 비참한 죄인임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임을 기억하며 의를 따라 사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22절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 (1)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2)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 길과 진리요 생명 네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 왕
 (3)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따를 길
 (4)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후렴) 어둔 밤 지나고 동트는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속에 갇힌 유다에게 빛이 임한다. 여호와와 영광이다. 이방 나라들이 많은 재물과 함께 이 빛을 보고 모여든다. 시온이 새롭게 되며 무너진 성읍이 재건된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한 나라가 탄생한다.

1. 영광이 임하다(1-2)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명령하신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나 곧이어 백성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신다. 여호와와 영광이 임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영광과 빛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특별히 영광의 임재는 그분의 성소에 가득한 구름 임재와 동의어다(출 40:34-38, 왕상 8:10-11). 어둠을 뚫고 임하시는 여호와와 영광은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할 장막을 치시는 임재이다. 강한 용사로 임하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무찌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참고. 사 59).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우리는 이 약속의 성취를 듣는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 교제할 장막을 치셨다. 참으로 그리스도는 어둠에 비취는 빛이셨다(요 1:5).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셨다(요 14:2,20, 고전 3:16).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집을 창조하셨고, 지금껏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보존하신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지나 교회의 탄생과 보존

까지 이른다. 우리가 바로 그 구속사의 물결 속에 살아간다.

2. 이방이 모여들다(3-18)

여러 나라와 왕들이 이 빛을 보고 모여든다. 이것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녀들로 묘사된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모두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회복하신 이 빛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사라진 한 나라를 창조해낸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 새로운 나라가 탄생한다.

이때 이방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 재물과 부를 가지고 온다. 이 재물과 부는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된다. 단순히 새로운 나라에 들어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이 나라를 건설한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안으로 부름 받은 이방인이다(엡 2:12, 골 1:13).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 자녀들이다. 이렇게 교회가 된 우리는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

3. 새 나라가 탄생하다(19-20)

빛을 비추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나라가 탄생했다. 하나님께서 친히 빛을 비추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새로운 나라의 질서가 탄생함을 의미한다. 해와 달이 자주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이다(창 37:9-10, 사 13:10).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친히 다스리신다(행 20:28).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이들에 대한 존경과 순종을 통해 이 나라로 세워져 간다. 이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은 다른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영광을 따라 사는 삶이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자. 그리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자.

【 기도제목 】

1. 인천노회 58개 교회(조직 18, 미조직 34, 기도소 6)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2.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며, 이방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이사야 61장 1-11절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 (1)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 (2) 바다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쳐 울려라 / 복음 중의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 (3)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맘이 있어도 /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 (4) 바람들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선지자는 새 시대를 예고한다. 은혜와 보복의 때에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 시온이 복을 받아 회복되고 이방보다 높아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시온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1.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1-3)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신다고 선언한다. 그 메시아로 인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 메시아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놓임을 선포하신다. 은혜의 해이며 보복의 날이다. 시온은 더 이상 슬픔과 근심에 빠지지 않는다. 기쁨의 기름을 얻고, 찬송의 옷을 입으며,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 받게 된다. 그래서 은혜의 해이다. 또한 시온을 슬프게 한 자들이 심판 받는다. 보복의 날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에서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셨다(눅 4:16-19).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서 포로들을 귀환시키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신다. 이 소식에는 보복도 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2절). 교회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정죄 당한다. 예수님 당대에 참 교회를 괴롭게 한 자들은 유대인들 즉 언약 백성이었다. 교회는 때때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한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메시아이시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2. 메시아로 인한 회복의 날(4-9)

선지자는 황폐한 곳이 다시 일으킴 받을 것이라 말씀한다(4절). 이 회복은 예루살렘과 이방 사이의 관계도 새롭게 한다. 이방이 종처럼 시온을 섬기고, 시온은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영광을 얻는다(5-6절).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이다. 시온 곧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이방을 연결하는 제사장이 된다. 하나님과 교회는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8절).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이방 가운데 알리심으로써 이방이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실 것이다(9절).

교회는 제사장 나라이다(벧전 2:9).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구보다도 먼저 경험한 공동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린다. 복음은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가 세상을 섬긴다. 이 섬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이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세상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자. 이것은 사명이자 정녕 놀라운 특권이다. 또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친히 우리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자. 우리는 결코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지 않았다. 도리어 하나님을 뒤따라가며 그분의 영광에 참여한다.

3. 메시아로 인한 기쁨(10-11)

시온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분께서 시온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답게 꾸며 주시기 때문이다(10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뿌린 것을 움돋게 하는 것은 죽음을 넘어 생명이 주어지는 표이다. 이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확실한 예고이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시온의 회복을 통해 공의와 찬송을 확실하게 이루어 내실 것이다. 교회는 회복된 시온이다. 구원받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늘 기뻐하자. 아름다운 소식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정녕 지금 우리에게 있다.

교회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복음을 받았다. 그 복음을 몸소 경험하며 소유한 공동체가 교회이다. 교회는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인해 항상 기뻐해야 한다. 아름다운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 기도제목 }

1. 전남동부노회 35개 교회(조직 18, 미조직 13, 기도소 4)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2. 복음으로 즐거워하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며,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쉬지 않으시는 여호와

이사야 62장 1-12절

찬송가 330장 여든 밤 쉬 되리니

- (1) 여든 밤 쉬 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 (2) 여든 밤 쉬 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 (3) 여든 밤 쉬 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 지는 해 비긴 별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시온은 틀림없이 회복되고, 정녕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회복된 시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구속자로 널리 전파될 것이다. 이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이 회복을 위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명하신다. 시온은 기도를 통해 약속에 동참한다. 기도는 약속을 이루는 통로이다.

1. 너는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되리라(1-5)

시온의 의가 빛 같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 같이 나타나도록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이다(1절). 이방은 시온의 영광을 보며, 시온은 새로운 이름을 얻는다(2절). 시온은 하나님의 손의 왕관처럼 영광스럽게 된다(3절). 예루살렘은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요, 황무지도 아니다. 여호와와 기쁨이 시온에 있으며, 그들은 여호와와의 신부와도 같다(4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정녕 기뻐하실 것이다(5절).

하나님께서서는 교회에게 영광을 약속하시고 정녕 쉬지 않고 일하신다. 예수님의 섬김으로 성취된 이 약속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다. 성막과 성전에 여호와와의 영광이 가득했듯이 교회에도 영광의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셨다(행 2:1-4). 교회는 회복된 새 이스라엘이요, 새 신부이다(요 3:29, 고후 11:2-4).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줄곧 이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 약속을 바라보자.

2.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6-9)

선지자는 약속의 확실한 성취를 노래하면서 예루살렘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예루

살렘의 파수꾼들은 쉬지 말아야 한다.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 받도록 여호와께서도 쉬지 않게 해야 한다(6-7절). 시온은 소출을 빼앗기지 않고 성소 뜰에서 양식을 먹고 마시며 즐길 것이다(8-9절). 이는 언약 갱신의 현장인 예배의 회복이며,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뜻이다.

교회는 회복과 영광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동참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 교회가 그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공예배와 기도는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는 시간이다. 공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약속의 한복판에 함께 선다. 함께 예배하자.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또한 각자 기도하자. 이를 통해 주님의 약속에 동참하며 그분께서 교회를 영광 가운데 붙드시도록 매어 달리자. 이것은 부끄러운 간청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응답이다.

3.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10-12)

시온이 회복된다.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요, 언약 백성의 회복이다. 땅 끝에 흩어진, 곧 포로로 잡혀간 언약 백성들이 돌아온다(11절). 이방인들도 함께 한다. 그리하여 시온은 거룩한 백성이라 불리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이라 인정된다. 그러니 성문으로 나아가야 한다. 길을 닦고 큰 길을 수축해야 한다(10절).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언제나 이방으로 뻗어나간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회복하신다. 뿐만 아니라 세상마저도 돌이키신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받은 백성으로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야 한다. 나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성문으로 나아가 큰 길을 만들어야 한다.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교회는 언제든지 회복되어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약속은 공예배와 기도로부터 성취되기 시작한다. 무너진 공예배를 다시 세우고, 어긋나간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자. 공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는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되찾아 돌려주신다.

{ 기도제목 }

1. 전라노회 69개 교회(조직 33, 미조직 28, 기도소 8)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2. 하나님의 열심이 교회를 회복시키며, 이방의 빛이 되도록

나 혼자 산다?

박창원 목사(포항장로교회)



아이들의 울음은 전염이 됩니다. 한 아이가 울면 옆에 아이도 따라 울지요. 하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누가 운다고 해서 같이 울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를 따라 우는 건 그 친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른들은 친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는 것보단 문제의 해결책을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른과 아이는 사람에 대한 접근이 다른데요, 사실 이 차이는 어른과 아이의 차이라기보다는 죄의 결과로 인한 차이입니다.

죄가 있기 전에 사람은 서로를 하나로 여겼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여자를 보고 그를 자신의 몸과 같이 여겼지요. 하지만 죄가 들어오자 둘의 하나 됨은 깨어지고 맙니다. 아담은 죄의 문제를 여자에게로 돌리고 비난했습니다. 만약 아담이 여자를 자신과 같이 여겼다면 그는 여자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 함께 울어 주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3).” 이 말씀의 배경에는 소자 하나를 영접해 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곧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상대를 영접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 주라고 합니다(롬 12:15). 이는 우리가 서로를 한 몸으로 여겨 죄에 대해서는 함께 울고, 기쁨에 있어서는 함께 기뻐해 주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혼자 사는 것이 대세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밥 먹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놀

고, 혼자 삽니다. 전에는 혼자 사는 것이 서글픈 일이었지만 이제는 멋지고 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러한 현상에 더욱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 사회적 격리와 혼자 있는 삶은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여겨집니다.

이러한 영향은 예배의 영역까지 확장됩니다. 성도들은 함께 예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교회로 모이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함께 모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없습니다. 곧 서로의 슬픔을 위로하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좋아요’와 ‘구독’이라는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삶은 창조의 질서며, 우리의 기쁨을 위한 삶입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로 인해 이러한 삶이 위협받고 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함께하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고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함께 모여 교제하며,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라야 합니다. 또한 모이기가 어렵다고 모이기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기에 지금 우리에게서 더욱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위로를 얻고, 믿음의 권면을 하며 서로를 지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함께 예배하며, 교회와 함께 교제해야 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즐거운 삶입니다.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63장 1-19절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 (1)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 (2) 온 인류 마귀 궤환로 큰 죄에 빠지니 /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나갈 때 /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 (3)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둔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 (후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께서서는 대적을 멸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반역하는 백성들조차 종종 하나님의 대적이 되곤 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다. 은혜로운 징계이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은혜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신다.

1.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1-6)

선지자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 에돔은 원수의 대표이다. 하나님은 붉은 옷을 입고 오신다. 그 붉은 옷은 선혈로 물든 옷이다(3절). 상상해 보라. 전쟁터에서 적군 목을 베고 온 몸에 피로 범벅이 된 채 걸어오는 장군의 모습을. 에돔 뿐만이 아니다. 만민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선혈을 온 땅에 흘리게 된다(6절). 여호와께서는 포도주 틀을 밟는 분으로서 원수를 갚으시는 구속을 행하실 것이다(3-4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모르고는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적, 곧 죄인들을 확실히 멸하신다. 이 복음은 교회에게 위로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단의 권세를 지배하는 능력을 받았다(눅 10:19). 우리 주님은 원수의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오신다(계 19:11-16).

2.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7-14)

하나님께서서는 죄인들을 멸하시지만 또한 자기 백성을 한량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다(7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환란에 함께 하였고, 그들을 감싸 안으시며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8-9절).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자 그들을 대적으로 삼으시고 징계하셨다(10절). 그러나 이 징계는 대적들을 멸절시키는 것과는 다르다.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베푸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과정이다. 백성들은 징계를 받으며, 모세와 더불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출애굽의 하나님을 떠올렸다(11-14절). 그리고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여호와와 사랑이다.

교회의 회복은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 찾아온다. 교회는 자주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깊은 사랑으로 교회를 어루만지신다. 교회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때때로 사랑의 손길이 매섭고 무거워서 교회가 멸절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보여주신 과거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시 고백하게 하시는 현재의 사랑과 은혜도 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는가?

3. 기도하는 백성들(15-19)

정답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 사랑으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청원해야 한다(15-17절). 베푸신 약속에 의지하며 교회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18-19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표인 예수님을 의지하자.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간청하고, 주님만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자. 우리에게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능력이 없다. 오직 교회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사랑을 되새기며 기도하자. 이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바로 그곳에 교회 회복의 비밀이 있다.

대적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매섭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넓고 길며 높고 깊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자. 그리고 부르짖자.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신다.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

{ 기도제목 }

1. 전복노회 40개 교회(조직 13, 미조직 24, 기도소 3)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2. 죄를 미워하시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며 그분의 사랑을 누리도록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사야 64장 1-12절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 (1)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 (2)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 (3)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 (4)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 (후렴) 주 앞에 내가 었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강림을 요청한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다.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판단하여 주시기를 탄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심판을 구형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구원도 요청한다.

1. 선지자의 고소(1-7)

이사야는 하나님께 간곡히 요청한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강림은 성경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주제이다.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여자에게 찾아오신다(창 3:8). 여기에서 여호와와 오십은 심판주로서 강림이다. 따라서 이사야의 요청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해달라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심판을 요청하는 이유를 말씀한다.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나라가 없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그럴듯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사랑하셨기 때문이다(신 7:7-8). 그러나 이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한다. 끊임없이 반역한다. 완고하기가 그지없다. 짐승도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는 법을 알지 않는가?(사 1:3)

오늘 교회도 다르지 않다. 언약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의 심판주로서 좌정해 계신다. 범죄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교회를 심판하실 것이다(벧전 4:17). 하나님께서는 매주일 심판주로서 교회를 방문하신다. 귀에 들리는 말씀(설교)과 눈으로 보이는 말씀(성례)을 통해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하면서도 그분의 뜻을 좇지 않는 교회를 심판하신다.

2. 선지자의 변호(8-12)

이사야의 요청은 심판을 지나 구원으로 나아간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붙들 희망이 있다. 이사야는 과감하게 여호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은 언약 백성의 특권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아들로 삼으셨다(창 1:27, 5:1-3).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도 이스라엘이 아들이기 때문이다(출 4:22). 진흙 가운데서 아들을 빚어내시고 풀무불 가운데서 아름다운 토기로 만드시는 그분이 진정 이스라엘의 아버지이다.

아들이라는 신분에 근거하여 이사야는 마음을 쏟아 고백한다. ‘아버지시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소서. 우리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사야의 외침이 울려 퍼지는 그 배경은 이 외침의 처절함을 한층 강화시킨다. 시온은 광야가 되었다. 황폐한 땅이 되었다. 성전이 불에 탔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본래 아름답고 생명이 흘러넘치는 땅이 아니던가?(신 8:7, 시 48:2. 참고. 창 2:8-14). 사망과 황무함은 이사야의 외침을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결단코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 자기 아들의 울음 섞인 절규를 외면하지도, 멸시하지도 않으신다. 오히려 그 상처를 싸매어 치료해주신다(호 6:1-2).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외치셨다(막 15:34, 시 22:1). 이는 아들로 입양된 우리를 위한 외침이다(롬 8:29). 아버지를 부르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롬 8:15, 갈 4:6).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외침 속에서 의인의 회중이 탄생하며 교회가 되살아난다(시 22:22-31).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외침도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 자신과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를 계속하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심판하시며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행사를 눈과 귀로 목도하면서도 범죄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 분개하지 전에 먼저 우리 자신과 교회의 모습을 살피자. 혹 회개할 것이 있다면 곧바로 회개하자.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과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자.

{ 기도제목 }

1. 제주노회 18개 교회(조직 6, 미조직 10, 기도소 2)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2.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교회가 되살아남을 믿고 기도하기를 힘쓰도록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이사야 65장 1-25절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1)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 내 무거운 짐 벗어 버렸네 /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2)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3) 내 주린 영혼 만나로써 먹여주시니 /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후렴)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스라엘은 아무런 자격이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러면서도 거룩한 백성이라 자부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이 백성을 판단하시고,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 그리고 이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1. 패역한 백성을 벌하시는 하나님(1-7)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구했던 자들도, 찾던 자들도 아니다.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했다(수 24:2).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약속을 주시고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이러했다. 하나님께서는 줄기차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신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패역했다. 이들의 범죄가 적나라하게 묘사된다. 다른 신을 섬겼다. 무덤 사이에 앉아 돼지고기를 먹었다. 충격적인 묘사이다. 이들은 죽은 자들과 같다. 율법이 금하는 부정함 짐승을 먹고 마시며 사망과 연합한 모습이다(레 11:7, 신 14:8). 그러면서도 자고하여 말한다.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이 백성의 가증함과 패역함을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를 멸시하는 자들을 멸시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양심은 확인 맞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 하나님의 경고를 새겨야 한다. 죄인을 주권적인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죄를 고백하며 꿋꿋이 앞서는 백성이 되자.

2.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8-16)

못 먹을 상태의 포도송이도 즙을 내어 포도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야곱이 이와 같다. 비록 패역하고 범죄하여 상한 백성일지라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소망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이 결코 나아서가 아니다. 똑같이 짓물렀고, 똑같이 시들었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간청했다(눅 18:9-14).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아끼실 것이다. 이들로 야곱의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출 19:5-6).

교만한 자들은 주리며 갈할 것이다. 남은 자들은 먹고 마실 것이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수치가 약속되어 있다. 그러나 남은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심판과 구원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였다. 이들은 유월절 식탁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요 18:28).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며 조롱의 식탁을 베푼다(막 15:36, 눅 23:35-36. 참고. 시 69:21). 그러나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을 저버린 이들의 유월절 식탁은 주리며 갈하게 만들 뿐이다(시 69:22). 반면에 그리스도의 백성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유월절 식탁을 먹고 마신다(마 26:17-30, 요 19:28-30).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남은 자들을 보존하신다. 성찬의 상에서 떡과 포도주를 베풀어 주신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이 식탁을 받아 누리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보존된다.

3.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17-25)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이신다. 이곳은 새 예루살렘이다. 사나운 짐승과 어린 양이 하나 되어 살아간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바로 이 약속의 성취임을 증거한다(고후 5:17-21. 참고. 히 12:22). 우리는 바로 이 약속의 성취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이 성취의 절정인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간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이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

하나님께서서는 교만한 자를 벌하시지만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을 품어주신다. 풍성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더 나아가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나와 우리교회, 그리고 고신교회가 남은 자들이 되자.

{ 기도제목 }

1. 충청동부노회 58개 교회(조직 23, 미조직 32, 기도소 3)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2.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남은 자들이 되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새 예배

이사야 66장 1-24절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에

- (1)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에 /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2) 주 믿지 않는 자다 찬송 못하나 / 하나님 자녀된 자들 하나님 자녀된 자들 /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3)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4)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후렴)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사야의 대단원이다. 이사야서의 시작을 기억해보자. 가증한 예배와 가증한 백성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했다. 마지막 장에서도 이 주제를 반복한다. 그러나 마지막 장은 회복을 노래한다.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새 예배의 탄생을 말씀한다.

1. 가증한 예배, 가증한 백성(1-4)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증한 예배를 다시 한 번 꼬집는다. 이들의 예배는 외형적으로 아주 좋아 보인다. 경건하고도 엄숙한 예배였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들의 예배는 진실로 가증했다. 예배를 드릴수록 죄악은 쌓여갔다. 온갖 예배의 행위는 있지만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배는 그저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신다. 불리도 응답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다른 것에 유혹되는 심령을 주실 것이다.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아니라 멀어지기만 하는 계기가 될 뿐이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사람이 좋아할만한 요소들로 가득 채워 놓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모순 가득한 예배는 아닌가? 매주 반복되는 예배이니 어쩌다 한번 은혜 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한 것 아닌가? 사생활이라는 명목 하에 평일의 삶은 세상의 가치와 기쁨을 좇아 사는 우리는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감추신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2. 새 예루살렘(5-14)

이토록 패역한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다. 그

런데 이상하다. 패역한 백성은 하나님을 거절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자들도 핍박한다. 이들은 여호와와 영광을 운운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을 출교한다(요 16:2).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터치고 나가는 순간이다.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그 목소리를 발하기 시작하신다. 원수를 보응하신다. 시온은 아들을 순산한다. 가증한 백성으로 가득한 시온이 새롭게 탄생한 백성으로 가득한 곳이 된다. 예루살렘은 생명의 젖을 흘려보내는 백성의 어머니가 된다. 남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의 젖을 먹고 자라며, 그 어머니의 따스한 위로와 손길 안에서 번성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무서워 떨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이 약속된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분의 몸으로 부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며 겸손한 자들을 참 교회 안으로 불러 보존하실 것이다. 우리 자신과 교회가 참 교회로서 보존되도록 주님께 간청하자.

3. 새 백성, 새 예배(15-24)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신다. 회오리바람 같은 수레를 타시고 혁혁한 위세로 오신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예배와 가증한 백성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신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강림하신 여호와를 중심으로 못 나라에서 언어가 다른 백성들이 모여든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방인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신다. 새 백성, 곧 새 이스라엘이 탄생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예배한다.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강림 때에 성취되었다. 시내산 꼭대기에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베풀어주셨다(행 2장). 그렇게 새 예루살렘에 새 백성이 모여 새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열렸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향한다. 주님의 재림 때에 모든 것이 완성된다.

하나님께서 그저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불러 모으셨다. 새 예루살렘에서 새 예배를 드리는 새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것은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이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우리는 우리 교회가 되자.

{ 기도제목 }

1. 충청서부노회 47개 교회(조직 12, 미조직 30, 기도소 5)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2. 새 백성으로 부름 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나 자신과 우리 교회, 그리고 고신교회가 예배와 교회를 개혁해가는 주체가 되도록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이사야 52장 13절-53장 12절

찬송가 234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

- (1)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2) 괴롭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3)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4) 하늘나라 찬양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 거문고와 노랫소리 청아하고 묘하다
 (5)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후렴)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강대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메시아를 기대했다. 그러나 메시아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서 고난 받아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

1. 고난 받는 종(53:1-4)

고난 받는 종의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놀랄 만큼 상하신 모습이였다. 그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2절).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았고 간고(일반적으로 고통, 슬픔, 괴로움을 의미한다)를 겪었고 질고(질병)를 경험했다(3절). 그는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은 멸시를 당했다. 심지어 자기 백성들은 그를 알지 못했고 귀히 여기지도 않았다. 메시아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이려 모의했으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다(요 1:11-12, 11:53, 19:23-27, 마 2:13, 20:18, 27:1). 자기 백성들을 지으신 분이셨으나 백성들은 그를 알지 못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자들인가? 그럼에도 그는 백성들을 탓하지 않으셨다.

2. 자기 백성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한 메시아(53:5-12)

메시아의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 오직 자기 백성 때문이었다. 그는 우리

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다 당하셨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다(마 8:17). 놀라운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담당시키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된 후로도 우리는 이를 생각할수록 황송하고 너무나 죄송하며 감사할 뿐이다. 그가 고난을 받으며 억울한 곤욕을 당하였지만 변명하거나 강포를 행하지 않으셨다.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악인과 함께 하였고 악인처럼 취급을 받으셨다.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다.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은 우리 때문이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모두 우리 때문이었다.

3. 메시아의 영광(52:13-15)

메시아의 고난은 여호와께서 원하신 것이었다(53:10). 그는 여호와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다.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기쁨을 위한 섬김이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우선했다(마 7:21, 11:26, 12:50, 18:14, 26:39). 그 결과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사명을 이루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감격적인 사랑이요, 헌신이다.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시며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하신다(52:13). 여기 “형통하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는 뜻이다. 나라들을 놀라게 하며 왕들은 입을 열지 못한다(52:15절). “놀라게 할 것이며”는 구약성경에서 주로 정결예식에 사용되는 “뿌리다”와 같은 의미이다(출 29:21, 레 4:6, 14:7, 16:15, 민 8:7). 무슨 말인가? 이방나라들이 예수님의 정결케 함을 보고 들음으로 복음의 신비를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왕들은 입을 열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9-11).

메시아가 당한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죄에서 씻음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 메시아는 고난 받고 끝난 것이 아니다. 부활로 모든 영광을 받으셨고 그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는 최고의 승리를 거두셨다.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자.

{ 기도제목 }

1. 고신총회가 주최하고 고려신학대학원총동창회가 주관하는 2022년 제13회 전국목사부부수양회(4월 25일(월)~27일(수))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2.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평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이사야 7장 10-14절, 9장 1-7절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 (1)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2)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3)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4)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후렴) 저 겿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다. 언약 백성들은 앗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으로 희망을 잃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국으로부터의 보호와 해방을 말씀하셨다. 또 한편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셨다. 이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1. 임마누엘이신 예수님(7:14)

하나님을 배역한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을 거절한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신다고 말씀한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처녀를 통하여 출생한다(14절). 아하스 왕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었고, 심지어 미래에 오실 메시아는 더더욱 믿지 못한 자였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임마누엘의 예언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약속은 이루어졌다(마 1:23).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교회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열매이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다.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현장은 교회이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적 봉사를 통해 임마누엘 하신다. 교회를 통해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자.

2. 이방의 빛이신 예수님(9:1-5)

스블론과 납달리 땅은 고통 받는 땅이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 불렸다. 그런 이

방을 영화롭게 할 것을 약속한다(9:1절). 북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으로 고통 받던 유다에게 이 말씀은 큰 힘이 된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 가버나움에서 사셨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언하셨다(마 4:17). 마태복음은 이를 이사야 말씀과 연결한다(마 4:14-16). 예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셨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다. 드디어 사단의 권세에 붙들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빛이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성도인 우리는 이방의 갈릴리처럼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빛이시다(요 1:4-5). 빛을 거부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이 빛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자.

3.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9:6-7)

이사야는 이방의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할 뿐만 아니라 한 아기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그 아기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가장 강한 모습으로 오셨다. 정사를 멘 것은 모든 통치권을 가졌다는 뜻이다. 그래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악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통치자이시다.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이시며 모사시다. 곧 기이한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기이하고 신비롭다.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그 분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시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셔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불러 주셨다. 이 모든 메시아의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신다. 우리의 구원은 예사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세상의 환난과 풍파에서도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아기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모든 통치권을 가지시며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그 백성으로 불러주신다. 곧 우리의 공로는 없다.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자.

{ 기도제목 }

1. 은퇴목사님들의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평안케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퇴목사님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도록
2. 한 아기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땅 끝까지 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메시아 왕국의 비전

이사야 61장 1-3절, 65장 17-25절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1)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 밧고도 거룩한 천국에 /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 거기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2) 앞서 간 우리의 친구들 /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3)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 거기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4)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메시아 예언에서 피날레는 그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 왕국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질고를 받는 이유는 우리를 그의 왕국으로 초대하기 위함이다.

1. 메시아의 사역(61:1-3)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해 주신다. 세상의 어느 소식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제 우리는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로 살아간다. 더 이상 슬픔과 근심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오로지 메시아가 주시는 즐거움의 화관을 쓰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한다.

예수님은 일찍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이 성취 되었다고 선언하셨다(눅 4:16-21). 그러나 그 백성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눅 4:28-30).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롬 8:2).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위대한 일을 즐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자.

2.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65:17-19)

메시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다(1절).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다. 그의 왕국이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워 이전 것은 생각날 수가 없다. 새로운 신천신지의 세계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신천신지를 교회를 통해 미리 맛보게 하셨다.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고후 5:17).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보다 더 영광스러운 곳은 없다.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 이 위대하고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다. 이제 우리는 그 땅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만 남았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인가! 우리는 이 땅의 상속자가 된다. 잠시 잠깐의 고생이 끝나면 영화로운 그 곳에서 영원토록 즐거운 그 곳에서 살 수 있는 후사가 된다. 우리의 모든 고생은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3.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사는 삶(65:20-25)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다. 성도들은 교회를 통하여 이미 그 나라를 맛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하셨다(마 12:28). 또한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고도 하셨다(눅 17:21). 그 천국은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된다. 사단 곧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계 20:10-15).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인다(계 21:1). 그곳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그곳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리라”(계 21:4). 아멘!

성도는 이 왕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사단은 결코 성도와 교회를 넘볼 수 없다. 음부의 권세는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와 복된 자손이며 우리의 후손도 복된 자손이 될 것이다. 아담의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회복이 된다.

70일 동안 이사야 말씀과 함께 새벽을 열며 주신 말씀을 나누었다.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였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챔피언을 향한 길은 힘들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다. 여러분은 새벽기도 챔피언들이다. 새벽기도 챔피언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 나가기를 축복한다.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

{ 기도제목 }

1. 전국원로(은퇴)장로회연합회가 각 노회마다 속히 조직화 되도록
2.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새벽을 깨우는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나와 우리 교회, 그리고 고신교회가 되도록

기독교교육의 기본원리

유영업 목사(김포장로교회)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해?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단 말이야!”

어느 교회 집사님께서 자녀들을 데리고 매일 성경공부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재밌게 따라오던 아이가 어느 날 반기를 들며 이렇게 외쳤다. 사실 이러한 욕망은 이 아이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맘대로 행동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인의 살인이나 라멕의 노래는 서막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약속의 땅에서 패권을 차지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어야 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삿 17:6) 살아 사사시대라는 어둡고 혼란스럽고 비극적이며 수치스러운 역사를 쓰고 말았다. 이러한 흐름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이사야서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사 65:2). 그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걸어갔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명백하다. 그것은 ‘옳지 않은 길’이며 ‘패역한’ 길이라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고통당하는 말세에 드러나는 현상들이 나온다. 이는 마치 오늘 조간신문을 보는 듯 오늘 우리 시대의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는 고통이 바로 ‘자기 사랑’이다(딤후 3:1-2).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지침은 명확하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눅 9:23)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제자로 시작하지도 않은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그러므로 인간이 ‘내 맘대로’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며, 제자의 본분도 아니

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모습도 아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부모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아이들을 ‘말씀대로’ 살게 하려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할까? 세월이 지나면 철이 들 것이고, 철이 들면 좋아질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인으로서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욕망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줄 아시고 권위자를 세워주셨다.

첫 번째 권위자는 부모이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려면 필히 자신을 꺾어야 한다. ‘내 맘대로’의 본성을 다스려야 한다. 자녀를 부모의 권위 아래 두어 순종을 배우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자라가는 과정으로써 필요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권위자는 스승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고 말씀하셨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스승으로서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야 한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인도해야 한다. 그제 제자 삼는 일이다. 모든 제자를 스승의 권위 아래 순종을 배우게 한 것은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죄성을 꺾고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교회든 가정이든 학교든 어디든지 ‘내 맘대로 사는 죄인’을 ‘말씀대로 사는 제자’로 양육하는 일이 지속되어야 한다. 기독교교육의 기본원리를 상실해버린 우리시대를 보고 있노라면 탄식이 절로 나온다. 도대체 어디에서 교회와 한국을 짊어지고 갈 제자가 자라고 있는가?!

고신총회 설립 70주년 기념대회 실행위원회
(70일 특별새벽기도회 분과)

분과장 권오현 목사

서 기 소재운 목사

회 계 김광웅 장로

위 원 안점수 목사 박정곤 목사 강동명 목사 강현복 목사 유영업 목사

고신총회 설립 70주년 기념 70일 새벽기도회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

발행일 2022년 2월 1일

발행인 강학근

편집인 최정기

기 획 박진필

디자인 조은희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고신언론사

주 소 서울시 서초구 고무래로 10-5, 3층

02)592-0981~2

인쇄처 동양인쇄